우리는 하나, 마음과 뜻도 하나, 세계도 하나
신도용(대 · 소) 합창곡(3권) 찬불가도 하나 반주기도 하나
찬 불 가 | 반 주 기
사)삼보불교음악협회 / http://www.buddhamusic.org
문의 : 02)723-0440~1 / 017-365-3719

현대불교

신상품 LED인등 · LED전구
찬덕연등 031)792-6288/794-4055

☎구독신청 02)2004-8211~2 buddhanews.com 불기 2551년 (서기 2007년) 7월 18일(음력 6월 5일) 수요일 (주간) 제 637 호

"佛心 잡아라" 불교계도 대선바람

'대선용 모임' 속속 발족…줄서기·갈등 조장 등 우려

12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선 후보들이 난립하는 등 벌써부터 선거바람이 뜨겁다. 여야 예비 대선후보들의 불교계 공들이기도 일찌감치 시작되고 있다.

여야 각 정당의 불교 공략이 거세지면서 최근 불교계에도 '대선용' 모임이 속속 발족하고 있다.

범여권에서는 7월 19일 오후 3시 조계사 대웅전에서 불교미래포럼(공동 창립준비위원장 배영진, 임동주) 창립법회를 연다.

'불교미래포럼'은 △종책 포럼 개최 △종교문화정책 연구 △대선공약 마련 및 종책 개발연구위원회 구성 △인재양성 네트워크 구축 및 교육연구소 설립 등의 사업을 펼칠 예정이다. 조직은 자문위원으로 중진 스님 및 사회각계인사들을 위주로 50인, 공동대표 10인 이내로 하고, 16개 지역포럼도 구성할 계획이다.

정웅정 준비단장은 "범여권 대선주자들에게 불교의 종책 문제를 알리고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노력하겠다"고 창립취지를 밝혔다. 한나라당 중앙위 불교분과위원회(위원장 심담)는 7월 13일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한나라당 전국불교연합'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불심(佛心) 잡기'에 나섰다.



각 정당의 대선용 불교모임이 속속 발족하고 있다. 사진은 한나라당 전국불교연합 발대식 모습. 사진=박재완 기자

전국불교연합은 범종단 차원에서 출 · 재가 불자를 회원으로 영입해 전국 조직을 구성하고, 경선을 통해 선정되는 한나라당 대선 후보에 지지를 보낸다는 방침이다.

전국불교연합에는 해천(광주 마하연 주지) 영공(부산 태종사 조실) 도천(한미사 조실) 장산(불교뉴라이트 상임대표) 스님 등이 참여하고 있다. 심담 스님은 "불교의 권익 옹호를 위해 정치계에 뛰어들었다"며 "2007년 대선 필승에 불교신자의 단합된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계종 총무원과 조계종중앙신도회도 대선과 내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불교 정책을 제시하기 위한 '불교정책기획단(공동단장 승원 · 김응철)'을 6월 26일 발족했다. 불교관계법과 문화 · 문화재정책 · 환경 · 남북불교문화교류 등 다방면에 걸친 불교 관련 정책에 대한 불교계의 정리된 입장을 제안하겠다는 뜻에서다. 기획단은 오는 9월까지 불교 관련 정책을 분야별로 논의한 뒤, 이를 대선 후보에 전달할 방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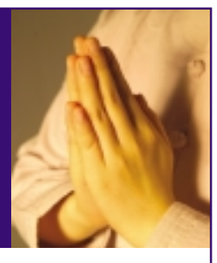
그러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이들 단체가 불교계 권익 옹호를 내세우지만 자칫 특정후보나 특정사안에 대한 '줄서기'나 갈등조장이 돼서는 안된다는 우려다.

정천구(영산대 정치학부) 교수는 "요즘은 옛날 왕조시대와 다르게 국민의 요구를 수렴해야 하는 민주사회이기 때문에 불교가 어떻게든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하지만 불교의 정치참여는 큰 틀에서 주권자인 국민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 선에서 영향을 미쳐야 한다. 즉 불교이념의 강력한 사회 전파 운동을 통해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방향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보이차 紅茶園
진년보이차 · 진품자사호 직수입
02-744-3311
www.hongdawon.com

마음 챙김 명상법
선무도
선호흡/선체조/선요가/선기공/선무술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하는 것을
잘 살피고, 정화하여
몸과 마음이 활짝 열린
건강한 삶을 이룰 수 있습니다
선무도 서울지원
02)763-2980
종로,서초,방배,송파,안산

"법률사무소 서안(瑞安)은 스님, 불자님의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 취급업무 : 민사 · 형사 · 가사 · 행정

법률사무소 서안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1597 한양월드빌 206호(평촌역 도보 5분)
전 화 | 031)387-5400 | 팩 스 031)387-5409
휴대폰 | 010-7504-4521 (강영화 변호사)
017-535-068 (김기현 변호사)
010-4488-3740 (김택선 변호사)

I Love Buddha / 수행은 잘 안되는 것

용정운(www.zentoon.com)



碧巖錄
벽암록 완역 기념 역자초청 특강
역자 석지현
강의내용 벽암록의 성립배경과 가치 · 읽기방법 등
일시 7월 19일(목) 오후 7시
장소 출판문화회관 강당(서울 사간동), 02)735-2701
대상 150명 선착순(예약접수자 우선)
수강료 1인 1만원
접수방법 전화로 예약(02-2004-8233) 후 계좌 입금
(국민은행 038-25-0008-365,
예금주 에이치비엠씨)
시은행사 예약자 선착순 100명 불서 1권 증정
주최 현대불교신문사(buddhanews.com)

언어로 언어를 깨 부수다

신정아 교수 박사학위 '가짜'

동국대 학사지원본부장 "사기혐의 고소할 수도"

동국대 신정아(여 · 35) 조교수의 예일대 박사학위가 가짜로 밝혀져 교계는 물론 학계와 미술계 등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상일 동국대 학사지원본부장은 7월 12일 동국대 회의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신 교수의 예일대 미술사학과 박사학위 위조 논란과 관련해 예일대에 확인 결과 리처드 레빈 총장 명의로 '신 교수의 예일대 미술사학 박사학위가 허위이며, 신 교수는 예일대 학생으로 등록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답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앞으로 진상조사를 통해 95년 신 교수의 채용 당시 해당 관련자들을 조사한 뒤 과실이 드러나면 징계 조치할 것"이라며 "신 교수를 업무방해와 사기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할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신 교수 채용 당시인 2005년 9월 동국대가 예일대 측으로부터 팩스로 전해받은 서류도 가짜임이 밝혀졌다.

7월 13일자 조선일보는 "팩스를 이메일로 보내고 진위확인 요청결과 예일대 대외협력처 길라 라인스틴씨는 이 서류는 예일대의 학력확인서 양식과 다른 가짜 서류"라며 "팩스에 서명이 돼 있는 파멜라 셔마이스터 교수는 부재중이었지만 그녀의 조교와 확인한 결과 파멜라 교수는 이 편지에 서명한 적이 없는 것으로 말했다"고 전하고 있다.

이에 앞서 연합뉴스는 11일 "신 교수가 졸업했다는 미국 캔자스대와 캔자스주립대에 따르면 이 두 대학에서 학사, 석사, 혹은 박사학위를 받고 졸업한 학생 중 신씨와 이름이 같은 인물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보도해 사실상 최종 학력이 고졸임이 드러났다.

이와 관련, 광주비엔날레측은 12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신 교수의 예술감독 선임을 취소하고 "18일쯤 긴급 이사회를 소집해 현재 공동감독인 오쿠이 엔위저(Enwezor · 미국) 1인 체제로 갈 것인지 새 한국인 감독을 뽑을 것인지 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신 교수의 학력위조 의혹이 2005년 임용 당시와 올해 초 등 수 차례에 걸쳐 동국대내에서 제기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학교측이 오래 전에 의혹을 알고 있으면서도 검증할 의지가 없었거나 은폐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2면에서 계속>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현대건축과 고건축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드립니다


귀의 삼보하옵니다.
평건은 현대사회의 빠른 변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신개념 건축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변화하지 않는다면 뒤쳐지게 됩니다. 이에 평건은 현대건축과 고건축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 드리겠습니다.
이제 불교도량(道場)도 변화해야 합니다. 즉 수천년 전통의 美를 살리면서 현대에도 어우러 지는 멋들어진 도량 말입니다. 저희 불자님들은 물론이고 불교성향을 가지신 일반인들이 와서 보고 편안히 공부할 수 있는 도량이야말로 불법홍포의 근본이 아니겠습니까?
스님, 불자님 향후 우리 후손들에게도 진정한 미의 건축 발전의 역사를 물려 주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시공분야
고건축[사찰건축] | 현대건축 | 인테리어 | 건축 및 불사 컨설팅
(株)平建
서울특별시 종로구 신교동 70-10 신교빌딩 4층 110-032
TEL 02)722-0094 / FAX 02)741-0096
http://pyeonggeon.com E-mail : pg@pyeonggeon.com

사찰·스님 늘고 사미·사미니는 줄어

조계종 2006 통계자료 공개

조계종 사찰 전년比 25개 · 스님은 259명 증가
승려교육기관 입학생↓ 신도전문교육 수료자↑

2005년에 비해 2006년 조계종 사찰과 스님 모두 증가했지만, 사미와 사미니는 감소했다. 승려교육기관 입학생은 대부분 감소했지만, 불교어산작법학교 입학생은 200% 증가했다.

신도전문교육 수료자도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파라미타청소년협회 조직 및 회원 또한 늘어났다. 조계종이 7월 11일 불기 2550(2006)년 통계자료집을 공개했다. 통계자료집은 2006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됐다.

▲사찰 증가…공찰 · 사설사암 모두=조계종 전체 사찰은 2393개로 전년 대비 25개(1.06%) 증가했다. 이 가운데 공찰은 894개로 11개(1.25%), 사설사암은 1499개로 14개(0.94%) 늘어났다. 교구별로 보면 직할교구가 13개, 수덕사 교구가 6개, 송광사 교구가 6개 증가했다. 이에 비해 동화사 교구는 10개, 은해사 교구는 4개 감소했다.

▲스님 증가…사미 · 사미니는 감소=스님 또한 1만3294명으로 전년 대비 259명(1.99%) 증가했다. 비구는 5120명으로 167명(3.37%) 늘어났고, 비구니는 5033명으로 148명(3.03%) 증가했다. 그러나 사미는 1852명으로 10명(0.54%), 사미니는 1289명으로 46명(3.45%) 감소했다. 한편 승려기초교육에 등록한 행자 중 40세 이상 남행자가 전체 348명 중 36.79%(128명)를 차지해 '행자 고령화' 현상을 보였다. 여행자 또한 187명 중 36.90%(187명)가 40세 이상이었다.

▲승려교육기관 입학생 대부분 감소…불교어산작법학교 200% 증가=승려교육기관 입학생은 동국대와 불교어산작법학교를 제외하곤 대부분 감소 추세를 보였다. 강원 입학생은 227명으로 전년에 비해 44명(16.24%), 중앙승가대학은 50명으로 12명(19.36%) 감소했다.

기본선원 또한 14명으로 6명(30.00%), 율원은 25명으로 6명(19.36%), 학림은 10명으로 5명(33.34%) 줄어들었다. 승가대학원은 2005년 12명 입학했으나 2006년에는 입학생이 한명도 없었다. 이에 비해 동국대는 44명으로 6명(15.79%) 증가했으며, 불교어산작법학교는 36명으로 24명(200%) 늘어났다.

▲신도전문교육 수료자 대폭 증가=신도전문교육 수료자는 2576명으로 전년 대비 753명(41.31%) 증가했다. 교육기관도 64개로 5개(8.47%), 교직자도 336명으로 18명(5.66%) 늘어났다. 신도전문교육 수료자를 지역별로 보면 전라북도 신도전문교육 수료자는 117명으로 91명(350.00%) 증가했다.

충청북도(+268.19%)와 해외(+225.00%), 서울(+173.14%), 부산(+107.43%)이 그 뒤를 이었다. 이에 비해 제주도는 15명으로 전년대비 184명(92.47%) 감소했다. 전라남도 또한 51.06% 줄어들었다.

▲파라미타청소년협회 조직 회원 모두 증가=파라미타청소년협회 조직과 회원 모두 증가 추세를 보였다. 지부는 12개로 2개(20.00%), 지회는 23개로 6개(35.29%), 분회는 305개로 29개(10.51%) 증가했다. 회원수 또한 지도자가 512명으로 81명(18.79%), 학생이 1만7307명으로 3532명(25.64%) 증가했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조계종 전법회관 착공

조계종 신행 · 포교단체들의 보금자리가 될 조계종 전법회관이 7월 11일 구 중앙신도회관 철거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공사에 돌입했다. <사진>

서울 종로구 견지동 13번지에 위치한 구 중앙신도회관 자리에는 2008년 5월 말 완공 예정으로 지상 9층, 지하 3층 규모의 전법회관이 들어선다. 철거식은 조계종 총무부장 현문, 사회부장 지원 스님, 조계종 중앙신도회 김의정 회장, 백창기 명예회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글=여수령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東大 "채용 진상조사委 구성"

<1면에 이어서>

이종옥 동국대 교수협의회 회장은 13일 "신 교수가 임용될 당시 예술대학 소속 교수들이 학력 위조 의혹을 강력히 제기했으며 특히 미술대 소속의 한 교수는 홍기삼 당시 총장을 만나 의문 내용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신 교수의 학력위조 의혹을 강하게 제기한 뒤 이사직에서 해임된 장윤 스님은 "학위가 진짜로 밝혀질 경우 내가 책임지겠다. 하지만 거짓 학위로 드러날 경우 임용 심사자와 홍기삼 총장은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발언했다"고 전했다.

동국대 이사회는 7월 13일 현재까지 아무런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다.

동국대 한진수 부총장은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신 교수 채용 당시 기획실장이던 유 모 교수와 인사 팀장인 안 모 교수 등 해당 관련자들을 조사해 빠른 시일 내에 진상 규명을 하겠다"고 말해 향후 동국대 진상 조사 발표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김주일 기자

관음사 정상화 산중총회 소집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도공)가 제주 관음사 교구 선거관리위원장에게 빠른 시일 내 산중총회를 소집할 것을 지시했다. 호법부에는 관음사 교구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방기를 조사해, 산중총회가 적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요청했다. 중앙종회에는 지난 3월 제출된 선거관리법 개정안이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촉구하기로 했다.

중앙선거관리위는 7월 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분과회의실에서 제177차 회의를 열고, 관음사 교구 정상화를 위해 이 같이 결의했다.

남동우 기자

미륵불교 中보제사 자매결연

(사)한국 미륵불교(총무원장 송봉)는 7월 4일 종정 덕범, 종회의장 만오, 선원장 청강, 예경원장 도행 스님 등 종단 임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중국 절강성에 위치한 보타산 보제사(방장 계은)와 자매결연식을 거행했다.

자매결연은 '한, 중 양국 불교는 상호간 친선을 도모하고, 경전교류 및 도제 교환 수행을 할 수 있으며 세계 불교 발전을 위해 적극 협력한다'는 내용으로 돼 있다.

김원우 기자

조계종, 전국 본·말사 주지연수 실시

"사찰·종단 홍보전략 필요"

"여러분 '방가방가'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7월 12일 김포 중앙승가대 지혜관. 박준영 중앙대학교 신문방송대학원 초빙교수의 질문에 어색한 정적이 흐른다. 몇 명은 알듯 모를 듯한 미소를 짓는다. 잠시 후 어디선가 "예, 압니다"란 대답이 돌아온다.

"그러면 'ㅊㅋㅊㅋ'과 'ㅇㅇ'은 아십니까?"

다시 침묵. "현대 사회는 미디어 시대라고 하죠. 미디어 시대에는 시대를 관통하는 코드를 읽을 줄 알아야 합니다."

7월 11일부터 13일까지 중앙승가대에서 다권역(신흥사, 월정사, 금산사, 백양사, 화엄사, 수덕사, 송광사, 대흥사, 선운사)을 대상으로 조계종 전국 본 · 말사 주지연수가 개최됐다.

첫째날 '사찰노무행정'에 대한 통합강의에 이어 둘째날은 △사찰인지도 및 영향력 강화를 위한 브랜드 전략 △미디어 시대! 사찰홍보(포교)의 모든 것 △어린이 · 청소년 포교, 국가정책을 공략하라! △실천사례로 본 사찰사회복지사업 성공전략 등 4가지 주제로 분반교육이 이뤄졌다. 특히 올해에는 사찰홍보와 관련한 교육이 진행돼 많은 관심을 끌었다.

박준영 교수는 '불교와 미디어' 주제 강의에서 "단순히 교세를 넓히는 차원이 아니라 연기, 무아, 동체대비의 대원실현 수단으로 불교미디어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종헌종법에 근거한 불교미디어연구소를 설립해 미디어 정책 전략을 연구하고, 미디어 교육 방편을 개발하며, 미디어 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총무원 기획국장 원철 스님은 "사찰 홍보를 위해 신도들이 직접 참여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통해 불자로서 주인의식을 고취함과 더불어 지역사회에서 사찰의 대사회적인 위상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짧은 시간 강력하게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수강하게 됐다"는 지훈 스님(영광 석명사 주지)는 "우리가 인재를 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종교에 비해 미디어 환경이 열악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포=남동우 기자

〈금강경〉 통일 한문·한글본 편찬 추진

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

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소장 현종)가 종단 소의경전인 〈금강경〉과 〈반야심경〉 통일 한문 · 한글본 편찬사업을 진행한다. 이 사업은 정확한 판본을 선택하고 전문가들의 검증을 거쳐 한문본 〈금강경〉을 편찬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중들이 쉽게 읽을 수 있는 한글본 〈금강경〉을 편찬 · 보급하기 위해 추진된다. 또한 한국불교에서 가장 대중적으로 독송하는 〈반야심경〉 한글번역본 간행도 진행한다.

이 사업에 대한 학술적 의미를 조명하고 대중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불학연구소는 7월 19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금강경〉 통일 한문 · 한글본 편찬을 위한 제1차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는 '종단 소의경전 편찬의 당위성과 〈금강경〉의 교학적 위상'을 주제로 열리며, 은해사 승가대학원장 지안 스님이 '종단 소의경전 〈금강경〉 · 〈반야심경〉 통일 한문 · 한글본 편찬 사업의 당위성'에 대해 기조 강연한다.

또 김선근 동국대 교수가 '〈금강경〉의 교학적 위상과 조계종'을, 김호귀 동국대 강사가 '종단 소의경전 편찬을 위한 〈금강경〉의 판본 고찰'을 각각 주제 발표한다. 이에 대해 우진 스님(통도사 강주)과 각묵 스님(실상사 화엄학림 강사)이 논평을 한다.

남동우 기자

천태종-中 중화종교문화교류協 교류 협의서 체결

천태종(총무원장 정산)과 중화종교문화교류협회(회장 엽소문, 국가종교사무국장)는 7월 4일 중국 베이징 국가종교사무국에서 '천태종-中 중화종교문화교류협회 교류협의서'를 체결했다.

양측은 교류협정서에서 △천태종 정신을 소개하는 중국어판 책자 1만여 권 출판 후 중국 대학과 사찰, 도서관 등에 기증 △중국불학원과 금강대 간 유학생 교환 △중국불교문화연구소와 천태종 원각불교사상연구소 간 교류 등에 합의했다.

김원우 기자

대흥사 주지후보 범각 스님



해남 대흥사 주지 후보에 범각 스님(사진)이 선출됐다.

대흥사는 7월 12일 37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현당에서 산중총회를 열고 단독 입후보한 범각 스님을 만장일치로 차기 주지 후보로 선출했다.

1976년 사미계, 84년 구족계를 수지한 범각 스님은 총무원 사회국장, 대흥사 총무국장, 11대 중앙종회의원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초심호계위원을 맡고 있다.

남동우 기자

현대불교 영상사업단 사업안내

본사는 '현대불교영상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찰이나 단체의 행사 개별 기록 등을 영상으로 제작해 홍보와 소장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사업 분야
사찰홍보영상,
사찰행사, 칠석, 백중, 개인 다큐물 및 동영상 자서전 제작, 단체활동 홍보 영상, 강의 및 법문 등.

■단장 겸 감독
김봉환 (前 KBS /동아TV 촬영감독, 강원대 영상학 강사)

■문의 : 02-2004-8279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 · 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노진환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온라인광고 애드부다피아 http://ad.buddhapia.com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산지사 : (051)632-0064 대구지사 : (053)768-8008
경남동부지사 : (055)353-1196 경남서부지사 : (055)355-7472
울산지사 : (052)272-0909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대전충북지사 : (043)732-5560 영주지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바로 잡습니다

본지 636호 7면 기사 제목 중 '뻘어나가길'을 '뻗어 나가길'로 고칩니다.

성 명 서

종립 동국대학교 재단은 신정아 교수 불법 채용에 대해 공개사과하고 응분의 책임을 질 것을 촉구한다

중앙종회 종책모임 화엄회와 무량회 일동은 최근 방송과 중앙 · 지방 일간지를 통해 보도된 내용을 접하고 경악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광주 비엔날레 예술감독으로 내정된 동국대 신정아교수의 학위가 위조됐음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입니다. 결국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이사회(이사장 영배스님) 인사검증시스템에 중대한 하자가 있으며 불 · 편법을 동원하여 교수채용이 이루어지고 있음이 확인된 것입니다. 이와 관련 몇 가지 사실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선 백년전통을 지닌 종립 동국대가 다수 이사의 암묵적 횡포 앞에 재단행정이 전횡되고 대학의 인사행정의 부실을 초래해 재단과 대학의 명예와 위상이 실추되는 상황을 보고 참담한 심정을 가눌 길 없습니다.

동국대 재단이사회는 지난 5월 29일 열린 이사회에서 장윤스님에 대해 이사직 해임을 결의한 바 있습니다.

신정아교수 특별채용을 결정하는 이사회에서 박사학위가 위조됐다고 한 발언을 문제삼아 책임을 물은 조치라고 하였으나 최근 언론에서 보도했듯이 장윤스님의 주장은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교수채용에 있어서 결의권을 가진 이사가 인사관련 검증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 것은 이사로서의 당연한 의무이자 적법한 책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국대 이사장을 비롯한 다수 이사들은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문제를 제기한 장윤스님을 해임, 명예에 깊은 상처를 주었을 뿐 아니라 종립대학의 위상을 추락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장윤스님의 주장이 사실로 드러나자 재단이사장은 신정아교수의 학위위조주장 때문이 아니고 끊임없이 학교 분란을 조장하기 때문에 이사해임을 결의했다는 허무맹랑한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계속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어리석음의 극치를 보이고 있을 뿐 아니라 자기 책임을 회피하려는 몰염치한 처신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종립학교에 참여하고 있는 운영주체들은 건학이념에 입각하여 인류사회에 이바지할 동량들을 배출하라는 사명감을 종도들이 부여하였습니다.

그러나 종도들의 염원을 잘 받들어 종립대학의 위상을 높여야 할 이사진들이 학술적 · 도덕적 비리가 있는 사람을 옹호하고 반대로 진실을 말하는 이사를 배척 · 매도한 사실이 밝혀진 이상 종단적 차원의 책임을 물어 우리 종립학교의 건학이념을 바로 세우고 21세기에 걸맞는 교육지표를 설정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화엄회와 무량회 일동은 뼈를 깎는 성찰을 통해 종립 동국대가 새로이 거듭나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다음과 같은 사항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 음

◆동국대학교 이사장 영배스님을 비롯하여 이번 사건에 누를 범한 재단의 책임자와 관련임원, 그리고 학교행정의 책임자는 장윤스님과 전종도에게 공개사과하라.
◆장윤스님의 이사직 원천 복직을 촉구하며 재단임원진은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전원 사퇴하라.
◆감사원과 교육부는 이와 같은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엄중한 조사와 함께 방지책을 마련하라.
◆종립학교 관리위원회와 총무원 호법부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고 종헌종법에 의해 엄중히 처리하라.

불기 2551년 7월 09일

제 14대 중앙종회 종책모임 화엄회 무량회 일동

막무가내 공사에 수행환경 침해

총화종 총본산 수진사 주변 개발에 몸살
종단협 대책위 구성…경기도등에 진정서

남양주시 호평동 총화종 총본산인 수진사(총무원장 남정)가 도로개설과 고층아파트 건설로 몸살을 앓고 있다.

현재 수진사 옆으로 8차선 도로가 예정돼 있으며, 도로 건너편에는 S건설이 시행하고 D건설이 시공하는 22층 고층아파트가 건립될 계획이다. 특히 도로의 경우 수진사가 반대 입장을 피력하자 약간 비켜 나가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면서 강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총화종 총무원장 남정 스님은 "도로와 아파트가 건설되면 수진사는 일조권 침해와 더불어 굉음 분진으로 인한 수행환경 침해가 우려된다"며 "이렇게 되면 총무원에서 일상적으로 이뤄지는 종도교육이나 회의 등은 아파트가 건립되는 3~4년 동안 하기가 어렵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이하 종단협) 산하 인권위원회(위원장 진관)는 7월 10일 회의실에서 '대한불교 총화종 총본산 총무원 수진사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를 구성했다. 위원장에 만오(총화종 前 종회의장), 부위원장에 남오 스님(총무부장)이 선임됐다.

대책위는 건설사의 수행처 말살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하고, 원만한 합의나 대책이 마련되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활동할 예정이다.

종단협도 회장 지관 스님 명의의 진정서를 경기도와 남양주군에 10일자로 접수했다. 종단협은



수진사 대책위 기자 간담회 모습.

진정서에서 "건설사의 막무가내식 공사로 수진사 수행환경 보존과 종교 활동에 큰 피해가 예상됨으로 양자 간에 원만한 합의나 대책이 마련된 후 허가가 검토되도록 깊이 살펴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조계사, 학업성취 특강 31일부터 학부모 대상

서울 조계사(주지 원담)가 3차에 걸쳐 입시생 학부모를 위한 학업성취 특강을 실시한다.

1차는 7월 31일 오후 2시 대웅전에서 '입시 100일!'을 주제로 이석록 메가스터디 교육연구소장을 초청해 진행한다. 2차는 8월 7일 오후 2시 열리며 김수현 식생활상담소장이 '수험생 여름철 건강관리'에 대해 강의한다. 10월 17일 오후 3시 30분 열리는 3차에서는 이만기 UA 중앙교육 평가이사가 '수능 직전, 당일, 직후 꼭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해 설명한다.

조계사 주지 원담 스님은 "공부법과 자녀 건강관리 및 지도 방법에 대한 강의를 진행할 것"이라며 "다양한 정보를 얻고자 하는 많은 학부모님들께 유익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02)732-2183 **남동우 기자**

社告

'자비명상 지도자' ★ 뽑습니다

현대불교신문사는 나눔의 기쁨 공동체와 자비명상 초급지도자 과정 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 교육일정-주 1회 2시간씩 8주

주제	일정	프로그램 주제	내용
불교 상담의 접목	1주	교육 일정에 대한 소개 마음나누기, 자비명상	교육의 목적과 의의에 대한 설명, 자비명상 안내와 실습하기
	2주	명상으로 이어지는 프로그램	자기 긍정 명상, 쌀 감사 명상
	3주		구나, 겠지, 감사 명상, 유서 쓰기
자비로운 대화 훈련	4주	대화 훈련 1 -듣기와 반응하기	신도·일반인들의 말을 듣고 반응하는 방법 익히기
	5주	대화 훈련 2 -칭찬하기	신도 · 사찰 종사자들과의 원활한 관계를 위한 칭찬 연습하기
	6주	대화 훈련 3 -공감	타인의 말을 효과적으로 공감하여 표현하는 방법 익히기
	7주	신도대화(상담)실습	신도들과의 원활한 상담을 위해 전 주에 배웠던 기법을 응용해 실습
	8주	정리하는 마당	스님들과 마음 나누고 칭찬 주고받기

● 4박 5일 집중 과정 일정표

	초기 - 과도기 - 작업 - 종결단계				
	시작하는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09:00~12:00(3)		이론 강의와 실습 1	프로그램 진행실습-3명	프로그램 진행실습-3명	마음 나누기 마무리
14:30~17:30(3)	오리엔테이션 참가자 소개	집단상담	프로그램 진행실습-3명	프로그램 진행실습-3명	
19:00~21:00(2)	집단상담	집단상담	프로그램 진행실습-3명	집단상담	

■ **장소** : 법련사(8주교육), 집중수행과정 (장소 일정 추후 공지)
■ **기간** : 8월 13일~10월 1일
■ **대상** : 스님(15~20명), 재가자(15~20명)
■ **일시** : 매주 월요일 스님(오후 2~4시), 재가자(오후 7~9시)
■ **접수 방법**
- 1단계 : 원서접수(7월 4일~8월 3일)-자기소개서(사진첨부), 수행이력서
※접수는 팩스 또는 이메일 (godory700@hanmail.net)
■ **수업료** : 200만원
■ **특전** : 나눔의 기쁨 공동체협회장 인증 명상지도자 초급자격증 부여
■ **문의** : TEL (02)2004-8237, 팩스 : (02)737-0698
■ **주최** : 나누는 기쁨 공동체, (주)현대불교신문
■ **강사** : 마가 스님

"화합 통한 원융총림 실현에 최선"

통도사 주지 정우 스님 진산식에 사부대중 5000여명 참석



영축도림 방장 원명 스님이 정우 스님(오른쪽)에게 주지직인을 전달하고 있다.

영축총림 통도사 제27대 주지 정우 스님 진산식이 7월 12일 통도사 금강계단 앞 특설법단에서 봉행됐다.

사부대중 50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봉행된 진산식에는 영축총림 방장 원명 스님과 보성, 지혜, 활안, 월서, 초우, 혜정, 혜승 스님 등 조계종 원로의원,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 등 종단 지도자와 각 교구본사 주지스님이 대거 참석했다. 설동근 부산시 교육감 등 지역 기관장, 손학규 前 경기도지사, 이상득 국회 부의장 등 정치계 인사 50여명도 참석했다. 대만 불광산사 주지 신페이(心培) 스님과 일본 정행사 주지 다케하라 지묘(竹原智明) 스님 등 외국인 스님도 10여명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다섯 번의 명종으로 시작된 진산식에서 총무원장 지관 스님은 "적멸보궁 금강계단에서 불조의 증명과 사부대중의 원력으로 이루어지는 통도사 주지 진산식이, 부처님께서 이계위사(以戒爲師)하라는 부촉을 이어가는 자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정우 스님은 취임사를 통해 "대중의 공의를 묶어 원융산림을 살고 지역 발전에 이바지 하는 통도사가 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이날 진산식에서 정우 스님은 경남도와 부산광역시 울산시 양산시에 독거노인 지원을 위한 백미 4000포대를 전달하고 지역 청소년들에게 3000만원의 장학금도 전달했다.

통도사=하성미 기자

"불교의 대중화 · 현대화 · 세계화 첫 걸음"

전통불교문화센터 착공식



한국불교 전통문화 개발과 육성, 불교인재개발의 중심시설이 될 전통불교문화센터 착공식이 7월 13일 공주 마곡사 인근 센터건립 현장에서 거행됐다.(사진)

1부 착공법요식에 이어 2부에서는 한국불교문화사업단장 종훈 스님의 경과보고,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의 인사말, 공주 마곡사 주지 진각 스님의 환영사, 김의정 조계종 중앙신도회장의 발원문, 쌍용건설 현장소장의 시설개요설명, 시삽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착공식에서 지관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전통불교문화센터는 1700년 한국불교 역사 중 불교문화발전사에 또 하나의 기록을 남기게 될 뜻 깊은 사업"이라며 "불교의 대중화, 현대화, 세계화의 첫 출발점이 바로 오늘 착공하는 전통불교문화센터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관 스님과 쌍용건설 김병호 대표는 9일 전통불교문화센터 시설공사 계약서에 서명했다. 공사계약 금액은 131억7000만원.

남동우 기자

날마다좋은날, 사업 확정 전문 이사진 대거 영입

조계종 중앙신도회 부설 사단법인 날마다좋은날(이사장 김의정)이 이사진을 보강하며 하반기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날마다좋은날은 △불교의료봉사단 반갑다연우야 확대 및 재해재난대비 봉사단 발족 △치과 이동 검진 버스 운영 △불교장례 상조(相助) 콜센터 운영 및 봉사단 교육 △불교경제단체 구성을 통한 불교 관련 산업 육성 방안 수립 △서울특별시 비영리 민간단체 지정사업인 '이웃과 함께하는 동지절' 등을 하반기 주요 사업으로 채택했다.

날마다좋은날은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이사진으로 대거 영입, 7월 11일 신임 이사 위촉식을 봉행했다.

여수령 기자

시민단체, 징수 반대 활동 전개

문화재관람료 문제로 조계종과 갈등 깊어져

문화재관람료 문제로 시민환경단체와 조계종 사이에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대한산악연맹, 문화연대, 환경운동연합 관계자 20여명은 문화재관람료 징수가 부당하다며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7월 10일 서울 조계사 앞에서 개최했다.

단체들은 기자회견에서 성명서를 통해 "문화재관람료 부당징수 폐지 운동을 확산하기 위해 전국 곳곳에서 문화재 관람료 부당징수에 맞선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시민환경단체들은 △문화재관람료 거부운동 전국 확산 △'문화재보호법 44조 1항' 철폐를 위한 위헌 소송 및 법률개정 운동 전개 등을 향후 계획으로 내놓았다.

남동우 기자



"모든 사람의 운명을 내가 볼 수 있다!"



임상실험을 거친 독보적인 운명서 드디어 대공개!

■ 단 한 시간이면 누구나 볼 수 있는 운명서
■ 언제나 30초 안에 모든 일의 결과 예측
■ 43만 가지의 인간사 즉시에 결과 예측
■ 한눈에 펼쳐지는 우주자연의 비밀
■ 이제 아무도 흉내 낼 수 없는 완벽한 저자의 이론과 학문 완전 공개
■ 역대 대통령선거 1년 전에 100% 결과 예측
■ 역대 대형사건 · 사고의 운명적 해석과 증명



자신의 운명수와 궁합 · 전화번호와 궁합 · 자동차번호와 궁합 · 날짜로 보는 운명 · 부동산의 운명 등등 운명에 관한 모든 궁금한 사항들….

누구나 볼 수 있게 〈단시표〉 전격 수록!

총 1,152개로 세분한 단시표만 있으면
이제 누구나 모든 사람의 운명을 볼 수 있다!

화제의 신간

대한민국 운명록

해광스님의 전편 『운명비결』을 완전 보강한 새로운 운명서!

두렵다. 사람들이 숭볼까 두려운 것이 아니고, 이제 더 이상의 할 일이 남아 있지 않아서 두려운 것이 아니다. 이 책에 담긴 내용이 두렵고, 이 책의 내용으로 그동안 수천 명 이상을 상담하면서 보여졌던 경악할 만큼 들어맞는 결과들이 나는 오히려 두려운 것이다.

역대 대통령 선거 1, 2년 전에 정확히 당선자를 예측, 그럼 17대 대통령은 누구?

역대 대통령 선거의 1, 2년 전에 정확히 당선자를 예측해 낸 이론적 근거는 한 번도 예측이 빗나가질 않음으로써 계속 증명되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통째로 바꾸어버린 대형사건 · 사고들……. 8·15광복, 6·25동란, 5·16, 10·26, 12·12, 그리고 IMF 구제금융까지, 이 사건들이 음력으로 운명수 6이라는 똑같은 날짜에 발생한 기막힌 이유는 저자의 디지털화 된 『대한민국 운명록』에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진다.

아는가? 삼풍백화점과 성수대교의 붕괴가 같은 운명수의 날이고, 아웅산테러와 9·11테러가 같은 운명수의 날이며, 아현동 가스폭발과 충주호 유람선 화재가 같은 운명수의 날임을….

열매출판사 Tel. 02-3142-0057(代) / Fax. 02-3142-4901 • 해광스님 지음 / 신국판 양장본 / 512쪽 / 값 25,000원 * 서점에 있습니다.

■ 저자 연락처| i4984@hanmail.net 다음카페 〈금강선원 해광스님〉 T. 032-665-8472

"불교의 믿음은 '나도 깨달을 수 있다'는 것"

김용옥 교수, 한국불교학회 하계워크숍서 강조
'기철학 체계에서의 믿음과 깨달음' 주제 발표

'도올 김용옥 교수와 불교의 만남'으로 관심을 모았던 한국불교학회 하계워크숍이 7월 7일 서울 봉은사 보우당에서 열렸다. 500여 명의 불자들이 함께한 이날 워크숍은 '믿음과 깨달음'을 주제로 3시간여 동안 진행됐다.

이날 워크숍 사회 및 '기철학 체계에서의 믿음과 깨달음' 주제 발제를 맡은 김용옥 교수(세명대 석좌교수)는 "불교에 있어 모든 믿음은 깨달음에 도달하는 믿음일 뿐"이라며 "따라서 불교의 믿음은 '나도 부처님처럼 깨달을 수 있다'고 믿는 것, 다른 말로 나의 깨달음의 가능성에 관해 끊임없이 자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믿음과 깨달음은 몸을 가진 상식적 인간의 문제일 뿐이며, 그것은 몸의 욕망을 끊임없이 창조적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사회적 행위이자 곧 대승의 정언명령이다"고 말했다.

주제발표에서는 특히 "인간의 행위에 '완전'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점수(漸修) 속에 돈오(頓悟)가 있고, 돈오 속에 곧 점수가 있을 뿐"이라며 '돈오돈수'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김 교수는 "돈오가 와도 점수가 계속되어야 깨달음이 유지되며, 육바라밀을 끊임없이 실천하는 깨달음이 이 시대 한국사회에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조강연이 끝난 후 초기불교에서 선불교까지 시대별 불교의 믿음과 깨달음에 대해 불교학자들의 발표가 이어졌다.

임승택 교수(경북대)는 '초기 · 부파 불교에서의 믿음과 깨달음'에서 "초기불교에서는 불 · 법 · 승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사성제에 대한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믿음만을 강조하면 지혜를 등한시하게 되고, 지혜만을 중요시하면 믿음을 잃기 쉽다"는 임 교수는 "초기불교에서는 균형 잡힌 마음상태를 강조하며, 그러한 가운데 점차적으로 깨달음을 실현해 나가야 한다고 가르친다"고 정리했다.

'인도 대승불교에 있어 믿음과 깨달음'을 발표한 안성두 교수(금강대)는 "유식에서는 믿음이 과연 해탈에 결정적인 요소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며 "믿음 자체는 분명 마음을 정화시키고 가르침을 순수하게 받아들이게끔 하지만, 그것은 올바른 인식을 얻기 위한 준비과정이지 완전한 청정 의식은 아니다"고 밝혔다. 다만 "여래장 사상에 있어서는 깨달음이 믿음에 의해 증득될 수 있다고 설해진다"고 덧붙였다.

허일범 교수(진각대)는 '밀교의 믿음과 깨달음'에서 밀교의 성격을 정의한 후 "밀교에서는 불보살에 대한 믿음뿐만이 아니라 스승과 제자 사이의 믿음이 중시된다"며 "밀교에서의 깨달음은 불법을 전하는 자나 전해 받는 자의 자격과 믿음이 전제되며, 아사리(스승)는 제자에게 돈독한 신심과 삼보에 대한 공경을 요구한다"고 지적했다.

'화엄불교에서의 믿음과 깨달음'을 발표한 신규탁 교수(연세대)는 "화엄불교에서는 모든 인간이 부처와 똑 같은 지혜와 덕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추호의 의심 없이 믿고, 보현보살의 실천을 따라 생을 거듭하면서 번뇌를 닦아 깨달음에 이르게 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선불교에서의 믿음과 깨달음'의 관계를 살펴본 이덕진 교수(창원전문대)는 "선불교에서의 믿음은 자신은 물론 일체 중생이 본래 성불해 있다는 믿음이며, 이 믿음은 나와 부처님은 어떠한 차이도 없다는 믿음"이라고 정의한 뒤, "이러한 믿음을 바탕으로 끊임없이 수행함으로써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김용옥 교수가 발제문에서 '돈오돈수'를 '불타의 원래적 가르침에서 벗어난 말류적 개념대립을 극화하시켜 운운하는 말장난'이라고 표현한 것과 '선(禪)'의 개념에 대한 지적에 대해 좀 더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여수령 기자


7월 7일 서울 봉은사에서 열린 한국불교학회 워크숍에 참석한 도올 김용옥 교수는 "불교에서 믿음은 깨달음에 도달하는 방편"이라고 강조했다.

정수사 여름 '孝캠프' 개최

정수사(주지 세등)는 청소년의 '효'정신을 고취하기 위해 제2회 산사 여름 '효 캠프'를 개최한다. 7월 20~22일까지 2박3일 동안 열리는 이번 효 캠프는 전문 요양원에서 생활하는 어르신을 돕기 위한 효도 체험과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을 익히는 마음열기, 텃밭체험, 명상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세등 스님은 "이번 산사 '효 캠프'는 부처님의 가르침뿐 아니라 참된 효를 체험해 봄으로써 청소년들의 정서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참가비 5만원.(055)342-4441 하성미 기자

영광도서, 디지털사진 특강

부산 영광도서(대표 김윤환)는 7월 21일부터 8월 25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2시간 동안 영광도서 4층 문화사랑방에서 디지털사진 무료특강을 개최한다.

엄영달 강사(영광문화원 사진아카데미)의 진행으로 사진 일반이론, 노출 및 렌즈, 구도, 야경사진 촬영법과 풍경사진, 인물사진 촬영법 등을 지도할 계획이다. 접수는 영광도서 1층 예매처나 홈페이지(www.ykbook.com)에서 할 수 있다.(051)816-9500 하성미 기자

부산생명나눔, 환우 돕기 행사

(사)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본부장 원범)는 병원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자와 가족들에게 치료비를 지원하고 후원자를 찾기 위해 7월 20일 오전 10시 부산 여여선원 보송찻집에서 일일찻집을 연다.

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는 "힘든 병마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환자들을 위해 이런 자리를 마련했다"며 많은 지원과 관심을 당부했다.

한편, 2006년 7월에 창립한 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는 7월 20일 오후 2시 창립 1주년 기념법회를 부산 여여선원 7층 법당에서 봉행한다.

하성미 기자

해외입양인 전통문화체험 행사

백련과 구절초로 유명한 공주 영평사가 8월 6~7일 해외입양인 40여명을 대상으로 한국전통문화체험 행사를 실시한다.

이번 행사는 문화관광부에서 개최하는 해외입양인대회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공주대학교 한민족교육문화연구원이 초청해 이뤄졌다.

해외입양인들은 사물놀이와 불교무술 체험, 발우공양과 예불, 참선, 다도 등을 통해 어머니 나라의 정취를 맛볼 예정이다.(041)857-1854

남동우 기자

허응 보우·환성 지안 스님 석상 제막

제주 평화통일불사리탑에 건립

"조선시대 쓰러져 가던 불교를 일으켜 세우려고 목숨까지 바친 허응 보우 스님과 환성 지안 스님을 아십니까?"

허응 보우(1509~1565 · 사진 왼쪽) 스님은 조선의 불교를 중흥시키고자 폐지되었던 선교 양종과 승과 제도를 부활시켰으며, 환성 지안(1664~1729 · 사진 오른쪽) 스님은 화엄의 대강백으로서 화엄대법회를 개설하여 부처님 가르침을 대중화했다. 하지만 두 스님은 유생들의 박해로 제주도 조천까지 유배되어 돌과 몽둥이에 맞아 통한의 죽음을 맞이했고, 나라를 어지럽힌 요승(妖僧)이라는 낙인이 찍힌 채 남아 있다.

조계종 직할교구 평화통일불사리탑에 호국불교와 세계평화를 기원하는 허응 보우 · 환성지안 스님 석상이 제막된다.

제주 평화통일불사리탑과 서울 법화정사 회주인 도림 스님의 원력으로 8월 16일 오전 10시 5000여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건립되는 두 스님의 석상은 3m 높이로 조성됐다.



도림 스님은 1991년 보우 스님과 지안 스님이 순교한 바닷가가 내려다보이는 곳에 부지 400평을 마련해 조천동산을 조성한 뒤 두 스님의 순교비를 건립했다.

또 1992년 평화통일불사리탑 부설 보우사상연구소를 설립해 2005년 일본 천리대학에 보관된 보우대사 시문집인 <허응당집>을 번역하기도 했다.

도림 스님은 "애국정신의 고취와 세계의 중심이 되는 나라의 앞날을 발원하며 이 행사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평화통일불사리탑은 호국을 기원하는 법화경 독송기도, 법화경 사경봉안식도 거행한다.

"당신은 나의 부처님"

부부를 위한 산사체험 행사

불교상담개발원(원장 정덕)이 8월 10~12일 충남 금산 미륵사에서 제8회 워크숍 '당신의 나의 부처님'을 개최한다. 워크숍은 부부가 함께 산사체험과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해 봄으로써 가정의 소중함을 재발견할 수 있는 기회다.

부부가 MBTI, 미술치료, 영화치료, 커플게임 등 서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체험하도록 꾸려진다. 강사로는 봉은사 교육국장 선업 스님과 김준형(영화치료전문가) 양진명(상담심리전문가) 정순영(미술치료사) 황수경(법원 이혼상담위원)씨 등 상담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선착순 30쌍 접수, 참가비 9만원. (02)737-8803

여수령 기자

"'도난 탱화 소유권 반환 訴' 패소 유감"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 논평 발표… "시대착오적 판결" 지적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는 순천 선암사가 도난당한 탱화를 돌려달라며 서울서부지법에 제기한 동산인도 청구소송에 패소한 것과 관련, 7월 6일 논평을 발표해 강한 유감을 표현했다.

문화부는 논평에서 "이번 판결은 도난당한 불교문화재는 경위야 어찌됐건 손에 넣는 사람이 주인이며 공소시효만 지나면 장물을 사고파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는 도굴꾼들의 논리를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며 "이번 판결로 문화재 도난품(장물)의 매매가 보다 용이해지고 활발해 질 수 있는 단서를 제공했다는 점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문화부는 "도난문화재를 오래 점유하고 있었다 하여 그 시효취득을 인정하는 선암사 도난문화재에 대한 판결은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는 시대착오적인 판결"이라고 지적한 뒤, "최근 개정된 문화재보호법(7월말 시행예정)은 '문화재의 매매 등 거래행위에 관하여는 「민법」 제249조의 선의취득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어 있는 만큼, 법의 실효성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선암사는 도난문화재가 제자리로 돌아오록 하는 반환운동과 도난문화재 공소시효 배제운동을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백양사 박물관은 성명을 통해 "이 판결은 귀중한 문화재의 도난과 매매를 법으로 정당화시켜준 사상 초유의 일로 기록될 것"이라며 유감을 나타냈다. 여수령 기자

"한국 전통 불교문화 체험하러 왔어요"

호주 정법사 중·고교생 방한

호주 시드니 정법사 중고등학생부 학생들과 학부모 등 40여명이 7월 3일~13일 한국을 방문했다.

방문단은 양산 통도사, 순천 송광사, 경주 불국사, 수원포교당 등에서 한국불교를 체험했으며, 낙안읍성, 용인민속촌,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등에서 한국의 발전상을 둘러봤다. 이번 방문은 해외 교민 자녀들에게 한국의 정신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정법사 주지 법등스님의 원력으로 이뤄졌다.

정법사는 기후 스님이 오랫동안 가꿔온 호주 내 대표적인 한국사찰로 호주에 있는 한국사찰과 연계 · 협력을 도모하고 있다.

정법사 주지 법등 스님은 "방학기간 한국사찰과 청소년 교환 프로그램을 진행해 해외사찰과 한국사찰과의 연계 및 협조관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동우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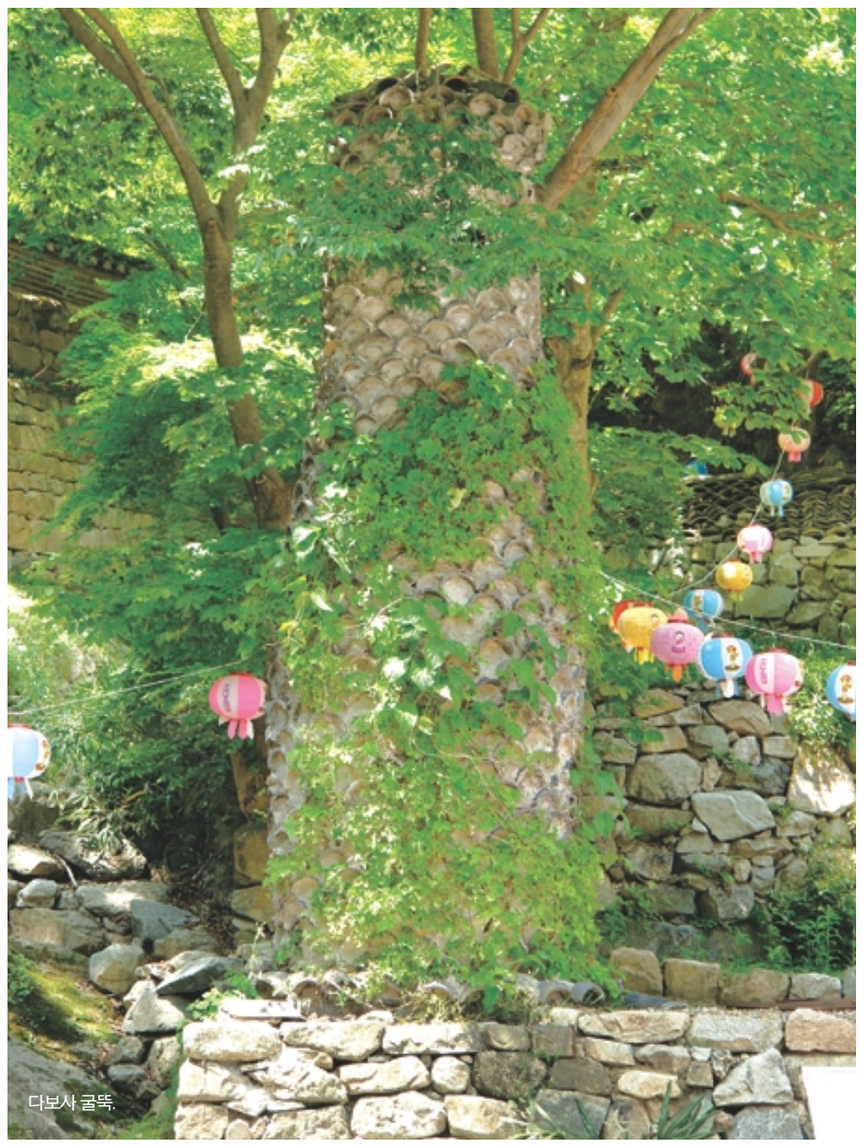
시원한 제주앞바다로 떠나요
참선단식 7일집중 삼매체험수련회
참선과 단식으로 집착 관념의 벽을 헐고 무한자재의 절대근원의 자아 회복 –
무념으로 화두의심에 바로 들어가는 간화선 화두의심 체험
◆ 바로 끊고 바로 먹는 가벼운 금강체력 금강단식 ◆
▸금강 단식의 효과
1. 바로 끊고 바로 먹는 금강단식. 단식 부담은 최소 위험부담은 없음
2. 단식 전 예비단식, 단식 후 보식이 전혀 필요 없음.
3. 피부미용 아토피 체중감량(1일 최고 3Kg)고혈압 당뇨 위장 대소장 심장 간장 폐 신장 치료 예방 체질개선 절연(節煙)등 다양한 효과
4. 수료 후 직장인이 근무 중에 단식 연장 가능하게 함.
◆ 운명 천성을 바꾸는 자아성찰의 참선 ◆
▸참선 단식의 특징
1. 화두의심만 할 줄 알면 다른 세상이 열린다 – 참선으로 운명·천성이 뒤바뀐다.
2. 단식으로 부담 없이 가볍게 화두의심에 들어간다.
3. 신체 벙신부담을 줄인 참선단식병행 – 신체와 정신은 나누어지지않기에 가능하다.
4. 일과 – 참선법문 좌선 행선 요가 운동 묵언 취침
1. 홈페이지 : www.wseon.com 원명선원.kr
2. 대 상 : 고교 이상 일반인 60세한
3. 수련일정 (6박 7일)
◆1차 : 07. 7. 26 ~ 8. 1
◆2차 : 07. 8. 6 ~ 8. 12
4. 회 비 : 후원금으로 접수
5. 접 수 : '07년 7월 25일까지 선착순 50명. 제주시 화북1동 원명선원(교대 옆) ☎ 064)755-3322
6. 입금계좌 : 농협 953-17-000706 (예금주:원명선원)
7. 차수를 정하고 항공편을 속히 예약해야 함(육지부해당)
8. 홈페이지에서 접수
본분도량 한라산 원명선원 圓明禪院
물만 마시고 정신병을 치료 할 수 있다!

월명사 입시기도 안내
수능 고득점 100일 합격기도
▣ 입재 : 2007년 8월 8일 ▣ 회향 : 2007년 11월 15일
▲특 보 1. 수능 고득점 예상문제 제공(단 언어영역, 외국어영역)
2. 수험생 사주 풀이해서 원하는 대학합격
3. 수능 50점 점수 따기 작전
▲ 기도시간 • 문 과 : 월 · 수 · 금요일 오전 5 : 00 ~ 6 : 30 / 오후 2 : 00 ~ 3 : 30
• 예체능실업계 : 화 · 목요일 오전 5 : 00 ~ 6 : 30
• 이 과 : 토 · 일요일 오전 5 : 00 ~ 7 : 00
월 · 수 · 금요일 오후 3 : 30 ~ 5 : 00
수능 고득점 합격 위한 매월 음력 8일 팔공산 갓바위 약사여래 부처님 합격정진기도
• 1차 성지순례 : 7월 21일(음 6. 8) • 2차 성지순례 : 8월 20일(음 7. 8)
• 3차 성지순례 : 9월 18일(음 8. 8) • 4차 성지순례 : 10월 18일(음 9. 8)
⊙ 출발시간 : 매월 오전 7시 ⊙ 장 소 : 월명사 앞
※대상 : 고1, 고2, 고3, 재수생 ※ 합격위한 월명 수능 법요집 제공
관음기도 도량 월 명 사
서울 종로구 견지동 110-32번지 우정에쉐르 11층
(1호선 종각역 2번출구 조계사방향 70M 시내버스 정류장)
☎ 02)732-0835

천진도인 일화 마을의 자랑

불교문화클러스트 사하촌을 가다

20 금성산 다보사


다보사 굴뚝.


경현리.

"짐동, 지임동이락했다 그래. 어른들 말씀이 그래. 짐(김)이 나대서 지임동이라 그래."

"그 전에는 팔십 가구였는디, 지금은 더 되야. 식당은 많애라."

"농사가 없어. 빈촌이여, 빈촌. 물도 없고, 농토도 없고, 그래."

"시내 나가서 품 팔아서 묵고 살제. 벌만이로(벌처럼) 사냥해서 들오제."

행정상 명칭은 나주시 경현동. 다보사 아랫마을 누정에 소주 두 병 아이스크림 몇 개를 풀어 놓았더니, 환담 중이던 사람들의 입에서 저마다 마을에 대한 이야기가 쏟아져 나온다. 스님들의 속가는 없었냐고 하니까, '이 마을에는 없었다' 고 김금제(80 · 경현동)씨가 말한다.

"우와 시님, 우악 시님. 돌아가신 스님이 진짜 시님이었제. 솔찬히 되야. 한 30년도 넘겄오."

천진도인 우화(雨華) 스님(1903-1976)에 대한 얘기다.

"그 냥반 돌아가실 때 사리가 질 많이 나왔닥 해. 문 악헤서 했어."

"시님이 참 좋으셔. 가면 마음을 편하게 해 줘요. 이야기도 해주고, 술 생전 그란 것은 안 자싱께. 술값 주고 그란 것은 없어. 처세를 잘 했어요."

"택시 타고 다닌 법이 없었어. 차도 없고, 시내 장봐도 지고 올라가고 그랬어."

승육숙(64)씨와 김연자(64)씨가 주거니 받거니, 스님과 관련된 일화를 풀어 놓는다.

"키도 쪼그만 해 가지고, 짝달막하니, 얼굴을 봐봐. 꼭 뚜께비 상이어 갖고, 상호가 존 사람이어 갖고, 그래 갖고, 다보사를 지켰제. 쩌그 나무라도 하고 그라면 스님이 고함을 치면, 산이 쩌렁쩌렁 울리고 그랬제."

이점순(86)씨의 말이다.

스님이나 대사라는 호칭보다는 도인이라는 칭호로 더 많이 일컬어지는 우화 스님. 스님에 대한 일화는 알려진 게 많다. 스님이 예산 덕숭산 수덕사의 산내 암자인 정혜사에서 만공 선사를 모시고 수행하고 있을 때, 여름 결제에 앞서 모든 스님들이 탁발을 나갔는데, 우화 스님만 절 마당을 배회하고 있었다. 그러자 만공 선사가 "그대는 왜 탁발을 나가지 않는가?"라고 꾸짖자, "스님. 생사대사(生死大事)가 화급한 사람은 어찌해야 합니까?"라고 해서 천하의 만공도 "그렇게까지 급한 사람이라면 탁발할 여유도 없겠지"라고 했다는 이야기에서부터, 살아있는 것이라면 모기도 죽여서는 안 된다하여, 우화 스님의 모시옷은 사람의 피를 포식해 배가 터져 죽은 모기들의 피로 시뻘겋게 물들어 있었다는 이야기, 다보사 주지 시절 도둑에게 해우소 불사를 위해 모아둔 돈을 빌려주어 도둑을 감복시킨 이야기 등. 천진도인다운 그의 일화는 굼뜬 후인에게 죽비소리로 들린다.

"절 보다 교회 더 많이 다녀" 70가구 중 농사짓는 집 세집 "열무, 경현리 거라면 알아줘"

"절에 다닌 사람보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많애."

김금제씨의 말끝에 김연자씨가 손가락을 꼽으며, "길동 어메는 인자 다녔고…" 하는데, 난데없는 고함소리가 들린다. 김금제씨다.

"모른 소리 하지 마씨오. 길동 어메는 지그 한아씨 때게부터 댕긴 사람이여. 지그 시아부지, 어메가 끌팅이여, 끌팅."

무안해진 김연자씨가 입을 다문다. 마을 사람들 중 절에 다니는 사람은 드물다.

"지금이라도 살림 잘 하는 시님만 오면 할 수 있제."

김금제씨의 말이다. 마을 사람들은 현재의 절에 대해 안타까워한다. 그래서인지 절에 대한 얘기는 대부분 우화 스님에 관계되어 있다.

경현동엔 닭요리 잘 한다는 집들이 몰려있다. 간간이 드나드는 차량들은 대개 닭요리 집으로 향한다. 처음 닭요리 집이 생긴 건 25년 전쯤이다. 70가구가 넘는 마을이지만, 농사짓는 집은 세 집뿐이라고 한다. 지금도 외지에서 들어오는 집들이 있는 반면, 또 그만큼 마을에서 나가는 집들이 많다고 한다.

"이 동네가 열무가 유명해라. 그래서 조합에서 해가지고 열무 살림라고 그란닥 합디다. 경현리 것이라 하면 알어 줘라. 토질이 틀려서 근닥합디다. 저 건너는 논에다 많이 하고, 여그는 자갈밭이라 좋닥합디다."

김연자씨의 말에 척박한 땅에서 살아왔을 이들의 고단한 삶이 보이는 것 같았다. 마을을 지나 절로 향한다. 오래전 우화 도인이 바랑을 매고 걸어 올랐을 길. 절 밖에서는 공양을 하지 않았기에 그가 절에 들어올 때는 허기져 있을 때가 많았다.

도력 높은 스님의 생애를 되새기며, 길을 오르자 어느새 숲 깊은 다보사다.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마을 사람들이 여관처럼 지어 놓았다고 말하였던 신축건물이다. 계곡을 꽉 채우고 있는 건물은 숲과 어울리지 않는다. 그래도 용도는 다양할 터이니 그 쓰임은 아름다울 것이다.

금강문을 지나니, 범종루가 보이고, 대웅전이 보인다. 범종루에는 달랑 범종 하나 뿐이다. 건륭 32(1767)년 제작되었다는 범종. 조선 후기에 제작된 범종이지만, 고래를 무서워 한다는 두 마리의 포뢰를 새긴 조각 수법은 빼어나다. 기와 사이에 흙을 채워 넣는 방식으로 쌓여진 굴뚝은 이채롭다. 대웅전


다보사 경내 전경.

처마에 닿는 높이인데, 여러 덩굴식물들의 보금자리가 되어 있다.

언제 보아도 다보사 대웅전 꽃살문은 옛적 장인의 섬세함이 여전히 남아 있다. 국화, 매화, 모란을 새겼다고 하는데, 연꽃 문양으로 보이는 무늬도 있다. 천천히 영산각 갔다 오는 길. 다람쥐 한 마리가 쪼르르 나오더니 기와로 쌓아둔 담 위에 서서 물끄러미 나를 본다. 아니 한가히 마실 나온 다람쥐 한 분이 육진에 묻힌 내 눈을 바라본다. 두려움도 성냄도 없는 다람쥐의 눈을 향해 합장을 하고 가만히 돌아선다.

나주=이대흠(시인 · 본지 객원기자)

불모 **박정자** 선생

국내 최초 여성 단청장 기부도 열심 · 10월 전시 계획



중요무형문화재 제48호 단청장 보유자 후조 만하(卍霞) 박정자(69 · 나주시 산정동) 선생은 여성으로는 국내 최초의 단청장이다. 서예와 동양화를 하였던 그가 불화에 빠져든 것은 1971년 만봉(卍奉) 스님의 불화를 보고 나서였다. 각고의 노력 끝에 1986년 전승공예대전에서 '금니부모은중경'이라는 작품으로 대통령상을 수상하였다.

"불화는 그리고 싶다고 그려지는 것이 아니고, 형언할 수 없는 어떤 힘에 끌려 그려지는 것이지요."

'그리고 싶다'와 '그려진다'의 차이는 크다. 불화는 그림 자체가 신앙의 대상이기 때문에 손재주나 요령으로 그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그려야 한다. 또한 워낙 세필로 그리기 때문에 보통 탱화 하나를 그리는 데는 4개월 이상이 소요된다. 그렇게 탄생한 불화는 단순한 그림이 아니라, 경배의 대상이 된다. 그러므로 불화 그리는 이를 불모라 칭한다.

작업실을 가득 채운 불화들 곁에 생소한 작품 하나가 눈에 띈다. 널이라고 한다.

"보통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거부하고 하는데, 나만은 아름답게 살다 아름답게 맞이하고 싶은 거지요. 여유 있게 아름답게 죽음까지도 예견한 부처님의 그 마음이 의미 있게 여겨져서 저도 관이라도 하나 마련해서 그렇게 하고 싶더라고요."

어렵게 그린 작품이지만,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하는 것을 아끼지 않았던 그다. 그가 '생사일여관(生死一如觀)'을 말한다. 불심이 깊어서인지, 하나도 허투루 들리지 않는다. 그가 오는 10월에 전시회를 한다고 한다. 생사를 초탈한 그의 작품이 기대된다.



놀라운 NEPAL 히말라야 석청(꿀) WILD HONEY 효과

석청은 네팔 히말라야산 2500-4000M의 높은산에서 서식하는 '아피스 라보리오사(Apis Laboriosa)벌이 만들어 내는 천연 꿀로서 옛날부터 신비의 물질로 알려져 왔다.

이벌은 덩치가 크고 사나우며 높은 바위에 벌집을 짓고, 벌집의 크기는 자동차 크기만한 것도 있다. 석청을 채취하는 사람을 '바랑케'라 부르며, 밧줄로 사다리를 만들어 높은 바위속으로 올라가 석청을 대나무장대로 채취하며, 밑에서는 연기를 피우며 거물로 떨어지는 석청을 받는다.

석청은 난치병 치료에 특효하며 히말라야 한의사들은 만병통치약이라 부른다. 자연이 인간에게 준 최고의 선물이라고 하며 네팔왕실에서는 국가를 방문하는 귀빈들에게 답례품으로 사용하고 있다. 석청이 알려져 우리나라 KBS에서 2번이나 현지에서 석청 채취장면을 촬영하여 방영한 바 있다. 고질병, 난치병 치료에 효과와 체험 사례들이 알려져, 여성잡지「Queen」에 당뇨치료 효과가 특집으로 소개되어 국내에서 소비량이 증가하고 있다.

- 굳어있는 세포를 생성시키고, 15일만 복용해도 정력이 왕성해져 '비아그라' 이상의 효과를 나타낸다.
- 복용후 2~3주가 지나면 오장육부가 좋아져 피부가 윤택해진다.
- 암, 간염, 위궤양, 위염, 중풍, 당뇨, 고혈압, 야맹증, 아토피성피부, 관절염, 기관지천식, 신경통, 중이염, 만성두통, 변비, 성기능 장애등 고질병 치료에 탁월한 효과를 나타낸다. (혈액순환장애)
- 체질을 개선하고, 노화를 방지한다.

※아픈 부위가 화끈거리고, 눈에 보이는 것이 아롱아롱하고, 땀이 나고, 설사나 대소변이 대량으로 배설되고, 의식이 몽롱해지고, 눈물이 나기도하는 증세들은 사람마다 다소 차이는 있지만 체질이 변하고 있고 치유되고 있다는 증거로 생각하면 된다.

KOREA.NEPAL EXCHANGE CULTURE ASSOCIATION
한국.네팔 문화교류협회
서울사무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8동 159-48
TEL : 02)2692-5363
울산사무소 울산광역시 울주군 상북면 소호리 690-1
TEL : 052)264-0126, 0577
M.P : 010-5559-5570 / 010-7159-4759
E-mail : JUNGRAN1227@hanmail.net

正品供給
•가 격 : 600g(15일분) 30만원 / 1kg(1달분) 50만원
※현재 백화점 쇼핑몰에서 1kg(1달분)을 100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문 의 : 010-6232-6295 / 010-5559-5570
054-751-9755
•온라인 : 신협 10115-13-032450 최정란 / 경남은행 540-21-0500183 최정란
(입금후 2일이내 배송)

일주문



2007 노인복지 세미나

사회복지법인 인덕원 이사장 성운 스님은 7월 1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서울시노인종합복지관협회와 함께 '2007 노인복지 세미나'를 개최했다.



불레협 어린이 여름 캠프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장 송묵 스님은 7월 29~31일 강원도 홍천 대명비발디파크에서 여름캠프를 개최한다. (02) 738-7860



어린이 여름문화체험학교

전주 참좋은우리절 주지 회일 스님은 7월 21~24일까지 3박4일간 '어린이 불심이 평생 불심'을 주제로 어린이 여름문화체험학교를 연다. (063) 236-6633



2007 여름성지대회 개최

전국염불만일회 김재일 회장은 7월 29~31일 백담사 만해마을과 건봉사에서 2007 여름성지대회를 개최한다.(02)732-1215



푸루나 수련회·불교포럼 개최

전국교육경영직불자연합회 푸루나 진정순 회장은 7월 14~15일 여주 신륵사에서 수련회 및 '교육현장의 인간성 회복을 위한 불교 포럼'을 개최했다.

대한불교진흥원, 東大에 장학금 5억원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홍승희)은 7월 10일 서울 마포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실에서 동국대 오영교 총장에게 5억원의 '대원(大圓) 장학금 약정서 체결 및 증서'를 전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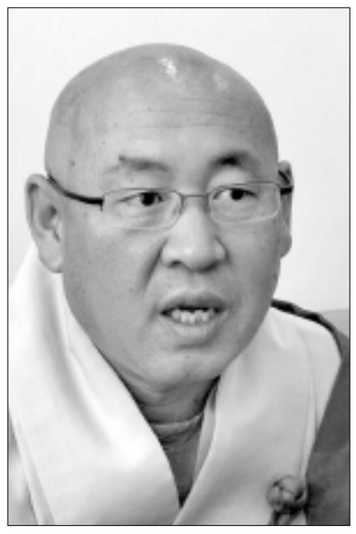
이 자리에서 홍승희 이사장(사진 왼쪽)은 "동국대가 미래 한국불교계를 이끌어갈 최고의 불교사관학교로 발돋움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건학 101주년을 맞아 108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마련된 엘리트 불자 양성 계획을 원만히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장학금은 대한불교진흥원의 설립자인 대원 장경호(1889~1975) 거사의 호를 따서 지난달 11일 제 123차 이사회 결정에 따라 제정됐다. 우수한 불자 인재양성을 위해 쓰일 이 장학금은 올해부터 5년간 매년 1억 원씩 동국대 불교대학 학생들에게 지원된다.

대한불교진흥원은 지난해 6월에도 동국대 개교 100주년을 맞아 이 학교에 발전기금 1억 원을 후원했다. **김주일 기자**

바로 잡습니다

636호 일주문에서 기사 내용과 제목이 잘 못 표기되었습니다. 수경 스님의 '평창올림픽 유치 확인 법회'는 '호지 여사 초청 특별강연회'로, 혜자 스님의 '불교음식문화 워크숍 개최'는 '환경문화대상 종교부문 수상'으로 고칩니다.

"때와 장소 가리지 않는 복지 실현"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정념 스님

조계종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 지관 스님은 7월 9일 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에 정념 스님(낙산사 주지 · 사진)을 임명했다.

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 임명식에서 지관 스님은 "조계종 사회부장을 역임했고 그간 지역에서 낙산사복지재단을 이끄는 등 복지 분야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만큼 훌륭히 역할을 해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정념 스님은 "조계종 사회국장으로 재직할 당시 영등포 보현의집 원장을 맡아 운영 정상화를 위해 힘썼던 경험과 낙산사복지재단 이사장으로서의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복지재단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낙산사복지재단은 현재 무료급식소와 노인전문요양원, 노인복지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어 정념 스님은 "21세기에는 관념의 복지가 아닌 시간과 장소를 구분하지 않고 행해지는 복지가 요구된다"며 "복지는 복지관에서만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 자리에서 행해지는 것이 살아 있는 복지"라고 강조했다. 복지재단 상임이사의 임기는 3년이다.

정념 스님은 자운 스님을 계사로 1982년 사미계를, 87년 비구계를 수지했으며, 조계종 총무원 사회국장과 사회부장, 영등포 보현의 집 원장 등을 역임했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맞춤 프로그램으로 앞서 나갈 것"

승가원 성북장애인복지관장 현관 스님



7월 11일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한 승가원성북장애인복지관을 이끌게 된 현관 스님(사진). 스님은 사단법인 우리는선우가 경기도 양주에서 운영하는 공동생활가정(그룹홈) 보현연꽃동산 시설장으로 4년간 일해 온 복지전문가다. 하지만 스님은 "장애인 복지는 처음이라 많은 공부와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낀다"고 말한다. 서울 성북지역에 장애인 복지시설이 없었던 만큼, 장애인들이 꼭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언제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만들어 가겠다는 각오에서다.

승가원성북장애인복지관은 사회복지법인 승가원이 2005년 성북구청으로부터 수탁 받아 1년 6개월여의 공사 끝에 완공한 것이다.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에 물리치료실과 작업훈련실, 조기교육실, 수(水)치료실 등을 갖추고 있으며, 하루 최대 이용 인원은 500여 명이다.

"승가원은 투명성, 신뢰성, 전문성이라는 큰 원칙과 사회복지를 통해 부처님의 자비사상을 심는다는 기본 정신으로 운영됩니다. 성북장애인복지관 역시 우수한 사회복지를 제공함으로써 부처님의 자비가 성북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갈 것입니다."

스님은 다른 지역의 장애인 복지관 운영 노하우를 배우고 응용하는 한편, 다른 지역의 장애우들도 성북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복지'에는 지역이나 너와 나라는 분별이 필요치 않기 때문이다.

현재 성북장애인복지관에는 20여 명의 직원이 다양한 맞춤 프로그램으로 지역 장애우들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다. 7월 23일부터 홍보와 접수를 거쳐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하고, 1개월 정도의 운영 후 8월 말 경 성북구청 관계자, 지역 장애우들과 함께 개관식을 봉행할 예정이다.

현관 스님은 "성북장애인복지관은 앞으로 승가원이 보다 전문적인 장애인복지를 실천하고, 지역 내 사회복지기관으로서의 자리매김하는데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여수령 기자**

백련사 회주 담월 스님 입적



제천 백련사 회주 담월 스님이 7월 6일 오후 6시경 백련사에서 입적했다. 세수 83세 법랍 66세. 스님은 1924년 충남 청양에서 태어나 41년 묘향산 보현사에서 월봉 스님을 은사로 득도했다. 43년 보현사 강원 대교과를, 45년 서울 대원사강원 수의과를 졸업했다. 50년 해인사 범어사 강원 강사와 속초 신흥사, 태백 흥복사 등 13개 사찰 주지를 거쳐 78년부터 제천 백련사에 주석해왔다. **김원우 기자**

통도사, 경봉 스님 열반 25주기 추모법회



통도사 극락호국선원(선원장 명정)은 경봉 스님의 열반 25주기 추모 법회를 7월 11일 통도사 극락호국선원 무량수전에서 봉행했다. 이날 경봉장학회(이사장 원명)는 고려대 박사과정에 재학중인 정암 스님을 비롯해 석사 8명, 학사 18명, 통도사 강원 8명 등 총 35명에게 2천8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심원사, 모범 중·고교생에 장학금 전달



철원 심원사 주지 도후 스님은 7월 8일 법당에서 철원 및 관인지역 중 · 고등학교 모범학생 24명에게 각각 장학금 30만원을 전달했다. 심원사 주지 도후 스님은 "지역 내 청소년포교 활성화를 위해 모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장학금 지급을 매년 정례화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불교조계종 인천서 창종선포법회



한국불교조계종 창종선포법회가 7월 7일 인천시 오류동 보현선원에서 사부대중 3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창종법회에서 초대 총무원장 보현 스님(보현선원장, 재단법인 한국불교중흥교원 이사장)은 "난관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화합을 통해 한국불교에 희망을 주는 종단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덕사 개산 8주년 기념 동식물천도재



강릉 현덕사(주지 현종)는 7월 8일 송광사 주지 영조 스님을 비롯 사부대중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산 8주년 기념 제 6회 동식물 천도재를 봉행했다. 이날 행사는 천도재, 송광사 주지 영조 스님 법문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동식물 천도재 후에는 지역 어르신 초청 경로잔치가 열렸다.

혜공스님의 영산의식 시리즈 비디오, DVD출시

한국불교전통의식대학 학장이신 혜공 스님께서 불교의식을 비디오와 컴퓨터 등에서 볼 수 있는 DVD를 따라하기 쉽게 학습용으로 촬영, 아래와 같이 제작출시 하였기에 필요한 제품이 있으면 주문바랍니다.

▷ 아 래 ◁

1	대령/관욕	17	지장불공	33	아침저녁종성
2	상주권공 지장불교의식	18	삼대화상중명불공	34	향수해례예불
3	상용영반	19	종사관욕	35	혼자서 하는 민관욕(간단한 관욕)
4	회심곡(화청)1	20	종사영반	36	생일불공
5	회심곡(화청)2	21	가사불사의식	37	상주권공48제의식 1
6	구병시식	22	신중작법39위	38	상주권공48제의식 2
7	관음시식	23	간단한 신중작업	39	상주권공48제의식 3
8	점안의식	24	전통조석예불	40	상주권공48제의식 4
9	방생의식	25	천수경/장엄염불	41	제사불공
10	사물 다루는 법	26	상주권공/각배/영산염불	42	삼신이운
11	안택	27	사시상단불공	43	혼자서 하는 간단한 49제의식 1
12	시다림	28	작법무(복청게천수)	44	혼자서 하는 간단한 49제의식 2
13	산신불공	29	작법무(시방찬소리도량게)	45	화엄시식
14	미타불공	30	작법무(욕건만다라선송다게작법)	46	약사여래불공
15	신중불공	31	작법무(향수나열사다라니)	47	교재2권 100,000원
16	관음불공	32	삼보통청		

◆ 비디오 각 25,000원 / DVD 각 30,000원 ◆ 계좌 : 농협 641010-56-000296 (노연숙) ◆ **제품 구입처: 종무소 ☎062)362-8604 / 혜공스님 011-624-8604**

한국불교전통의식대학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학장 혜공 스님**

2007년 하계범패교육

(정규생 및 통신생 추가모집)

2007년 8월 1일부터 ~ 8월 5일까지 (4박 5일)

8월 1일 10시부터	사물(북,요령,목탁,태징)다루는 법 불공의식, 신중작법(소창불)
8월 2일 9시 30분	칠성불공, 관음시식, 상용영반
8월 3일 9시 30분	백중불공, 민관욕, 대령관욕
8월 4일 9시 30분	상주권공, 기초의식, 범패 조석종성
8월 5일 9시 30분	점안의식, 회심곡(화청)의식 절, 사대행사 강의, 기타 등등

◈ 준 비 물 : 필기도구, 녹음기, 회비금, 숙식포함
◈ 교 육 비 : 숙식포함 삼십만원
◈ 교 수 : 중요무형문화재 혜공스님 즉강
◈ 문의전화 : 011-624-8604
◈ 장 소 : 광주광역시 시교육청앞 한국불교의식대학
◈ 특 혜 : 교육을 받고 입학하신 분은 학비에서 30%제외

‘호지 여사’ 서울 화계사 방문 현장



서울 화계사를 방문한 생태환경운동가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 여사는 난생 처음 발우공양을 체험했다. 호지 여사는 발우공양을 ‘가장 완벽한 식사법’ 이라고 평가했다.

“자연 · 지역 함께 하는 공동체 복원해야”

7월 11일 화계사서 ‘현대사회에서의 불교’ 주제로 강연
발우공양 체험 후 “가장 완벽한 친환경적 식사법” 찬사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Helena Norberg Hodge). 그의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라면 그가 쓴 <오래된 미래-라다크에서 배우다>를 떠올려 보자. 전통사회인 라다크가 서구문명에 의해 어떻게 파괴되는지를 선명하게 증언한 이 책은 반세계화, 반개발, 지역 자립경제 복원이라는 화두를 전 세계에 던졌다.

스웨덴의 언어학자이자 세계적인 생태환경운동가인 호지(61) 여사가 7월 11일 서울 화계사를 방문했다. 국립중앙도서관과 MBC 세계여성포럼의 초청으로 방한한 호지 여사는 11일 화계사 대적광전에서 ‘현대사회에서의 불교’를 주제로 강의하고, 발우공양을 체험했다.

호지 여사는 1980년부터 ‘라다크 프로젝트’라는 국제조직을 만들어 라다크의 공동체 의식을 전파하는 데 힘써왔으며, 1986년 대안 노벨상이라 불리는 스웨덴 ‘바른생활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91년부터 ‘에콜로지 및 문화를 위한 국제협회(International Society for Ecology and Culture)’를 운영하며 생태와 문화의 다양성을 보호하는 운동을 이끌고 있다.

호지 여사는 이날 강연에서 “너와 내가 둘이 아니라는 불교의 가르침대로, 자연과 지역이 함께 생존할 수 있는 공동체를 복원해야 한다”며 “세계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희생되고 있는 우리 사회의 현실을 제대로 자각하고 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할 때”라고 강조했다. <강연 내용 박스 기사 참조>



발우를 선물하는 화계사 주지 수경 스님.



자신의 책 <오래된 미래>에 사인을 하는 호지 여사.

1시간 동안의 강의를 마친 후 호지 여사는 보화루로 자리를 옮겨 화계사 주지 수경 스님과 차담을 나누었다. 수경 스님은 호지 여사에게 “부처님은 우주 만물이 모두 한 생명이고 자연과 내가 둘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쳤다”며 “이러한 사실을 알아차리지 않으면 대량생산, 대량소비라는 악순환으로 세계는 극한 상황으로 내몰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호지 여사 또한 “불교는 자연과 인간을 위한 최고의 가르침”이라고 응수했다. 수경 스님은 호지 여사에게 염주를 선물하며 “이 염주가 세계인들의 인식을 바꾸고, 세계를 구하는 큰 씨앗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차담에 이어 호지 여사는 난생 처음 발우공양을 체험했다. 화계사 문화원장 묘봉 스님의 지도로 조심스레 발우를 편 호지 여사는 발우에 담긴 뜻과 음식을 먹을 만큼만 덜고, 오관게로 음식에 대한 감사를 표하는 것에 대한 설명을 진지하게 경청했다. 식사 후 그릇에 남은 음식을 깨끗이 닦아 그 물을 마시고, 그릇을 씻은 천수물 역시 맑은 물만 버리고 찌꺼기는 마시는 발우공양 의식도 직접 체험했다.

호지 여사는 “발우공양은 세계에게 가장 친환경적이고 깨끗하고 자원절약적인 식사법이며, 또한 발우를 들고 음식을 먹는 행위를 통해 자신에 대한 ‘알아차림’이 가능한 ‘수행식사법’”이라고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호지 여사는 국내에서 발우공양의 정신을 이어 받은 ‘빈그릇 운동’에 동참하는 사람이 100만명을 넘어섰다는 설명을 듣고 매우 놀라며, “자연의 낭비를 막는 발우공양이 전세계적으로 실천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수경 스님은 “음식물쓰레기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현대 사회에서, 발우공양 정신을 통해 그 대안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는 뜻에서 발우공양 체험을 준비하게 됐다”고 밝혔다.

글=여수령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강연 요약〉

상호의존과 자연의 가르침 배우자

부처님이 살아 계실 때나 영적 지도자가 생존해 있을 때의 사회는 지금과 많이 달랐다. 당시 구성원들은 지역사회에서 살았고, 자연과 공동체와 매우 긴밀한 관계 속에서 살았다.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와 세대 간, 이웃 간, 가족 간의 관계가 지금보다 훨씬 더 상호의존적이었다. 같은 공동체에서 태어난 어린이는 공동체 사람들의 많은 사랑을 받으며 자라났다. 그들은 자연과 타인, 동물과 긴밀한 유대관계를 맺으며 살아갔다. 이때는 자연과 공동체의 유대관계에 대한 중요성을 재삼 설명할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공동체 속에서 자연과 관계를 맺는다는 불교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는 부처님이 설법한 가르침을 되새기고 상호의존과 자연의 가르침의 중요성을 알아야 한다.

내가 1970년 처음 라다크에 갔을 때 그들은 전통적인 방법으로 공동체와 긴밀한 관계를 가지며 살고 있었다. 하지만 현대 세계에서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사실도 텔레비전이나 신문을 통해 마치 알고 있는 것처럼 말한다.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안다고 가정하는 것은 현실을 왜곡되게 만든다. 부처님은 우리가 경험하지 않은 것은 믿지 말라고 가르쳤다.

나는 진보와 경제발전, 세계화가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한다. 세계화는 세계적인 기업을 만들어 내는 것을 의미한다. 세계화는 또한 외국 자본을 다른 곳에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테면 미국이 한국에, 한국이 아프리카에 투자하는 것처럼 말이다.

이런 투자는 무역을 증가하게 하는데, 필요하지도 않은 것을 여기에서 저기로 이동하게끔 만들기도 한다. 한국은 미국에서 고기를 수입하고, 미국은 캐나다에서 고기를 수입한다. 미국은 매년 800톤 가량의 고기를 수출하는데, 또한 그 만큼의 고기를 다른 나라에서 수입한다. 이러한 수입과 수출은 어떤 의미에서 ‘낭비’라고도 말할 수 있다.

때문에 우리는 세계화보다는 지역화 하는 정책을 지지해야 한다. 그것은 기업이 국가와 지역, 공동체 안에 머무는 것을 의미한다. 무역은 필요할 때만 해야 하고 무역을 위한 무역이 이뤄져서는 안 된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매우 급진적인 생각이라 여기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 어떤 면에서 이것은 매우 보수적인 방법이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경제를 지역화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미국과 영국, 일본에서는 농민들이 소비자와 직접 거래를 함으로써 상호의존과 협력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현재 슈퍼에서 판매되고 있는 물건 값 중 소비자가 농민에게 지불하는 것은 5% 정도에 불과하며 나머지 95%는 운송과 포장, 광고에 쓰인다.

단거리 무역은 이 같은 손실을 막고 다양한 품목을 유기농산물로 재배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지역화 시스템을 통해 농부도 이익을 얻고 소비자도 적은 돈을 내고 유기농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직업도 다양해지고 지역에서 자본의 이동도 더 많아질 것이다. 경제 규모를 지역 단위로 운영하게 되면 지역의 문화와 공동체가 살아나는 효과도 볼 수 있다. 이처럼 지역 공동체를 재건하는 것은 우리가 서로 상호의존 해 살아가게 되고 행복감을 느끼며 진정한 의미의 ‘웰빙’을 할 수 있게 된다.

부처님은 공동체 속에서 지혜와 자비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가 인드라망처럼 얽혀 있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무지’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러한 자각을 바탕으로 현재의 상황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나’와 ‘너’가 다르지 않다는 깨달음을 서로 나누고 실천으로 이어나가는 것이다.



세계최초 초소형 경전 순금나노 불경금책

순금의 氣를 직접 만지며 느낄 수 있는 불경금책, 소병풍, 달마.연꽃액자, 옴마니반메훔족자 등



순금경전규격
(소) 3.5 × 5cm
(중) 5 × 7cm
(대) 6.8 × 9.7cm
· 반야심경(소, 중)
· 천수경(중, 대)
· 관세음보살보문품(중,대)
· 묘법연화경요품 (중,대)
· 금강경(소, 중, 대)



관세음보살보문품



지장보살본원경

소형금병풍 규격 : 74cm x 74cm
최고급 소형 금병풍은 소법당, 스님방, 불자님의 가정에 소장용으로 최고이며 기도정진, 영가천도, 재례용등 여러 용도로 사용합니다.



달마액자 (중)35 × 50cm (대)42 × 65cm



연꽃액자 26 × 26cm



족자 60 × 20cm

금달마, 연꽃액자, 옴마니반메훔족자 등은 스님 및 각가정에 개인소장용으로 최고입니다. 불사용으로도 널리 사용합니다. (불사용으로 단체주문시 크기별 제작가능)

금강 불교예술원에서 세계최초로 99.9%의 금을 나노화 하여 조성된 초소형 경전인 불경금책을 제작보급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복장용으로 장엄하오며 단체 주문시 발원문, 가족명단을 인쇄하여 드립니다. 또한 영가천도, 불사, 소장 및 휴대용으로 가능하며 기타 용도로 사용합니다.

순금경전을 휴대하는 것만으로도 부처님의 공덕과 불심으로 가피를 입을 수 있으며 호신용으로도 최고입니다.
(불사인연 공덕을 맺으시어 세세생생 선근의 인연 공덕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큰스님 법어, 법구경도 크기별로 주문제작 합니다.

부처님께서 사용하시던 흑단목

氣가 발산되는 신비의 흑단목염주, 포대화상향로, 흑단목탁



흑단목108염주, 단주
8mm 55,000원
10mm 65,000원
12mm 85,000원
가격이 저렴한 흑단무늬목염주는 행사(보시)용으로 수량에 따라 가격 조정이 가능함



흑단무늬목 포대화상향로
(대)26×16×16cm 155,000원
(소)20×12×12cm 95,000원
예술조각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없는 사람과 나눌 수 있는 미덕과 복받을 마음을 이루어 주며 입에서 향이 뿜어져 나와 예불시에도 사용합니다.



1등급 흑단목탁
지름 6~6.5cm
가격 95,000원
소형이므로 스님 만행용으로도 최고입니다.

부처님께서 즐겨 사용시던 흑단목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나무중 유일하게 氣가 발산되고 최고로 단단하며 자연 분향이 은은하여 아름다우며 동남아 국가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나무중 최고의 명품인 흑단목 입니다. 스님 및 각가정에 개인소장용으로 최고입니다.

※ 제품 특성상 수공예 품으로 크기 및 모양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북한 신비의 금강염주

2가지 소원이 꼭 이루어지는 신비와 영험의 금강염주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금강약돌 금강염주는 1,500℃이상 에서도 녹거나 타지 않으며 강력한 氣와 93% 원적외선, 높은음이온이 발산하며 98%의 살균작용으로 영원토록 색상과 모양이 변하지 않고 남아있어 더욱 신비함을 드립니다.
녹색의 금강염주는 내세에 무량한 생명과 풍요, 행운, 번영, 장수, 건강, 명예와 왕생을 상징하는 부처님께서 주신 연꽃을 의미하는 파드마 염주입니다.
진밤의 금강염주는 금강의 강한氣가 발산되는 금강염주는 몸에 지니는 것만으로도 정신이 안정되며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강한 마음으로 가족의 건강을 지켜 드리고 동서남북의 복을 불러 2가지 소원이 꼭 이루어지는 신비와 영험의 금강염주입니다.

대리점 및 딜러모집
불교용품점을 운영하시는분 환영 소자본으로도 대리점가능
무점포시 : 불심이 강하며 차량소유자로서 활동하시는 분
금강불교예술원 문의전화 02)722-1850

禪 수행의 길잡이

선가귀감



<78> 마조 스님의 '할!' 에

부처님 공부를 할 때에는 우리가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먼저 알아야만 한다. 극락왕생하기 위하여 염불을 하고 있는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알기 위하여 경전을 보고 있는지, 아니면 마음을 깨쳐 바로 부처님 세상으로 들어가려고 참선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 길은 달라도 마지막에는 모두 부처님 세상에 가닿게 되겠지만, <선가귀감> 내용은 그 가운데서도 간화선을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그 길을 일러 놓은 것이다. <선가귀감> 78장에서 말한다.

大抵學者 先須詳辨宗途 昔 馬祖一喝也 百丈耳聾 黃壁吐舌 這一喝 便是拈花消息 亦是達摩初來底面目 吁 此臨濟宗之淵源.

대저 공부하는 사람들은 먼저 각 종파에서 추구하는 길을 잘 알아야 한다. 옛날 마조(馬祖 709-788) 스님의 '할' 한 마디에 백장(百丈 720-814) 스님은 귀가 먹었고 황벽(?-850) 스님은 혀를 내밀었다. 이 '할'이 바로 부처님이 영산회상(靈山會上)에서 꽃을 들어 보인 소식이며 또한 달마 스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신 본래면목(本來面目)이다. 아! 이것이 임제종의 근원이 되었다.

마조 스님은 유명한 당나라 선승(禪僧)으로서 사천성 성도부 사람이다. 일찍이 남악(南嶽) 회양(懷讓 677-744) 선사 밑에서 열심히 좌선을 하고 있었는데 회양 스님이 어느 날 다가와서 물었다. "자네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좌선을 하고 있습니다." "좌선은 해서 무엇 하려는가?" "깨달아서 부처가 되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회양 선사는 그 이튿날 벽돌을 갈기 시작하였다. 마조가 와서 묻기를 "스님, 벽돌을 갈아 무엇에 쓰시려고 합니까?" "거울을 만들려고 하네." "벽돌을 갈아 어떻게 거울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자네도 앉아만 있다고 부처가 될 수 있겠는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수레가 움직이지 않을 때 채찍으로 수레를 때려야 하겠는가? 아니면 소를 때려서 가게 해야 되겠는가? 선(禪)이란 앉거나 눕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부처는 가만히 앉아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취하고 버리는 분별이 없어 집착이 없는 것이야말로 선(禪)이다." 이 말에 크게 깨친 마조 스님은 회하고 소리를 질렀다. 그때 마조 스님이 "그래도 날아갔다고 할 것이냐?"하는 데에서 깨친 바가 있었고, 그 다음 인연에는 마조 스님의 할! 소리에 크게 깨쳤다고 한다. 뒷날 홍주 남창부 봉신현에 있는 백장산(百丈山)에 들어가 법을 펴기 시작하였다. 백장 스님은 율종의 제도를 그대로 사용해 왔던 선원의 살림살이를 정리하고 선종의 총림 제도와 규율을 엄격히 세우기 시작했는데 그 결과물로 나타난 것이 <백장청규(百丈淸規)>이다.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말라[一日不作一日不食]"로 세상에 널리 알려진 이 청규는 뒷날 천하 총림에서 받들어 행하지 않는 곳이 없었다. 연로한 나이임에도 날마다 일하는 백장 스님의 모습이 하도 안쓰러워 하루는 일을 못하도록 제자들이 연장을 감추었더니, 백장은 그날은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밥을 굶었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다. 뛰어난 그의 제자로서 황벽희운과 위산영우가 있었다.

백장 스님의 제자인 황벽 스님은 복건성 복주주 섬현 사람이다. 어렸을 때

'할' 한마디에 백장은 귀 먹고 황벽은 혀 내밀다
분별심 경계하라는 큰스님들의 자비심의 표현

양의 법을 잇고 법문을 할 때마다 '평상시 쓰는 마음이 도이다[平常心是道]'와 '마음 그 자체가 부처다[卽心是佛]'라는 말로써 크게 선풍을 일으켰다. 백장회해 서당지장 남전보원 대매법상 등 139인이나 되는 많은 제자들을 두었다.

마조 스님의 법을 이은 백장 스님은 복건성 섬후현 사람이다. 마조 스님을 모시고 길을 가고 있는데 물오리 떼가 울면서 날아가고 있는 것을 보고 마조 스님이 물었다. "저게 무슨 소리냐?" "물오리 우는 소리입니다." 한참 있다가 다시 묻기를 "아까 그 소리가 어디에 있느냐?" "날아가 버렸습니다." 갑자기 마조 스님이 백장의 코를 잡고 비틀었다. 백장은 아픔을 참지 못하고 백장은 앗! 하도 영특하여 신동이라 불렸다. 강서성 서주부 황벽산에 출가하였다가 마조의 '할'에 의하여 깨쳤다고 하는 백장 스님의 법문을 듣고 그 자리에서 크게 깨치고 혀를 내밀었다고 한다. 백장의 법을 잇고 난 뒤 뒷날 배휴(裴休)의 청을 받아 여러 곳에서 법문을 하였으나 가는 곳마다 그 곳에 있는 산 이름을 처음 출가했던 산 이름을 따서 황벽산이라고 하였다. 그가 염관사(鹽官寺)에 있을 때 예불하는 자리에서 뒷날 임금이 된 선종(宣宗)이 그에게 법을 물은 일이 있었는데 답변으로 세 번이나 뺨을 때린 적이 있었다. 뒤에 황제 자리에 즉위한 선종이 뺨을 맞은 분풀이로 황벽 스님에게 행실이 거친 중이라는 뜻의 '추행사문(麤行沙門)'이란 법호를 주려고 하였다. 그러자 배휴가 간하기를 "폐하에게 황벽 선사가 세 번 때려준 것은 폐하의 삼제(三際) 곧 과거 현재 미래의 윤회를 끊어서 깨달음을 얻으라는 뜻이었습니다"라고 하자 '단제(斷際) 선사'라는 호를 내리게 되었다. 그의 저서로는 배휴가 어록을 한데 모은 <황벽산 단제선사 전심법요(黃檗山斷際禪師傳心法要)>가 있다. 임제종 창시자 임제의현(? -867)이 그의 법제자이다.

마조의 '할' 한 마디에 백장은 귀가 먹었고 황벽은 혀를 내밀었다. 이 '할'이 바로 부처님이 영산회상에서 꽃을 들어 보이자 가섭이 빙그레 웃어 마음과 마음이 통했다는 이심전심(以心傳心)의 염화미소(拈花微笑) 소식이며 또한 달마 스님이 이 땅에 처음 오신 본래면목이다. 그러므로 서산 스님은 말한다.

識法者懼 和聲便打.

법을 아는 사람들은 경계하나니
아는 소리 할라치면 때려버린다.

법을 아는 사람들은 시비하고 분별하는 중생들의 마음을 꺼려한다. 그 마음 때문에 중생들이 육도윤회를 하며 밤중에 길을 가는 사람처럼 어두운 세상에서 헤매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생들이 분별하는 마음을 낼라치면 그 자리에서 그 마음을 죽여 버린다. 그 모습이 '할'로 나타나기도 하고 주장자로 때려주기도 하는 것이다. 큰스님들의 자비심이다. 서산 스님은 게송으로 말한다.

杖子一技無節目 慇懃分付夜行人.

기다란 주장자 맺힌 마디 없는데도
밤길 가는 사람에게 애틋하게 내어주네.

서산 스님은 이를 다시 풀이하여 "옛날 마조 스님이 외치는 '할!' 한 마디에 백장 스님은 '대기(大機)'를 얻었고 황벽 스님은 '대용(大用)'을 얻었다. '대기'란 오롯하게 어떤 근기이든 두루 맞이한다는 뜻이고, '대용'이란 헛소리를 바로 끊어버린다는 뜻이다. 그 사연들이 전등록에 실려 있다."고 말하고 있다.

■원순 스님(송광사 인월암)

한입에 쏘옥~ 불교 상식

숙세(宿世)

업(業)에 대한 법문을 듣다 보면 숙세(宿世)라는 표현을 접하게 된다. 숙세는 전세(前世) 과거세(過去世)의 뜻이다.

숙세에서의 생존상태를 숙명(宿命)이라 하고, 숙세에서의 선악의 습관이 남아 있는 것을 숙습(宿習), 숙세에 맺은 인연을 숙인(宿因) 숙연(宿緣)이라 한다. 숙세에 맺은 이 인과 연은 선악에 모두 통하지만 관용상 좋은 인연, 즉 금생과 후생에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전생의 좋은 인과 연의 뜻으로 쓰여진다.

숙세에 지은 업은 숙업(宿業)이라 부른다. 이 업이 인연이 되어 금생 이후의 생존상태를 규정한다고 생각하므로 이 업의 인연을 업연(業緣) 업인(業因)이라 한다.

업인 업연 역시 숙인 숙연처럼 선악에 모두 통하지만 선한 쪽을 뜻하는 숙인 숙연과 달리 관용상 금생이후 나쁜 결과를 가져오게 하는 전생의 나쁜 인연의 뜻으로 쓰인다.

숙세의 좋은 업의 뜻을 나타내는 것으로 숙선(宿善, 숙세의 선업)이라는 어귀를 쓰기도 한다. 숙선이 없는 것(숙세에서 악업만 짓고 선업을 만들지 않은 것)은 무숙선(無宿善)이라 한다.

진종(眞宗)에서는 숙선의 유무를 중요시해서 무숙선인 자는 교법을 듣는 기회를 가질 수 없고 신앙도 갖기가 어렵다고 설해왔다. 그러나 부족한 숙선을 개발시키면 신앙도 얻을 수 있고 왕생할 수 있음을 강조해 수행을 이끌었다.

강지연 기자

권경희의

상담심리학과 불교 <20>

윤회

십이처의 세계에 속속들이 적용될 것 같은 업인과보의 법칙으로도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 현상이 현실에 나타난다. 예를 들자면 어떤 사람은 좋은 집안에 태어나 별다른 노력 없이도 편히 살아가며, 어떤 이는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 아무리 노력해도 가난을 면치 못하는 경우가 있다. 즉 선인(善因)은 발견되지 않는데 선과(善果)만 나타나는 경우와, 선인은 있는데 선과가 나타나지 않는 두 가지 경우가 있는 것이다. 여기서 불교의 숙세 · 현세 · 내세의 삼세의 개념이 나온다. 즉 전자는 선인이 숙

불교는 현세의 업인 관찰 통한 내세 과보 예측
'신경증적인 마음에 대한 불교적 모델'로 해석

세에 있었는데 현세에 비로소 과보가 나타났고, 후자는 현세에 업인을 쌓았으므로 내세에 그 과보가 나타난다고 예측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업인과보의 삼세윤회설(三世輪廻說)이 성립된다.

삼세윤회설은 인간의 시야를 현세의 테두리를 벗어나 무한한 시공에 펼치게 한다. 이를 단순한 숙명론으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업설의 목적은 현세의 괴로움의 원인을 숙세의 인연으로 돌리고 체념하라는 입장이 아니다. 스스로의 의지력으로 이를 극복하여 미래 지향적으로 나아가는 데 있다.

불교에서는 인간이 인식할 수 있는 세계만을 확실한 것으로 본다는데[십이처설], 삼세업보설은 이에 모순되지 않느냐는 주장도 있다. 숙세나 내세 같은 것은 보통 사람이 인식할 수 없는 경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삼세업보란 현실 세계의 인과를 관찰하면 누구나 그 필연성을 추단(推斷)할 수 있다고 본다. 부처님은 이러한 인과업보의 윤회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궁극적인 깨달음을 얻어야 하며, 깨달음을 얻으려면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바르게 수행해야 한다고 누누이 설했다.

삼세윤회설을 드라마틱하게 펼친 것이 육도(六道) 윤회설이다. 중생이 업인에 따라 윤회하는 길을 여섯으로 나눈 것이 육도다. 육도 가운데 지옥도 · 아귀도 · 축생도 · 아수라도 · 인간도는 욕계(欲界)에 속하며, 천상도는 욕계의 6천과 색계(色界)의 18천, 무색계(無色界)의 4천 등 3계 28천을 통틀어 가리킨다.

엘스타인이란 미국의 정신과 의사는 불교의 육도 윤회설을 '신경증적인 마음에 대한 불교적 모델'로 해석했다. 프로이트가 말한 열정을 동물적 본성인 축생도로, 편집증적 상태와 공격적이며 불안한 상태를 지옥도로 보았고, 구강기적 갈망을 아귀도에 대비시켰다. 인본주의 상담에서 말하는 절정 경험은 천상도에 비교했고, 자아심리학이나 행동주의 그리고 인지치료는 경쟁적이고 유능한 자아를 개발하려 한다는 점에서 아수라의 영역으로 분류했으며, 나르시시즘은 인간도로 구분했다. 불교에서 말하는 육도 각각의 개념과 조금 다르게 적용한 부분도 있지만, 인간의 심리과정을 육도 윤회에 대입한 해석이 상당히 일리가 있다.

■불교상담개발원 사무총장



그림 : 문병성

2007년 수덕사 「결제와 해제」 禪 수련회

덕숭총림 수덕사는 禪맥이 면면히 계승되고 있는 禪의 종가입니다.
해마다 이어져왔던 여름 禪 수련 프로그램을 새로이 바꾸어 결제와 해제라는 주제로
스님들이 선방에서 정진하는 모습 그대로의, 선 실천 프로그램으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禪은 부처님의 마음이요, 敎는 부처님의 말씀인 것처럼 禪을 통해서
여러분의 참 마음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선착순 마감

	일 정	기 간	프로그램명	수련비	참가인원	대 상	비 고
1차	7/28~7/29(토~일)	1박2일	산사체험	2만원	100명	어린이	선착순
2차	8/ 1~8/ 4(수~토)	3박4일	결제와 해제	8만원	50명	일 반	선착순
3차	8/ 8~8/ 11(수~토)	3박4일	결제와 해제	8만원	50명	일 반	선착순
4차	8/15~8/18(수~토)	3박4일	결제와 해제	8만원	50명	일 반	선착순
5차	8/25~8/26(토~일)	1박2일	선실천			교 사 (가족동참가능)	



▣ 준 비 물 : 세면도구, 속옷과 여벌의 옷, 편한신발
(※1차 어린이수련회 참가시 수영복 지참)
▣ 신청서에 희망 날짜와 차수를 꼭 기입해주세요.
▣ 납부내역 : 계좌번호 310060-01-005443
(은행명:우체국 / 예금주:수덕사)

자세한 사항은 수덕사 종무소의 담당자를 찾아 주세요.
(인터넷 접수도 가능합니다.)
●주소 : 충남 예산군 덕산면 사천리 20번지 / Tel 041)337-6565

동방의 빛이 계룡 800년 대운으로 후천이 시작 유불선 경신 도통으로 천하를 다스리는 운수 대통 및 정해년 백중입재법회

생명의 근본은 태식에 있고, 운명과 수명은 내마음자리에 있으며 생노병사 해탈법은 경신 도통에 있느니라.

● 경신수행로 심신의 번뇌를 벗고 새로운 정신세계를 창조하여 막힌 운명을 찾아 도통하여 미래를 창출하여 자신도 구하고 중생도 다스리는 수행정진으로 초능력자 일류 스승으로 살아가는 장수 비법과 건강의 주인공 되소서.

진인도통군자제위 귀하를 용맹정진 대법회에 초대합니다. 상통천문 신족통 하달지리의 비전인 천문유초에 감추어진 오경명성과 서성명성 진법이 유성에 베일을 벗기는 경신일밤 자시와 오시에 진인도통군자들에게 원방각해인도법으로 즉시도통하고 즉시 성불하는 이번 법회에 귀하를 초대하오니 다시없는 기회에 동참하시어 도통군자 사명자 일류스승 되시기 바랍니다.

● 병마귀신 잡신 천신 만신 구랑신 모든신들을 하늘나라 불사신 광명천으로 경신일 자시에 불러모아 경신일 정오시에 영산대제 범패로 회원상생시키는 천도대법회에 조상영가, 모태유산영가, 처가친정 · 외가영가, 9대선망, 5대조상의 빙의, 일체영가 백중 49제에 입재하시어 혜원상생으로 소원성취 하소서.

▷영가 1위당 1금 1만원, 모태영가는 5천원 7×7=49제

● 경신도통이란?? 자신의 주인공을 찾는 참선인 것이고 생노병사를 초월하는 법이며 운을 받아도 안되고 치료해도 안되는 관절과 수족, 중풍, 질병으로 고통받는 병을 제도 해탈하여 자신도 구하고 중생도 구재하는 수행법인것이다.

정해년 경신은 출세와 명예 경쟁에서 이기고 국가에 문관 무관 관록을 얻어 진급 및 정치, 경영하는 총수가 되려면 경신도통 특별기도로 건강 부귀 장수는 물론 모든 소원과 한가지 소원을 얻는 것이 경신기도인 것이다.

경신도통을 하여야만이 무불도통으로 초능력자가 되는 것이다.

전생빙의와 해리로 고통받고 중음신과 삼시구충으로 육신의병, 정신의 병, 잡신과 귀신에 빙의제도법 특별 태일대사 직강

◆신장과 귀속들을 부려 말문과 글문과 도통군자들과 영통능력자가 되시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특별 태을경과 옥추경을 강의하여 신장귀속들을 마음대로 부리고 다를 수 있는 특별비법 전수

육경신 기도 중 이번 신족통 법회에는 운전에 자신이 없거나 사대가 불편하고 관절로 고생하며 수족이나 정신에 이상이 있는 자 즉시 혜원상생시키어 건강 성취하는 신족통 기도이 것이다.

心 부처님 열반 7일전에 보현보살에게 부처님께서 비전으로 이어진 부자되고 견성하여 불법을 지키는 비밀의 주문송의 비밀장을 그대는 아시는가.



삼재팔난 일체고액을 소멸하고 운수대통 하는 달마 구입처 : 02)821-6622/016-239-3119

신족통 법회에 혜명을 득도하는 비법인 진법을 도통군자들에게 참된여래의 종자와 주인공인 나를 감추고 있는 으뜸가는 관문인 혜명과 성품이 갈라져있는 참법을 즉시 도통견성하여 영통능력과 말문을 열어 혜명과 성품이 둘로 갈라져 혜명은 성품 즉 마음자리를 볼 수 없이 육신만 자라면서 성장하자마자 늙고 병들어 제육신하나 관리못하는 모든수행자들에게 특별 경신수행으로 신선이나 도인이되어 만천하를 제도하며 살아가는 천하제일의 유래없는 견성도통 심령도통 자신도통, 말문도통으로 하늘의 소리를 보고 들을 수 있는 만법을 얻어 만중생을 제도하는 경신도통대법회

◆본종단 불사금 부적으로 소장했던 탄허대선사 큰스님친필 평풍, 일붕서경보 큰스님 반야심경 평풍 친필과 강석주 대선사 큰스님 현판 및 오유지족 친필, 수덕사 방장 원담 큰스님 반야심경 친필 평풍.

◆제2도장 태양의 집- 도인과 진인을 창출하는 천하 도통 명당 수행지
계룡명당, 봉황산, 계두봉, 서출동유, 지장수 명지, 비산비야, 비승비속
진인 출현지에 동방의 찬란한 빛이 비춰는 곳 - 정신, 심신, 육신의 수양도량

충남 연기군 서면 봉암 2리 H · P 010-2891-3117 명제

세계불교달마종 육경신 도통의 제2도장 태양의집

● 입제 : 양력 2007년 7월 24일(음, 6월 11일 화)(해시)
● 해제 : 양력 2007년 7월 25일(음, 6월 12일 수)(해시)
02-821-6622 , 821-7767, 016-239-3110

● 농협 029-01-167866 곽태일 (선착순 접수) 간편한 웃
7호선 신대방 삼거리역 3번출구 → 버스로 환승하시고
두번째 모자원고개 하차. (버스 6513, 6514, 5711, 461 이용)

웅조달마 경신도통회
세계불교 달마종 총본산

선지식을 찾아서 원응

하심이 커지면 원수까지도 포용



가족들 위해 기도하러 다닌다면 자기에게 속는 일
초심으로 돌아가 봉사할 수 있는 마음 가져야
위선이라도 좋은 일 하다보면 이루어지는 것

원응 스님 (벽송사 회주)



원응 스님은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여 늑막염을 앓게 되었다. 부친이 절에 가서 요양하면 좋겠다고 권유하여 절로 들어 간 그 길이 바로 출가의 길이 되었다. 20살 때 부산 선암사에서 석암 스님을 은사로 출가하였다. 선암사에서 3년 정도 머물다가 정진을 위해서 지리산 벽송사로 들어왔다. 벽송사 위쪽에 있는 석굴을 발견하고 35년에 걸쳐 서암정사를 지었다. 불사를 하면서 60만자나 되는 <화엄경> 사경을 두 번이나 하였다. 금니 사경에 사용한 금의 양은 4kg이요, 닳아서 버린 붓만 60자루나 된다. 서울, 부산, 대구에서 '<화엄경> 금니 사경' 전시회를 가졌다. 지금은 벽송사와 서암정사 회주다.

밤새도록 소나무 위로 비가 후드득거렸고, 빗소리는 귀에 가득히 쏟아져 들어왔다. 다음 날 새벽 서암정사가 있는 지리산은 온통 안개로 휩싸였다. 청빛 어둠 속을 더듬어 굴법당에 들어섰다. 석가모니 부처님과 아미타불, 부처님의 십대제자가 조각된 굴법당은 장엄한 부처님의 세계였다. 35년이나 걸려서 굴법당을 조성한 원응 스님의 원력을 생각하면서 부처님께 나붓이 3배를 올렸다.

포대화상의 웃음을 떠올리게 할 만큼 환한 웃음을 짓는 원응 스님 앞에 앉았다. 풀 베고 돌 져다 나르는 일에 평생을 바친 원응 스님의 손은 거칠고 굳은살이 덕지덕지 박혀있다. 스님은 어떤 큰 원력을 세웠기에 방대한 <화엄경>을 15년에 걸쳐서 두 번이나 사경할 수 있었으며, 수십 년의 세월동안 힘들다 생각하지 않고 굴법당을 조성할 수 있었는지 궁금하였다.

"부처님께 발원을 할 때는 자기를 위한 것인지 중생을 위한 것인지 한 번 생각해봐요. 큰 원을 가진 사람은 큰 성취를 하게 되고 작은 원을 세우면 작은 그릇 밖에 못 만듭니다. 그래서 부처님 제자들은 큰 원을 세우라고 합니다. 모든 부처님 수행에는 원이 있었어요. 절에 20~30년 다녔다고 자신은 큰 보살로 생각하지만, 아들 딸을 위해 기도하는지 아니면 중생을 위해 기도하는지 한 번 들여다보라고 말합니다. 중생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보살이지. 자기 기도만을 한다면 아이들이 사탕 주면 좋아하는 것과 같아요. 이것이 다 자기에게 속는 일입니다."

원응 스님의 은사 석암 스님은 선암사에서 살기를 권하였지만 원응 스님은 시끄러운 것이 싫어서 아무 연고도 없는 지리산 벽송사로 들어왔다. 전쟁으로 벽송사는 거의 폐허가 되어 있었고, 스님은 복구할 엄두마저 나지 않았다. 오로지 참선수행에 마음을 모았다. 어느 날 석암 스님은 "십겁을 앉아 있어도 불법이 나타나지 않는다 했는데 소견이 생기던가?"하고 물었다. 원응 스님은 "불법이 나타나면 헛것이 아니겠습니까?"라는 대답을 하여 전법계를 받았다.

원응 스님은 낮에 굴법당 공사를 하시면서 밤에는 <화엄경> 사경을 하였다. 60만자나 되는 <화엄경>을 10년에 걸쳐서 사경하였고, 그 다음에는 5년만에 금니사경을 끝내었다. 한국 불교계에 전무후무한 일이다. <화엄경 약찬게>를 독송하다보면 53선지식의 명호가 나오는데 그것을 외우면 공덕이 있는지 물어보았다.

"경전 몇 자 알고 외운다고 해서 깨달아지겠는가? 내 마음을 통해서 깨치는 참선이 낫지. 그래서 옛날 조사들이 참선하라고 한 것이지. 사람들은 '마음만 깨달으면 부처'라고 쉽게 말하는데 그것 깨닫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나는 하심 하는 것이 불교 전체의 뜻이라고 생각해요."

하심은 자기 자신을 낮추는 일이며, 또 나를 버리는 것이다. 왕후장상이 되었다 하더라도 초심으로 돌아가서 남을 받들고 봉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그것이 바른 길이란다.

"처음에는 인연 있는 사람에게만 하심하게 되지만 마음이 커지면 인연 없는 사람까지도 포용하게 됩니다. 하심을 하면 원수까지도 포용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부처님 세계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남을 정복해서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포용하려고 해야 합니다. 회사 다니는 사람이든 누구든지 하심으로 일하면 남에게 인정을 받아요. 중생들은 이기심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는데, 이렇게 하심하다보면 아상이 끊어지고 자타(自他)가 둘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

자타가 둘이 아닌 세계는 내가 온전히 비워진 깨달음의 세계이다. 나도 비우고 너도 비우고 모든 사물을 비워 버린 세계가 공의 세계인 것이다. 아무 것도 없다면 공의 세계가 될 수 없다. 비워진 만큼 채워질 수 있는 것이 세상의 이치다. 비워버렸다는 것은 벌써 모든 것이 들어올 수 있다는 말이다. 다 비워버리면 모든 사람을 품어 안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그것이 곧 나를 이기고 남을 이기는 것이다.

사회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남을 이겨야 한다는 그 마음이 바로 중생심이란다. 하심하기가 힘들다고 엄살을 부렸더니 "그러면 부처님도 그만큼 힘들지" 라면서 허허 웃으신다.

"참선한다고 앉아있으면 다 깨달아지나. 그래도 부처님 흉내라도 내야지. 좋은 모습을 흉내 내다 보면 처음에는 위선에 속하지만, 거듭하다 보면 위선이 사라지고 진짜가 되어버리지. 말더듬이 흉내 내다가 말더듬이가 되어버리듯이, 위선이라도 좋은 일을 해야 합니다. 참선한다고 앉아있어도 마음은 동서남북을 왔다갔다하면서 망상 속에 있지만 그렇게라도 하다보면 10년 20년 세월이 지나면 이루어지는 것이지."

원응 스님은 출가 전부터 부친으로부터 '이뭣고' 화두를 받아 참선을 하였다. 행자 때는 '시심마행자'라는 별명이 붙기도 하였다. 하지만 스님은 일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만 있는 선(禪)은 죽은 선이라고 한다. 노동선을 주창하시는 것이다.



"누구나 편한 것을 좋아하지만 이 산중에서 일 안 하고 살 방법은 없어요. 남의 짐을 대신 지는 것이 보살도인데 그늘에서 부채나 할랑할랑 부치고 있는다면 절집에 백날 있어봐야 아무 소용없지. 일을 안 하면서 무슨 공부가 되겠는가? 산중에 살려면 자기 스스로 꾸려갈 수 있는 용맹도 있어야 하고, 그래서 상좌들에게 일을 잘 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젊은 시절에 눈을 너무 혹사한 탓인지 눈이 많이 쇠약해져서 소일 삼아 부처님의 경구를 쓰신다. 평생을 한시도 쉬지 않고 노동과 정진을 해 오신 스님은 '산중에서 공부도 안하고 허송세월만 보냈다'고 한탄하였다. 스님의 말씀이 타성에 젖어 안일하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히려 죽비가 되어 한 대 내려치는 것만 같았다. 노동자의 손같이 굳은살이 턱턱 박혀있는 원응 스님의 손이 바로 부처님의 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 부처님의 손을 한 번 잡아보고 싶었다.

글 · 사진=문윤정(수필가 · 본지논설위원



한국근현대 고승들의 선문답

만공 스님(5)

만공, 법문을 어디로 듣느냐

진성, 귀로 듣습니다

만공, 귀로 들으면 잘못된 법문이니라

(머리를 때리며) 알았느냐?

진성, "아야! 아야!"

1939년 동안거 해제 때였다. 몽술(夢述) 행자가 만공 노스님께 나아가 절을 하니, 물었다.

"네가 누구냐?"

"몽술이라 합니다."

"이 곳에 무슨 일로 왔느냐?"

"스님의 법문을 들으러 왔습니다."

"법문을 어디로 듣느냐?"

"귀로 듣습니다."

"귀로 들으면 잘못 듣는 법문이니라."

"그렇다면 어디로 듣습니까?"

하니, 노스님이 쥐고 있던 주장자로 행자의 머리를 한 번 '딱!' 때리고 묻기를 "알았느냐?"하고, 다시 한 번 더 때릴 기세로 주장자를 번쩍 들어 올렸다.

"알았다 하여도 이 주장자를 면치 못할 것이고, 알지 못하였다 하여도 이 주장자를 면치 못하리라. 속히 일러라."

행자가 머리를 만지며, "아야! 아야!"하니, 스님은 주장자를 내리고 박장대소(拍掌大笑)하였다.

몽술 행자는 훗날 만공 스님의 선문답에 사미나 시자로 자주 등장하는 진성(眞性, 혹은 眞惺) 스님이다. 이 문답은 하룻강아지처럼 물정(物情) 모르는 행자가 덕숭산의 호랑이를 놀린 격이지만, 만공 스님은 오히려 손뼉을 치며 좋아하고 있다. 막 절에 들어온 어린 행자가 알고 모르고 하는 분별심을 떠나, "아야! 아야!" 하는 무심의 지혜작용을 드러낼 줄 아는 법기(法器)임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이 문답에서 만공 스님은 법문은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그렇다면 어디로 듣는다는 말인가? 흔히 '마음 땅'을 촉촉하게 적시는 '법의 비'를 심지법문(心地法門)이라 한다. 마음 땅에 뿌려진 불법의 씨앗을 싹틔우기 위해서는 학인의 '마음의 귀'가 열려 있어야만 선지식의 '마음 법문'이 진실하게 들린다는 것이다.

남악회양 스님은 마조 스님의 "도가 모습(色相)이 아니라면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심지법안(心地法眼)으로 도를 볼 수 있으니 모습 없는 삼매도 그러하다"(마조록)고 답했다. 마음의 눈으로 보지 않고서는 진리를 볼 수 없다는 가르침이다.

'마음의 귀'가 열려야 법문 들려
망상·분별 사라져야 '禪의 세계'

실제로 온갖 고정관념과 사량분별, 망상에 사로잡혀 있는 중생이 진리의 말씀을 진실 그대로 받아들이기란 쉽지 않다. 때문에 마조 스님은 "옷 입고 밥 먹으며 말하고 대꾸하는 6근의 작용과 모든 행위가 모조리 법성(法性)이다. 그러나 근원으로 돌아갈 줄 모르고서 명상(名相)을 좇으므로 미혹한 생각(情)이 허망하게 일어나 갖가지 업(業)을 지으니, 가령 한 생각 돌이켜 본다면(返照) 그대로가 성인의 마음이다"(마조록)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진리의 법문을 바로 듣기 위해서는 개념과 분별심에 걸리지 않고 텅빈 마음이 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성철 스님은 "불교를 바로 알려면 바위가 항상 설법하는 것을 들어야 한다"고 말한 적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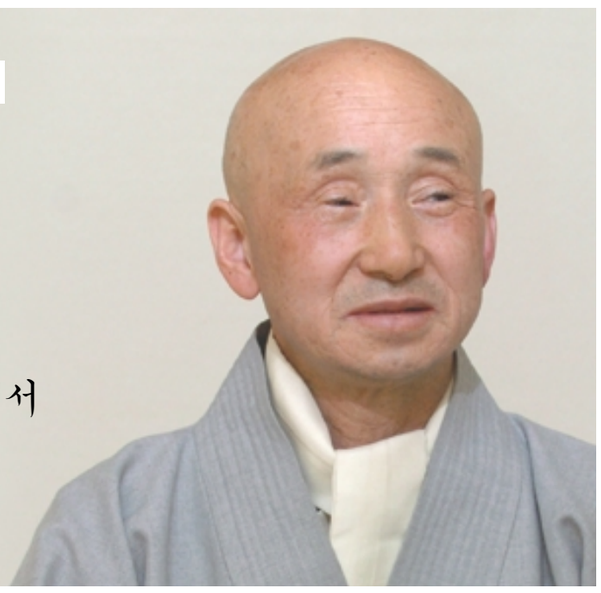
이른 바 '무정물의 설법(無情說法)'을 알아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보통, 사람의 말이 아닌 주변의 풍경이나 사물이 드러내는 진실을 '무정설법'이라 한다. 그것은 의식으로 조작해서는 알 수 없는 진실의 세계이다. 쓸데없는 망상과 분별의식, 일체 관념이 사라졌을 때, 있는 그대로 보이고 들리는 것이 선(禪)의 세계인 것이다.

김성우 객원기자

"묵조선 기초수행으로 간화선 병폐 극복"

신·터·뷰 보광선원장 대현 스님

"화두를 든답시고
사량 · 분별심과 망상으로
현재, 과거, 미래와
동서남북을 왔다갔다 하면서
헤매기만 한다면
무슨 성과가 있겠습니까."



32년 자전적 '禪' 체험기 그린 <선승의 길> 출간
"화두 들기 전 번뇌·망상부터 쉬어야 깨달음 얻어"

지난 3월, <선승의 길>(현대불교신문刊)이란 자전적 선(禪)체험기를 펴내 선객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서울 보광사 보광선원장 대현 스님. 32년간 제방선원에서 정진한 경험을 토대로 스님은, 간화선의 병폐를 극복하기 위해 염불과 위빠사나, 특히 묵조선을 기초수행으로 참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관심을 모은다.

7월 8일 보광사에서 만난 대현 스님은 "간화선이야말로 깨달음에 이르는 가장 빠른 길임에 틀림없지만, 그만큼 기초를 잘 닦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본자세와 호흡법, 바른 화두 참구법을 모른 채 덮어놓고 화두만 맹렬히 들고 나가면, 백이면 백 모두 위장병이나 상기병 같은 무서운 병에 걸리게 된다는 것. 망상의 잡초를 뽑지 않으면 화두가 성성하게 들릴 수 없기에, 10년을 앉아 있어도 참선의 기쁨을 체험하기가 어렵다는 게 스님의 경험담이다.

그렇다면 간화선의 병폐란 무엇이고, 화두 들기에 앞서 번뇌 · 망상을 쉬게 하는 공부를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묵조선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중심으로 인터뷰했다.

-간화선의 병폐란 무언인지요?

"간화선 초창기에는 선지식이 그때그때 학인의 물음에 따라 근기에 맞춰 격외담으로 그에게 꼭 맞는 화두를 창안해 주었다. 하지만, 송대에 와서는 이미 정형화된 1700공안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참구토록 해, 마치 시장에 가서 기성복을 사서 입히는 것과 같았다. 이러다 보니 화두에 주작심(做作心:인위적으로 조작하는 마음)이 붙어 진의(眞疑)가 돈발하기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량 · 분별심으로 화두공안을 알려고 하는 자, 경전이나 조사어록에서 인증하여 알려는 자, 일 없는 데 처박힌 자 등 여러 병폐가 생겼다."

-염불 · 위빠사나가 간화선의 보조수행으로 가능할까요?

"대뜸 '이뭣고?'나 '무자' 화두를 들 것이 아니라 위빠사나를 간화선에 접목시켜, 걸으면서도 걷고 있는 이 놈이 누구인고? 하고 관하고, 염불하면서도 염불하는 이 놈이 누구인고? 하고 관하는 것이다. 한 시도 잊지 않고 관하면서 이뭣고? 하게 되면, 번뇌 · 망상을 쉬게 되고 어느덧 화두가 물샐 틈 없이 이어지게 된다."

-묵조선이 기초수행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마음을 가다듬어 밖으로 반연(攀緣: 얽힌 인연)을 쉬고, 안으로 헐떡거림을 쉬게 하는' 수행법은 묵조선의 기본이다. 그렇게 보면 묵조선의 시조는 달마 대사라고 할 수 있다. 달마에서 홍인까지의 수인증과(修因證果)는 오랫동안 조용히 앉아 호흡을 고르고 마음을 관하는 정좌간심(淨坐看心) 선수후오(先修後悟)의 초기 묵조선이었다. 이러한 선법은 깨침 보다 깨치는 과정을 중요시 하고, 어떤 특정한 근기를 위함 보다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수행법을 제시했다. 그러나 6조혜능 대사는 수행의 과정과 방편을 초월해 상근기의 언하변오(言下便悟)와 돈오돈수(頓悟頓修)만을 주장했다. 상근기는 점차와 방편 없이도 언하에 깨달을 수 있겠지만, 중하근기는 그렇지 못하다. 때문에 묵조선과 같은 특별한 수행의 점차와 방편이 필요하다."

-묵조선이 대혜 스님에 의해 비판받은 까닭은?

"묵조선의 근간은 간심선(看心禪)으로 청원행사-석두희천-약산유엄-운암담성-동산양개-조산본적으로 내려오는 조동종의 선법이다. 묵조선이 송대에 와서 초기 묵조선을 흉내내는 병든 묵조선이 생겼으니, 이것이 '흑산(黑山) 아래 귀신굴에 빠져 살림살이를 하고 있는' 무기(無記)묵조선이다. 나는 묵조선을 셋으로 나눠 보았다. 비유하면 유위(有爲)묵조선은 유정난이요, 무위(無爲)묵조선은 어미닭이요, 무기묵조는 무정난이다.

-세 가지 묵조선의 특징은 무엇인지요?

"유위묵조선은 선정후혜(先定後慧)의 돈오선이다. 먼저 선정의 기름으로 등잔을 채운 뒤, 돈오의 불을 붙여 무명장야(無明長夜)를 밝힘과 같다. 초심자는 먼저 좌선으로 호흡을 고르는 섭심정좌(攝心靜坐)와 묵이상조(默而常照)로 마음이 고요해져 사량 · 분별심이 사라진 때, 선지식을 찾아가 공안으로 점검받는다. 공안타파로 돈오하는 것은 간화선과 같지만, 정혜쌍수(定慧雙修)와 선정후혜라는 차이가 있다. 간화선의 거장인 대혜종고 스님도 묵조선의 대가인 굉지정각 선사와 같이 묵조선을 닦은 후 화두로 확철대오했다는 점에서 유위묵조선의 본보기라 할 수 있다.

무위묵조선에서 '묵이상조'는 일체 모든 망념이 쉬어 묵묵한 가운데 항상 일체만상을 살핌을 말한다. <금강경>의 '응당 머무는 바 없이'는 묵(默)이요, '그 마음을 내다'는 조(照)다. 이는 무상구경각을 증득한 무심도인의 일용사요, 제불조사의 수용처를 말한다. 약산유엄 선사의 경계가 대표적이다.

무기묵조선은 외도들이나 묵조사선 수행자들이 빠진 무기(無記: 흐리멍텅한 상태)로서, 임의로 생각을 비워 일으키지 않음을 종으로 삼아 토목와석(土木瓦石)과 같은 경지에 든다. 이들은 공안타파를 믿지 않으며, 공공적적(空空寂寂)한 무기공에 빠져 한 생을 그르친다.

결국, 무기묵조선을 제외한 묵조선과 간화선의 마지막 관문 통과는 '공안타파'라는 공통점이 있다. 김성우 객원기자

아봐타 코스
나를 찾아 떠나는 9일간의 내면여행!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여기 있는가?
밝은길 아봐타 센터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지금이야 말로 당신이 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일생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아봐타 마스터 김희균
● 전화문의 상담 환영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154-1
전화 010-6230-2113 · ☎ 02)396-2736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 heegyun@avatar21.com

수행게시판

● **'금강경 육조해' 강의 · 독송**-부산 화명선원은 매주 월 저녁 8시, 매주 금 오전 11시 무거 스님의 <금강경 육조해> 강의 및 독송 법회를 갖는다. (051)335-7112

● **주말 산사 집중수행**-영천 은해사 서운암은 매주 토 오후 8시부터 12시까지 주말선방 집중수행을 실시한다. 행선, 원시경전 산책, 수행점검 및 자유정진으로 진행. (054)335-7926

● **위빠사나 10일 집중수행**-홍원사 성오 스님은 8월 31일~9월 9일 천안 호두마을에서 10일간 집중수행을 실시한다. 정원은 50명. (041)567-2841

● **절수행 삼매체험 특강**-법왕정사 주지 청견 스님은 7월 21일(토) 오후 7~9시 서울 대원정사 법당에서 절수행 삼매체험 및 건강비법 특강을 갖는다. (02)725-7011

직장인을 위한 불교강좌 (2년과정)
2007년도 동산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불교의 대중화와 대승불교 사상을 널리 알릴 사명감 있는 포교사를 양성키 위해, 교계 대덕스님 및 교수를 초청하여 불교의 분야별 전문교육을 통하여 직장인을 위한 2년과정의 동산불교대학 제31기생을 모집함

1년 교과목	· 법화사상 · 반야사상 · 화엄사상 · 불교사회복지론 · 불교학개론 · 선사상 · 불교미술 · 밀교사상 · 포교방법론	· 무진장스님(본대학학장) · 박 종(동산불교대교수) · 정엄스님(승가대교수) · 보각스님(승가대교수) · 서성운스님(삼천사주지) · 김형준(동산불교대교수) · 최종석(금강대교수) · 김호귀(동국대교수) · 윤열수(문화재전문위원) · 종석스님(승가대교수) · 활안스님(금강선원총재)
2년 교과목	· 근본불교 · 대승불교 · 비교종교론 · 불교상담론 · 인도불교사 · 중국불교사 · 한국불교사 · 유식사상 · 정토사상	· 암도스님(전포교원장) · 최봉수(동국대교수) · 주명철(동방대학원교수) · 정병조(동국대교수) · 김상현(동국대교수) · 김상영(승가대교수) · 묘주스님(동국대교수) · 태원스님(승가대교수) · 박 종(동산불교대교수)

모집인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원서교부 · 접수	전형방법	강의일시 및 장소	비 고
• 불교학과(200명) 정규반 · 주간반 · 통신반 (100명) (50명) (50명)	불교를 적극 신행하고자 하는 자	· 입학원서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반명함판사진 3매	2007년 7월 1일 ~ 2007년 7월 31일 입학금 250,000원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통보)	· 매주 토요일 오후6시(정규반) · 매주 목요일 오후2시(주간반)	통신반은 지방거주자나 출석수강이 어려운 자만



4. 개강일시 불교학과 : 8월 4일 (토) 오후5시 (동산불교회관) → 박종교수, 무진장스님

5. 원서교부처 본대학 사무국 Tel. 02) 732-1206~8 Fax. 732-1207
(우) 110-140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0 http:// www.dongsanbud.net
· 부산 : 부다가야서점 051) 865-4383 · 대구 : 삼영불교서림 053) 425-4097
· 대전 : 보문서점 042) 257-0161 · 광주 : 불일서점 062) 232-7542

※ 특전사항 : · 동국대 불교대학원 입학 추천 · 상기과정을 졸업한자는 포교사 고시를 거쳐 연합포교사 자격을 취득함. (불교학과)

학 과	교 과 목	교 수
불교한문학과(3년)	· 주역(1), 주역(2), 한자학원론, 설문해자, 중국고전(1,2) 한국고전(1) · 불교경전(1,2), 삼국유사(1)	임채우(연세대교수), 심재동(동국대교수), 김형중(동대부고교법사) 심경호(고려대교수), 황안웅(원광대교수)
불교다도학과(3년)	· 한국차문화사(중국,일본,유럽), 제다학(1)(2), 차도문헌, 한국의 헌다례	선혜스님, 박희준교수, 박전열교수, 지운스님, 적경스님
불교미술학과(3년)	· 불교미술, 단청, 불화기본, 여래초, 보살초, 사왕초등	김익홍(전동국대), 법인스님
불교장례문화학과(2년)	· 장례학개론, 장묘제도론, 임종론, 불교상장례 등	김미혜교수
사찰음식문화학과(1년)	· 사찰음식(봄), 사찰음식(여름), 사찰음식(가을), 사찰음식(겨울)	정산스님

모집인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원서교부 · 접수	강의일시 및 장소	비 고
• 불교한문학과(정규통신50명) • 불교다도학과(정규·50명) • 불교미술학과(정규·30명) • 불교장례문화학과(정규30명) • 사찰음식문화학과(정규30명)	불교를 적극 신행하고자 하는 자	· 입학원서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반명함판사진 3매	2007년 7월15일 ~ 2007년 7월 31일 입학금 250,000원	· 매주 목요일 오후7시(한문학과) · 매주 화요일 오후2시(다도학과) · 매주 화요일 오전10시30분(미술학과) · 매주 화요일 오후7시(장례문화학과) · 매주 화요일 오후2시(사찰음식문화학과)	통신반은 지방거주자나 출석수강이 어려운 자만

4. 개강일시 한문학과 : 9월 6일 (목), 다도학과 : 9월 4일 (화), 불교미술학과 : 9월 4일 (화)
불교장례문화학과 : 9월 4일 (화), 사찰음식문화학과 : 9월 4일 (화)

불교교육 전문도량 동산불교대학

"화 내면 나만 손해…그냥 웃을래요"

마음이 바뀌면 인생도 바뀐다

㉓ 택시기사의 화 다스리기

무임승차하는 손님들

조그만 건설업을 하던 S씨는 IMF 후에 사업이 파산하고 간신히 택시영업을 하게 되었다. 처음 하는 일이라 몸도 힘들었으나 손님이 무례하게 굴 때가 가장 견디기 어려웠다.

첫 해 어느 날 아침 첫 손님이 00동까지 가자고 해서 기분이 좋았다. 2만원이 넘게 나오는 거리였기 때문이다. '시작이 좋구나' 하며 달렸다.

그런데 목적지에 오자 손님인 젊은 청년이 하는 말이 "앗, 아저씨. 지갑에 10만원짜리 수표밖에 없네요. 어쩌지요?" 요금은 2만3천원이었는데 아침 첫 손님이라 거스름돈이 있을 리가 없었다. 청년은 "어디 은행 앞에 세워주세요. 현금인출기에서 금방 찾아서 드릴게요" 했다.

조금 가니 365일 코너가 있어 바로 앞에 차를 세웠다. 그는 "아저씨 잠깐만 기다리세요. 금방이에요!"하고 내렸다. S씨는 기다렸다.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나도 청년은 나오지 않았다. 15분이 되자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기계가 고장 난 건 아닐테고 싶어 비상등을 켜 놓고 직접 들어가 보았다. 현금인출기 앞에는 아무도 없었다. 혹시나 해서 은행에도 들어가 보고 주변을 살펴보았으나 청년은 온데 간데 없었다.

순간 '속았구나, 요금 안 내려고 거짓말을 한 거다' 하는 생각이 번쩍 들었다. S씨는 분해서 가슴이 타는 것 같았다. 돈도 아쉬웠지만 믿고 기다리는 자신을 속였다는 사실에 더 화가 났다.

당황하여 잘 아는 고참에게 전화를 했다. "아, 몰랐어? 그런 일 가끔 있지. 속은 거야. 그러니 사람 믿지 말라고." 그의 태연한 답이었다. 그 때부터 너무 화가 나서 차를 마구 몰게 되었다.

다음 손님들에게도 괜히 짜증스런 말이 나갔다. '도대체 택시 한다고 사람을 뭘로 보는 거야!' '사업 망해 이렇게 사는 것도 서러운데' 하며 마치 모든 손님이 자신을 속이고 얕보는 것 같아 점점 화가 치밀었다. 결국 급기야 앞 차를 들이받게 되었고, 결국 그날은 돈 벌기는커녕 헛돈만 더 들게 되었다.

> 무례한 승객 탓에 분노한 택시기사
> 매일 법문 테이프 들으며 마음 정진
> 화 다스리고 자기 마음의 주인으로

내 마음 다스리기

오후에 그냥 집으로 갔다. 아무도 없었다. 방에 허탈하게 누워있는데 아내가 애지중지하는 스님의 법어집이 눈에 띄었다. 앉아서 법어집을 펴보았다. 전에는 이렇게 가슴에 다가온 적이 없었다. 모처럼 열심히 읽게 되었다.

그 후 S씨는 법문 테이프를 매일 차에서 듣게 되었다. '그래, 화를 내봐야 결국 나만 손해다. 마음을 다스리지 않으면 항상 화의 노예가 된다. 일어나는 일은 어쩔 수 없지만 내 마음만큼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내 마음의 주인으로 살아야 한다.'

마음 다스리는 정진을 시작한지 3년이 지난 어느 날. 손님 아주머니가 내릴 때가 되어 갑자기 지갑을 안 가지고 왔다는 것이다. 요금은 3만원도 넘게 나온 터였다.

집에 가서 갖다 준다고 큰 아파트단지 앞에서 내렸다. 잠시만 기다리면 갖고 내려온다더니 30분이 넘어도 소식이 없었다. 이상해서 수위실에 물어보니 아무도 안 들어갔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왠 여자가 좀 전에 수위실 앞을 지나 다른 길로 가더라는 것이었다. 속은 것이었다. 그 아파트에 산다 해도 누군지도 몇 호인지도 모르니 도무지 찾아낼 방법이 없었다.

이제 화 안내요

또 당했구나. S씨는 웃음이 나왔다. "돈요? 물론 아쉽지요. 먹고 살기가 얼마나 힘든데요. 그래도 이젠 제가 변했어요. 화를 안 내려고 합니다. 우선 이미 끝난 일! 화 내봐야 돈 받는 것도 아니고 나만 손해거든요. '방하착', 지난 일은 다 놓아버리라고 했잖아요. 그래도 화가 나면 전생에 내가 그 사람에게 빚진 것 갚았구나 합니다. 그러면 맘이 편해지지요. 아니면 다음 생 언제라도 그가 나에게 갚아야 할 테니 세상 공평하잖아요? 하하하." 웃는 얼굴 속에 삶의 고된 흔적과 진한 아픔이 묻어나왔다.

어렵게 운전을 하며 마음을 다스리려 애써 온 그의 노력 정진에 관세음보살의 자비가 피어나길 바라고 싶다.

■황수경(동국대 선학과 강사)

산행게시판

● **파라미타 전국연합캠프**=파라미타청소년협회가 7월 23~26일 제10회 파라미타 청소년 전국연합캠프를 연다. 금강산과 낙산사 일대에서 펼쳐질 전국연합캠프는 '남북이 하나 되는 통일세상을 위하여'란 주제로 열린다.

● **구룡사 신묘장구대다라니 기도**=서울 구룡사가 매주 토요일 오후 8시~10시 만불보전에서 신묘장구대다라니 기도를 한다. 8월 8일는 수능 입시 100기도에 입제한다. 11월 15일까지 100일 동안 수험생 자녀를 둔 학부모를 위한 수능 입시 100일 기도가 계속된다. (02)575-7766

● **흥국사 불교대학 제6기 금강경 강의**=고양 흥국사가 8월 21일~11월 20일 불교대학 제6기 금강경 강의를 마련한다. 강의는 매주 화요일 오전 11시 30분~오후 1시 이루어지며 수강료는 3만원이다. 한편 8월 8일 오전 10시 2008학년도 대입수능 수험생을 위한 특별 100기도도 준비했다. 11월 15일까지 이어지는 '2008학년도 대입수능시험 원망성취 100일 기도'의 참가비는 15만원이다. (02)381-7970

● **서울 도선사 안동 봉정사 108산사순례**=혜자 스님과 마음으로 찾아 가는 108산사순례기도회는 7월 25일, 26일, 28일 세차례에 걸쳐 안동 청등산 봉정사에서 제1차 순례법회를 봉행한다. 특히, 이번 봉정사 법회는 처음으로 서울 청량리역에서 안동역까지 기차로 이동한다. (02)993-3161

● **나를 찾아가는 어린이 숲속 불교학교**=대구 법왕사가 어린이들을 위해 '나를 찾아가는 어린이 숲속 불교학교'를 운영한다. 7월 22~24일 개최한다. 양평 용문사로 이동해 사찰예절 예불 찬불동요 등을 배우고 108배에도 도전한다. 부처님께 편지쓰기, 요가명상, 부처님 가면 만들기, 장기자랑, OX퀴즈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053)766-3747

● **육지장사 매너 스피치 캠프**=양주 육지장사가 7월 23~26일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매너 스피치 캠프'를 개최한다. '매너 스피치 캠프'에서는 당당한 자기표현, 자기 주도적 학습 등을 통해 매너 스피치법을 훈련한다. (02)352-6406

● **원각사 어린이 여름명상학교**=광주 원각사가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제5회 원각사 어린이 여름명상학교를 운영한다. 어린이 여름명상학교는 7월 23~26일 강원도 삼포와 금강산 일대에서 열린다. (062)223-3168

월암 스님의 禪과 노동 ❹

'청정심'으로 노동금지 계율 극복

(普請法)

혜능의 선사상을 계승한 마조(馬祖)는 이른바 "평상심이 도(平常心是道)"라고 주장하고, 일상생활의 견문각지(見聞覺知)를 떠나지 않고 해탈하는 생활선을 본격적으로 전개했다. 혜능과 마조의 생활선사상과 사원경제의 요구에 의해 백장(百丈) 시대에 와서 부득불 기존의 율사(律寺)로부터 독립한 선종 독자의 교단을 형성하게 된 것이다. 선종이 명실상부한 고유의 독립된 종파로 거듭남으로 해서 거기에 수반되는 의무가 바로 경제적 독립이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일정 부분 단월들의 후원으로 유지 운영하던 교단의 살림살이를 독자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청규(淸規)'를 제정하고, 그 청규에 의한 '보청법(普請法)'을 실시하여 노동생산에 종사하게 된 것이다.

백장은 "마조문하에서 수행할 때도 대중들과 똑같이 행동하였고, 노동에도 문도들과 함께 어렵고 힘든 일을 같이 하였다"(<懷海禪師塔銘> <大正藏> 제48권, p1256下) 라고 전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가 청규에 의한 보청법을 실시하기 이전에 이미 대중이 함께 하는 노동운력을 친히 실천하였음을 보여 주고 있다. 백장의 이러한 노동정신이 훗날 총림의 방장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 일하지 않으면(一日不作), 하루 먹지 말라(一日不食)"는 경구로 대중을 경책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른바 "일일부작, 일일불식"은 선종 청규의 만고 방양이 되어 지금도 선문의 준칙으로 살아있는 것이다.

백장이 청규에 의한 보청법을 실행한 그 의의를 몇 가지 들어보자. 첫째 선종교단의 독립이라 할 수 있다. 종래에 독립된 사원을 갖지 못하고 율종 사원에 공생(共生)함으로 해서 선종 특유의 가풍을 진작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랐던 것이 사실이었다. 그러므로 선종이 독자적으로 독립함으로 해서 선종 가풍에 맞는 자주적 생활과 수행을 할 수 있었음은 선종의 발전에 획기적인 전기를 맞이할 수 있었다.

둘째 사원경제의 독립이다. 기존의 방식에 의해서는 교단의 자율적 유지와 운영이 용이하지 않았다. 선종이 독립하여 선원청규에 의한 보청법을 실시함으로 해서 다소 청빈(淸貧)의 고난은 감수해야 했겠지만 자급자족(自給自足)의 자율경제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러한 자율적 경제의 기반은 이후 당무종(唐武宗)의 회창법난(會昌法難)에도 여타의 종파와 달리 면역력을 발휘하여 타격을 최소화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선종이 신속하게 발전하는 터전을 마련하게 된다.

셋째 생산 노동을 의무적으로 제도화(制度化)함으로 장차 선종의 수행 가풍이 선농겸수(禪農兼修)의 생활선(生活禪), 대중선(大衆禪)으로 발전하게 된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노동과 수행의 병수(幷修)에 그친 것이 아니라, 노동 그 자체가 그대로 수행으로 승화되어 수행과 깨달음의 역동성(力動性)으로 발전시키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면 백장은 종래의 출가 사문의 생산노동 금지의 계율과 사상을 어떻게 극복하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

묻기를, "풀을 베고 나무를 자르며 땅을 개간하는 일은 죄가 되어 과보가 없습니까?"

백장 선사가 대답하기를, "반드시 죄가 된다고 말할 수 없고, 죄가 안 된다고도 말할 수 없다. 유죄와 무죄는 각자(當人)에게 있는 것이다. 만약에 일체 유무(有無) 등의 법에 탐염(貪染)하여 취사의 마음이 있고, 삼구(三句)를 투과(透過)하지 못한다면 이 사람은 죄가 된다. 만약 삼구를 투과하여 마음이 허공과 같이 되고, 또한 허공과 같다는 생각도 없다면, 이 사람은 무죄이다. 또 말하기를, 죄를 짓고 나서 죄가 있다고 보지 않으면 말이 안 되며, 죄를 짓지 않았는데 죄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 또한 말이 안 된다. 율장에서 '본성을 미혹하여 살인을 하거나 서로 살인을 한다 해도 살생죄가 되지 않는다'라고 했거늘, 하물며 선종의 문하에서 그럴 수가 있겠는가. 마음이

> 백장, '보청법' 통해 교단 독립 이끌어
> 독자적 가풍·선종 발전의 전기 마련

허공과 같아서 그 어디에도(一物) 집착하지 않으며 허공과 같다는 생각조차 없는데, 죄가 어디에 자리잡기나 하겠는가."(<百丈廣錄>,<古尊宿語錄>, 中國佛敎典籍選刊, 中華書局 p15~16)

이른바 "풀을 베고 나무를 자르며, 땅을 개간하는 일은 죄가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은 불교 기존의 계율인식이다. 백장은 이 인식을 "자성청정(自性淸淨)"이라는 본원심의 입장에서 청정심의 실천으로 극복하라고 제시하고 있다. 신수와 혜능이 다같이 계(戒)를 "자성청정"으로 해석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범망경>에 설하기를 "금강보계(金剛寶戒)는 일체불(一切佛)의 본원(本源)이며, 일체보살의 본원인 불성종자(佛性種子)이다. 일체중생은 모두 불성이 있다…. 일체중생의 계의 본원은 자성청정(自性淸淨)이다"라고 하였다. 자성이 청정한 입장에서의 계율이란 자성을 미혹하면 번뇌 망념에 집착하므로 유죄가 되며, 자성을 깨달으면 진여본성이 드러남이 되어 무죄가 된다. 그러므로 유죄·무죄는 자성의 미오(迷悟)에 있는 것이다. 백장은 우리의 마음이 유무를 초월한 허공과 같이 자성청정심을 깨달으면 무죄가 된다고 말하고 있다.

위에서 백장이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소위 "삼구투과(三句透過)"인데, 백장의 삼구(三句)는 백장선법의 독특한 용어로써 초선(初善), 중선(中善), 후선(後善)을 말하는 것이다. (계속)

佛心

좋은 인연, 좋은 길로만 인도하는

㉿성불화 만트라

어려운 일도 술술 잘 풀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는 일 마다 꼬이고 안되는 사람이 있다.

주위를 둘러보면 잘못 들여 놓은 발로 끙끙거리는 사람이 한 둘이 아니다. 사업이나 장사를 비롯하여 도박, 교통사고, 실족사고 등 마음은 안하고 안가야지 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끌려 들어간다. 어두운 밤 길도 알고 가면 쉽고 모르고 가면 화를 당하듯 미리 알고 예방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때이다.

좋은 인연, 좋은 길로만 인도하는 성불화 만트라는 몸에 지니고 다니면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천폭륜상(千幅輪相)과 만트라 ㉿가 새겨져 있어 마음의 안정을 주어 바른 판단과 좋은 길로 인도한다. 이왕에 신는 신발 성불화 만트라로 삼재소멸하고 좋은 길로 가서 하는 일 술술 잘 풀린다면 그 보다 더 큰 보시가 있을까 가격 98,000원

산행, 캐주얼, 운동화, 조깅화, 여행용으로도 최고…



■만트라 ㉿는 옴마니 반메훔의 뜻으로 진언비밀이라고도 하며, 원어를 음사(音寫)하여 이를 많이 외우면 재액이 물러가고 공덕이 쌓인다고 한다.

■**만트라 ㉿옴마니 반메훔 성불화는!**

- 용천과 아치를 받쳐주는 편안함
- 신고벗기 편리한 원터치 신발끈
- 미끄러지지 않는 논슬립 밑창
- 땀이 잘 차지 않는 뛰어난 통풍성
- 몸무게를 분산시켜 주는 신발내부구조
- 가볍고 푹신한 착용감

성불화 보급처 080-775-7575
서울 742-9816 부산 853-4616
농협 935-12-355423 박정미

라꾸라꾸 침대

접이식 라꾸라꾸 온열침대

국내 접이식침대의 대명사 라꾸라꾸에서는 2007년형 모델을 출시하고 할인판매에 돌입했다. 라꾸라꾸는 접이식 침대의 최대장점인 **이동성과 공간활용성과 경제적인면등을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침대란 오랜시간 사용하고 편안한 수면을 취하는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중요한 가구이기 때문에 편안함과 안락함이 선행되어야 하고 얼마나 수면건강에 도움이 되며 안전한 자재를 사용하였는가 하는 점과 공간활용에 필요한 기능성과 이동성을 중시하여 살펴보아야 할것이다. 특히 이제품은 **매트의 재질을 항균, 방취처리**를 하여 매우 위생적이어서 병원이나 의원 등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판매가격은 온열기능이 내장된 1인용 싱글은189,000원 2인용은 218,000원이며 일반형은 1인용138,000원 2인용은 158,000원에 특별할인판매 하고 있다.



작은방, 원룸, 오피스텔, 학생용, 하숙방, 경비실, 현장, 병원, 야외용으로 최고입니다.

▶1인용 : 83cm×198cm×31cm
▶2인용 :123cm×198cm×31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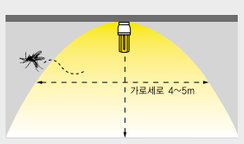
구입문의 : **080-788-7878**
농 협 935-12-355423 박정미

모기, 깔다구 퇴치램프!

여름이면 모기, 깔다구, 야행성 날벌레로 고생하는 사람이 수 없이 많다. 가려움으로 살이 짓무르는가 하면 모기, 깔다구로 야외 영업장에서는 손님받기도 힘들다. 야외나 실내에서 모기약을 치거나 향을 피우면 건강에도 나쁘고 아이들이나 알레르기, 호흡기가 안 좋은 사람은 여간 고통스러운 일이 아니다. 한중 합작으로 에다라이트에서 모기, 깔다구, 날벌레를 퇴치하는 전구를 개발하여 큰 인기를 얻고 있다.

모기,전구만 바꿔끼우면 간단히 해결

실내 또는 야외활동이나 야외영업장에서 간단히 전구만 바꿔끼우면 절전은 물론 반경 4~5m에는 야간해충이 얼씬도 않는다. 이는 태양광을 이용한 원리로 야간해충이 극도로 싫어하는 가시광선의 파장 때문이다. 식당, 가든, 팬션, 전원주택, 야외레스토랑 포장마차, 우사, 축사 등 어디에서나 사용가능하며 보기에도 좋아 야간 조명등으로도 효과만점이다. 가격은 25W는 22,000원, 55W는 48,000원 (택배비 별도)



[모기퇴치 범위]

●**사용장소** : 사찰, 식당, 가든, 팬션, 전원주택, 야외레스토랑, 포장마차, 우사, 축사, 현관, 거실, 아이방, 놀이방, 도서관 공원 등

구입문의 **080-307-3070**
농협 1285-02-011378 이현실

옻

오늘도 기분 좋은 안심참옻! 「천하무적」

옻가네 토종참옻

- 몸이 무겁고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다구요?
- 한국 식품연구원 개발
- 서울대학교 안전성 임상완료

옻이 좋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아무거나 먹을 수는 없겠지요?

옻은 한번만 먹어도 몸이 따뜻해지고 속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옻이 좋은줄은 알지만 옻탈 걱정때문에 망설이는 분들을 위해 누구나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과학적인 연구와 현대기술로 새롭게 개발된 참옻제품이 출시되면서 술을 자주 드시는 분이나 몸이 무거워 아침에 일어나기 힘든분들로 부터 큰 인기를 얻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전통식품 현대화를 위한 농림부 국책사업의 일환으로 한국 식품연구원(정부출연기관임) 성기승 박사 외 8명이 3년간 연구 개발한 신기술로서 서울대학교 생명공학연구소에서 2년여에 걸쳐 안전성 임상실험을 완료하였다.

몸이 따뜻해지고 속이 편안 …

몸이 무거워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거나 술, 담배를 자주하시는 분, 운동 또는 공부로 힘든 아이들, 조금만 움직여도 만사 귀찮아 하는 분은 일주일만 먹어도 자신이 직접 느낄 수 있다고 한다. 남녀 누구나 간편하게 드실 수 있는 본 제품은 일반형과 더욱 진하게 만든 고급형이 있다.

언론보도자료

"인정받은 만큼 더욱 더 노력 하겠습니다."

- MBC **고향은 지금** – 옻 안타는 참옻 최초 개발
- KBS **고향의 아침** – 참옻은 몸을 따뜻하게 한다
- SBS **한선교 정은아의 좋은아침** – 옻 탈 걱정 없는 참옻 개발
- 2003.11 **한국경제** – 참옻 식품을 아십니까?
- 2003.11 **동아일보** – 옻 안타는 참옻
- 2003.10 **스포츠투데이** – 참옻 부작용 걱정마. 난 먹어!
- 2003.11 **스포츠조선** – 부작용 없는 옻, 서울대 임상완료
- ▶2006.6 KBS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잘쓰면 약이 되는 옻 건강법 협찬
- ▶2006.8 20 KBS **싱싱일요일** – 계절의 보석 옻 협찬
- ▶2006.10.31 KBS **무한지대큐** – 협찬



• 내용량 : 1박스(80㎖ ×60포) 2개월분
• 1병(1.5ℓ)

구입땐 꼭 확인을 …

농림부 국책사업의 일환으로 한국 식품연구원에서 3년간 연구 개발한 본 제품의 원료는 일반시중 제품보다 신뢰성이 뛰어나 많은 고객분들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상담문의 : 옻가네 참옻농원
무료전화 : **080-838-3366**



■ 집중탐구- '인성교육' 불교에 답 있다

"마음의 변화 스스로 느껴요"



소하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명상을 통해 '참나'를 찾고 있다.

3, 한나무 인성교육 이렇게…

"마음공부는 한 번 경험하기가 힘들어요. 하지만 그 효과를 알면 누구나 하게 될 걸요? 이유요? 마음이 편안해지거든요."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의 이야기다. 그것도 불교와 아무 상관없는. 사실 이런 말은 스님이나 신심 깊은 불자나 할 수 있다 생각하기 십상이다. 불자도 아닌 평범한 중학생이 마음공부를 하고, 다른 사람에게 권유도 한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불교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취재하면서 기자는 반신반의했다. 과연 불자도 아닌 어린이청소년에게 불교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적용시킨다는 것이 가능할까. 그저 선생님이 시키는 것이라 시늉만 하는 것은 아닐까. 그들에게 인성교육이라는 것이 와 닿기나 할까.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다. 아이들은 오히려 자신에게 맞는 마음공부를 찾아가고 있었다. 성인보다 훨씬 유연하게 받아들이고 소화시키는 아이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광명시 소하중학교 3학년인 보라와 민지는 아침마다 명상을 한다. 깊게 호흡하고, 끊임없이 떠오르는 갖가지 생각을 정리하고 부정적인 마음을 긍정적으로 다스린다. 그러면서 마음속 '참나'를 찾는다. 생각이 정리되고 차분하게 가라앉으면 두 아이는 마음일기에 자신의 변화된 마음을 기록해둔다.

청소년기 아이들은 사실 가만히 놓아두기만 해도 혼란상태에 빠져든다. 요즘 학생들은 더구나 걸핏하면 바뀌는 입시제도에 따라가랴, 가족 · 친구 · 이성문제 때문에 고민하랴 이래저래 마음이 바쁘다.

보라와 민지도 그랬다. 하지만 이들은 마음공부를 통해 자신에게 닥친 어려움들을 잘 헤쳐 나갈 수 있었다고 한다.

"제 스스로 생각해도 긍정적으로 바뀐 것 같아요. 예전에는 어떤 일의 결과가 나쁠 땐 항상 그 결과만 봤어요. 그런데 이제는 원인을 찾게 됐어요. 그리고는 찬찬히 생각해봐요."(보라)

"초등학교 때는 친구들에게 생각 없이 말을 한 것 같아요. 이젠 말할 때 한 번 더 생각해요. 자신을 조금 더 조절할 수 있게 됐고요. 그러다 보니 친구들하고 사이가 좋아졌어요."(민지)

이제 친구들과 별다른 갈등이 없다는 두 아이 모두 얼굴이 참 맑다. 마음공부를 통해 한걸음씩 양보하다 보니 서로 싸울 일이 없어졌다며 까르르 웃는다.

아이들은 얼마 전 기말고사를 치렀다. 학생이다 보니 시험성적이 잘 나오기를 바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한시가 바쁜 시험 때도 과연 마음공부를 할까.

"1학년 땐 그냥 공부만 했어요. 마음공부가 무슨 도움이 될까, 의심스러웠기도 하고요. 한 번 해보고 결과가 잘 나오면 계속 해야겠다 생각했는데, 정말 다르더라고요. 시험 전 쉬는 시간 10분마다 마음속의 '참나'에게 말을 해요. '참나야, 이제 모든 것을 너에게 맡긴다'라고 하면서 마음을 차분하게 가다듬어요."(보라)

"저는 시험 치기 일주일 전에 집에서 조용히 앉아서 길게 마음을 들여다봐요. 저도 제 마음을 별로 믿지 않았어요. 그러다 한 번 시험치기 전에 혼자 공부하면서 '참나'에게 맡겼더니 불안감도 사라지고 공부가 더 잘 되더라고요."(민지)

처음에는 이들도 마음공부가 썩 내키지 않았다고 한다. 나름대로 마음공부에 대한 확신이 생기기 전까지는 마음을 움직이지 않았다. 아이들은 그 시기를 중학교 2학년 중반, 즉 마음공부를 접한 지 1년 6개월 정도 지난 시점이라 한다.

"처음에는 반항했죠. '왜 이런 걸 해야 하나, 수업시간에 진도나 나가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점차 해보니까 좋은 거에요."(보라)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선생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가 다 맞는 말씀이더라고요."(민지)

마음공부의 위력(?)을 믿게 된 이후에는 식구들에게까지 마음공부의 결과가 뻗어갔다.

"언니한테 제가 시범을 보여줬어요. 저희 언니는 지금 회사원인데요, 가끔 저랑 같이 앉아서 마음공부해요. 언니도 좋다고 하더라고요."(보라)

"전 식구들하고 대화를 많이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마음공부 하고나서는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자연스럽게 말하게 되고 3살 아래 동생한테도 마음을 열게 됐어요."(민지)

마음공부를 하지 않는 친구들에게도 권할 수 있냐고 물어보니 둘 다 자신 있게 "그렇다"고 대답한다.

"선생님께서 똑같이 마음공부를 시키셔도 하지 않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신기한 것이, 잘 하는 애들끼리는 서로 그게 보여요. 그래서 하지 않는 친구들을 보면 안타까워요"(보라)

"친구들을 못살게 구는 애들을 보면 함께 마음공부 하자고 말하고 싶어요."(민지)

기자가 만난 보라와 민지 외에도 소하중학교의 많은 아이들이 마음공부를 하고 있다. 또 그들이 마음일기를 통해 보여준 성과는 기대이상이다. 타종교인 아이들도 자신의 믿음 속에서 '참나'를 찾을 수 있어 만족한다는 반응이었다.

여기에는 도덕과 정여순 선생님의 숨은 노력이 있었다. 정 선생님은 불교 인성교육 프로그램인 '한나무 인성교육프로그램'을 연수한 후 수업시간 또는 조회시간을 이용해 3년 동안 인성교육을 시행해 왔다.

"진짜 마음을 볼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인간의 기본을 중시하는 '도덕' 교과와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마음'이 잘 결합되어서 좀 더 성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남은 것은 어른들의 몫이다. 아이들이 올바른 마음공부를 계속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그것은 '마음공부'를 화두로 하는 불교계가 종교를 넘어, 어린이청소년들에게 풀어내야 할 당연한 과제다.

글 · 사진= 김강진 객원기자

-민지-
"말할 때 한 번 더 생각하니 친구들과 사이 좋아졌어요"

-보라-
"제 마음 별로 믿지 않았는데 참나에 맡기니 공부 잘돼요"



보라가 '마음일기'를 쓰며 마음공부에 몰두하고 있다.

■ 따라해 보세요!

<보라와 민지의 마음공부 방법>

1. 자신이 집중 잘 되는 곳을 한 군데 정해요.
2. 심호흡을 5회~10회 정도 하면서 호흡에 집중해요.
3. 그 때 떠오르는 생각이나 감정을 지켜보고 그 마음을 그대로 인정해주세요.
4. 마음을 긍정적으로 만들려 노력하면서 마음의 주인이 되세요.
5. 다시 지켜보면서 마음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관찰하세요.
6. 그 마음을 노트에 차곡차곡 기록해두세요. (혼자 하는 것 보다 마음공부에 대해 잘 아는 분께 여쭤보는 것이 더 좋아요)

어린이/청소년 정보마당

전남 영광에서는
한국환경교육협회 주최로 농어촌의 실생활을 체험하고,농어촌 청소년들과의 교류활동 및 봉사활동 등을 경험하는 '농어촌체험교류활동'이 열린다. 기간은 7월 28일~31일(초등학생), 8월 2일~5일(중고생) 이다. (02)571-1195

전남 신안에서는
'새롭게 쓰는 로빈슨크루소 체험캠프'가 7월 23일~26일 열린다.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이번 캠프에서는 무인도에서 로빈슨크루소처럼 야영하며 섬지도만들기, 뗏목만들기, 모닥불로 밥짓기, 낚시, 응급처치법 등을 배울 수 있다. 자세한 사항 및 참가 문의 홈페이지(www.greenvi.or.kr)참고.

충북 괴산 화양청소년문화센터에서는
연극, 영상, 풍물, 방송, 도서에 관한 분야별 강의 및 관계형성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는 '청소년 문화예술아카데미'가 7월 28일~29일 진행된다. 참가비 5000원. (02)737-1103

경북 경산 시민회관대강당에서는
7월 19일~8월 31일 매주 목 · 금요일 저녁 7시에 '한여름밤의 영화축제'를 이어간다. '한반도', '캐리비안의 해적', '괴물' 등 온가족이 즐길 수 있는 화제작들이 계속 상영될 예정이다. (053)801-4087

제주도 산지천에서는
'산지천 예술마당'이 8월 26일 까지 매주 금 · 토요일마다 계속된다. 이 행사에서는 풍물놀이를 비롯한 국악과 서양음악을 함께 즐길 수 있고 마술, 무용, 재즈 댄스 등의 볼거리도 함께 제공된다. (064)728-2783

※정보마당에 소식 전할 학교나 단체는 (02)2004-8282로 연락주세요

세계 최고 정신 지도자 고급 과정

참선공지도자 **神 임상도통사** **神 치유의통사**

깨달음(도통)과 神通(신통) · 醫通(의통) · 신병(빙의 · 해리) 기적의 치유법 · 마음조정법 고급 과정모집

● **환혼동(幻魂動) :** 조상 영가와 일체객귀신이 魂을 바꾸어 각종 신병(神病)과 실패와 이혼 불상사가 일어난다. 아뢰야식(영혼如來藏)에서 불생불멸의 신 비법 전수. 무량한 功德 비법 전수.

● **神임상도통사 :** 질병치유를 목적으로 영혼에 의지하여 전생체험, 전생치유법, 내생체험, 내생치유법, 신령의 세계체험, 빙의.해리치유법. 암질환치유법, 조상영가천도비법 등 기적의 치유법 전수.

● **참선공(參禪空)지도자 :** 영혼과 육신이 神人合一하여 무한한 대우주의 힘이 골수와 근육 신경, 세포조직에 들어가 머리부터 손 발 끝까지 강력한 진동으로 스스로 각종 질병을 치유 정화하고 내공 외공을 소유하며 완전한 깨달음에 도달한다.

● **神치유의통사 :** 관법에 의지하여 영혼의식 속에서 정신적 육체적 심리적 고통(불치병)을 벗어나 건강한 육체와 신령한 영혼을 소유한다. 특별한 자비의 손 치유법 개공 및 전수.



총재 무공 합장

지도자고급과정
● 입제일 :
2007년 7월 21일 (토요반)
14:00 - 18:00 (10회 과정)

입 금 계 좌
조흥은행 995-04-648955
(예금주 : 이영하)

전 수 비 200만원

불교심리철학	서양 심리철학
사마타 수행법	위빠사나 수행법
조상 천도 해탈 비법	빙의 · 해리 치유 비법
자비손 치유 비법	전생 치유 비법
음성 내공 비법	내생 치유 비법
신선 도인 비법	칠차원 도인 비법
조상영가 보는법	육효 신 비법

◆ **참선공의식 사례**
① 48세 여성이 이렇다할 이유 없이 2년 동안 목이 180°돌아가서 한의원,병원,기공,굿,각종 기도를 하였으나 돌 아 오지 않았다. 그러나 간단하게 참선공 영혼의식에 의해 단10분만에 정상으로 돌아왔다.
② 60세 중진 스님은 젊어서부터 230mmHg의 악성 고혈압 환자였다. 참선공의식 10분 만에 정상 혈압으로 돌아와서 현재는 건강하게 포교 활동을 하신다.
③ 28세 미모의 여성이 원인 모를 이유로 7살부터 오른 쪽 다리가 통증이 심하여 20년 동안 걷지 못하였다. 그러나 간단히 참선공의식후 건강하게 통증 없이 잘 걸어갔다
④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 중2때부터 전혀 물도 못 마시고 얼굴에 여드름 피부각질이 만성화 되어 병원 등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전혀 효과가 없었다. 그러나 간단하게 참선공의식 후 깨끗하게 피부각질이 사라지고 부드럽고 윤기 있는 얼굴로 바뀌었다.
⑤ 50세 중진 스님은 영가가 빙의 되어 눈에 뱀이 보이고 귀에서는 소녀의 말이 들리고 양다리와 양손이 항상 불안하게 떨리면서 불안하였다. 그러나 간단하게 참선공의식 후 증세가 완쾌되었다.

세계최고정신지도자협회 국제참선공지도자협회

● 전화 : 02)383-1319 / 011-379-1319
● 주소 : 서울 은평구 녹번동 55-9 (녹번역 4번)

우리말 꼭꼭 씹어 먹기

달포정도만 지나면 여러분들은 여름방학을 맞이하겠네요. 우리말 실력도 늘려볼 겸 우리나라 단편소설을 읽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지금은 선풍기나 에어콘에 무더위의 멋이 사라졌어요. 예전에는 더우면 등목을 하고 부채로 부치거나 발을 내려놓고 문을 열면 바람이 시원하게 들어왔지요. 잘 익은 수박 한 덩이를 찬 우물물에 담갔다가 나눠먹으면 더위가 물러나곤 했어요. 저녁이면 멍석을 깔고 옥수수를 쪄먹으며 사금파리로 그림을 그리거나 글씨놀이를 했지요. 아, 그 시절이 참 그리워요.

달포 : 한 달이 조금 넘는 기간. (달포 전에 보았을 때보다 아들의 얼굴은 많이 상해 있었다.)(한수산<부초>)

마수걸이 : 장사 하는 사람들이 맨 처음으로 물건을 파는 것을 뜻하기도 하고 맨 처음으로 부딪는 일을 의미하기도 해요. (마수걸이에 수월치 아니한 태령을 만나서 얼마만큼 난색이 있어 하는 죽헌을 가다듬어서…)(최남선<심춘순례>)

사금파리 : 사기그릇의 깨어진 작은 조각 (팽이치기에 싫증이 난 아이는 땅바닥에 쭈그리고 앉아서 사금파리로 동그라미를 그리고 있었다.)(박경리<토지>)

희나리 : 채 마르지 아니한 장작. (장작개비의 희나리가 터지는지 탁탁 튀는 소리가 드럼통을 개조해 만든 화덕 문틈에서 새 나왔다).(김소진<그리운 동방>)

안명옥(시인 · 고양예고 문예창작반 강사)

돈 보다 중요한 것은 순수한 마음 아닐까요!

논술의 자신감
이 책은 꼭 읽어야 해

계용묵 作 '백치아다다'

1930년대 평안도 어느 마을과 신미도를 배경으로 육체적으로는 정상이나 돈의 욕망에 빠진 남자와 비록 백치에 벙어리이지만 순수한 정신을 지닌 아다다의 대비를 통해 황금만능에 물든 인간들을 비판하고 있는 계용묵의 대표적인 단편소설이지요. 전지적 작가 시점의 이 소설은 물질적 풍요와 인간적 행복을 생각하게 하죠. 물질적 풍요보다는 정신적 행복을 갈망하는 한 여인의 삶과 그 비극적 운명을 통해 황금만능 세태에 대한 비판과 휴머니즘을 나타내고자 한 것이죠. 작가가 주인공을 백치와 벙어리로 설정한 의도를 파악하며 읽어보면 더 작가의 의도를 알 수 있죠.

황금만능에 물든 인간 비판
인물 실명 '확실이' 비극 암시
'백치' 는 순수한 인간성 표현

벙어리 처녀 아다다는 지참금을 가지고 가난한 남자에게 시집을 간다. 가난하게 지내던 시집 식구들은 처음에는 아다다에게 잘 대해 주었으나, 그녀가 지참금으로 가지고 간 논을 밑천으로 재산을 불려 생활에 여유가 생기자 남편은 벙어리 아내를 구박한다. 남편은 추수한 돈을 주색으로 탕진하고 큰 돈을 벌어서 마음에 드는 여자를 데려와서 살지만 시댁 식구은 말리지 않고 오히려 아다다를 구박한다. 결국, 아다다는 남편에게 소박을 맞고 친정에서마저도 버림을 받는다.

그 후 아다다는 집을 나와 자신을 사랑해주는 수룡이라는 총각과 섬으로 도망쳐 살게 되고, 난생 처음으로 행복을 느낀다. 어느 날 수룡이가 자랑스럽게 농사지을 땅 살 돈을 아다다에게 보여준다. 아다다는 돈이 없는 줄 알았던 수룡에게 돈이 많음을 알고, 불행의 씨앗으로 느껴지는 돈을 바다에 던져 버린다.

돈이야말로 자기가 예전에 사랑을 잃게 된 원인이었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러나 돈이 미처 떠내려가기 전에 아다다를 뒤쫓아온 수룡이는 바다에 떠내려가는 돈을 건지려고 노력하지만 실패한다. 그가 벌벌 떨고 있는 아다다를 사정없이 발길로 차자 아다다는 언덕에서 굴러 물속에 잠겨 죽고 만다. 수룡이는 물속에서 영원히 잠들려는 아다다를 못 잊어 함인지, 흘러 버린 돈이 차마 아까워서인지 주먹을 부르쥔 채 굽실거리는 물결만을 쏘아보고 있다.

1935년 9월 <조선 문단>에 발표된 이 작품은 백치이고 벙어리인 '아다다' 라는 여인이 구박과 천대를 받으며 살지만 정신적 행복을 추구하다가 죽게 되는 비극적인 인생을 보여 주고 있지요. '아다다' 는 벙어리이며 백치인 여인으로 '확실이' 라는 이름이 있으나 '아다다' 소리만 발음되기에 별칭으로 붙여진 이름이죠. 이는 그녀가 정상적인 인간 대우를 받지 못한다는 것을 나타내죠. 아다다는 육체적으로는 불구이지만, 정상인 사람보다 더 순수한 인간성을 지니고 있음을 드러내기 위하여 선택된 이름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지요? 백치이고 벙어리인 인물의 실명이 '확실이' 라는 것은 아이러니로 결국 이 작품이 비극임을 암시하죠. 또한 아다다를 벙어리이자 백치로 설정한 것은 물질에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인간성을 나타내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죠.

이 작품 속의 인물은 '돈' 을 중심으로 대립된 성격을 보이죠. 아다다는 돈보다는 사랑을 추구하는 인물이죠. 수룡은 돈을 벌어 행복하게 살려는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아다다가 돈을 버려 자신의 꿈이 좌절되자 아내를 죽이는 부정적 인물로 묘사되죠. 작가는 아다다를 통해 물질 위주의 세상에 대한 비판을 시도하고 있어요. 전 남편이나 수룡이가 아다다 그녀 자체를 사랑하지 않았지만, 아다다는 순수한 마음으로 물질보다 더 중요한 사랑을 알고 작은 행복과 애정을 원한 것이죠.

아다다의 순수성이 더 비극적으로 느껴져 마음 아프게 하네요. '돈과 행복' 에 대한 주제의 논술 문제가 나온다면, 이 작품을 떠올릴 수 있겠죠?

안명옥(시인 · 고양예고 문예창작반 강사)



새싹 불자를 키웁시다

조계종 포교원 ·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우리들 생각

'우리들의 생각' 코너는 사찰 게시판에 올라온 어린이,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담는 공간입니다. 불교계에 바라는 점, 입시상담과 교우문제 등 주제 · 형식을 벗어나 여러분이 직접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접수 e-메일:rollingh@paran.com)

폼 나는 옷 많이 사 입고 싶어요

저희 집은 돈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폼 나는 옷도 못 입어요. 전 바지 욕심이 좀 많은데 못 사서 짜증나요. 멋진 옷이 나올 때 마다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ID:돈많이벌고싶어)

쉽게 집착하면 쉽게 싫증나 꼭 필요한지 생각해 보세요

물건을 사고 버리는 모습 속에는 내 마음가짐과 삶의 태도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꼭 필요한 물건을 잘 조사해서 현명하게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 즉흥적으로 마구 사들였다가 얼마 후에 필요 없다고 다시 내다팔거나 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사더라도 만족하며 오래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건이 아니라 그 물건에 대해 우리들이 일으키는 마음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기지요. 특히 무언가에 집착하여 물건을 사들일수록, 싫증내기도 쉽습니다. 인터넷에서 '쇼핑중독' 이라고 부르는 경우들이 이에 해당하겠지요. 이런 상태에서는 눈에 보이는 대로 사들이고, 물건이 손에 들어오면 마음에 안 든다고 투정합니다.

마음이 이렇게 흘러가기 시작한다면, 아마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비슷해질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스님은 다른 절에서 이번 초파일을 지냈습니다. 거기에서 어린이 학생 어른들과 함께 종이를 자르고 접고 붙여가며 무언가를 해야 할 일이 있었지요. 일을 다 마치고 종이조각들을 휴지통에 버리려고 했지요. 그 때 어느 어머니가 "스님, 그 종이 제게 주세요." "왜 그러시지요?" "그건 저희 애들에게 아주 좋은 장난감이거든요"라면서 구겨진 종이조각들을 소중하게 펼쳐서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 모습과 마음가짐이 참 남다르다 싶었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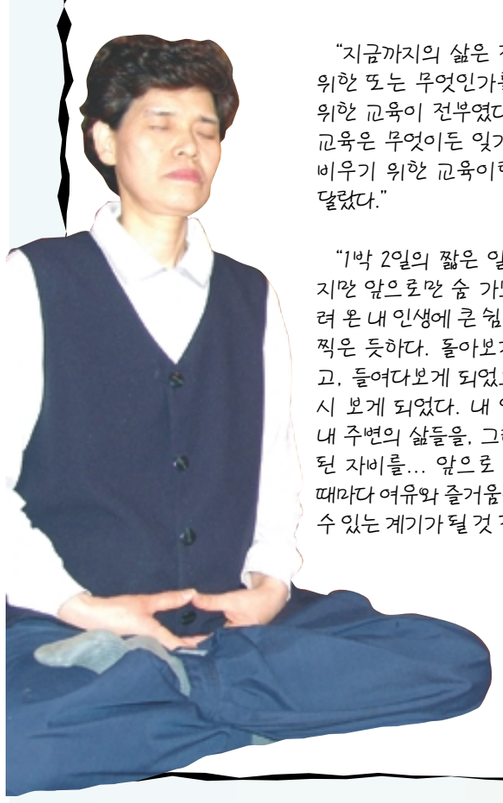
오늘도 그 어머니를 생각해봅니다. 똑같은 물건을 쓰레기로 보는 마음과 귀한 장난감으로 보는 마음이 어떻게 다를지, 그리고 그런 마음가짐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한다면 그 삶이 얼마나 행복할 것인지….

(옥천암 청소년부 지도법사 운산 스님)





마음 훌훌 비워내고 '참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지금까지의 삶은 잘 살기 위한 또는 무엇인가를 넣기 위한 교육이 전부였다. 이번 교육은 무엇이든 잊기 위한, 비우기 위한 교육이란 점이 달랐다."

"1박 2일의 짧은 일정이었지만 앞으로만 숨 가쁘게 달려 온 내 인생에 큰 쉼표 하나 찍은 듯하다. 돌아보게 하였고, 들여다보게 되었으며 다시 보게 되었다. 내 인생을, 내 주변의 삶들을, 그리고 참 된 자비를… 앞으로 막막할 때마다 여유와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다."

고마워요 자비명상
마가 스님 · 이주영 지음
불광출판사 펴냄 | 1만2000원



자비명상 프로그램 이론·효과 수록
진행자를 위한 상세한 지도방법도

마가 스님(만일사 주지, 중앙대 겸임교수)이 진행하는 자비명상 템플스테이에 참가했던 사람들의 소감이다. 이들의 짧은 소감을 읽는 것만으로도 스스로의 마음이 정화되는 것을 느낀다. 자기를 들여다본다는 것, 지나간 시간을 돌아보고 다가 올 시간을 희망으로 기다리고 현재의 시간에 당당하다는 것 이상의 행복이 있을까? 자비명상에 참가한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행복의 주인공이 된데 대해 한없이 감사한다.

자비명상 지도자로 가장 이름이 난 마가 스님. 스님은 2003년부터 중앙대에서 교양과목 '내 마음 바로보기'를 지도하고 있다. 자비명상을 근간으로 하는 이 강의는 3초 만에 수강신청이 마감 된다는 '전설의 강의'가 됐다. 덕분에 스님은 학교로부터 4년 연속 최우수강사로 선정되기도 했다.

공주 마곡사에서 5년 전부터 자비명상 템플스테이를 시작하여 템플스테이의 역사를 새로 쓰게 한 장본인도 마가 스님이다. 참가자들의 마음을 말끔하게 씻어 주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입소문을 탔다. 한 프로그램에 연인원 3000명이 동참할 정도였다.

마가 스님이 자비명상의 파트너 이주영씨와 함께 세 번째 펴낸 <고마워요 자비명상>은 자비명상 프로그램의 본질과 지도방법이 상세하게 기록돼 있다. 자비명상이 뭔지 왜 해야 하는 지 하고나면 어떤 느낌이 드는지 등에 대한 의문은 제1부 '자비명상 프로그램 참가자를 위하여'에 고스란히 나와 있다. 2부 '자비명상 프로그램의 토대'에서는 자비명상의 실질적인 이론과 그 배경 효과 등이 자세히 수록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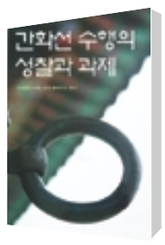
무엇보다 이 책의 진가는 제3부 '자비명상 진행자를 위한 안내'에서 발휘된다. 자비명상에서 응용되는 다양한 방법들과 그에 따른 진행 요령은 물론 특징과 주의할 점 등이 마가 스님의 오랜 경험을 통해 체계적으로 정리됐다. 자비명상 일정표, 칭찬 연습지, 느낌노트 등 부록도 진행자와 참가자들의 마음을 털어내고 비워내는데 필수품이다.

한편, 마가 스님은 7월 16일 광주 원각사를 시작으로 대전 백제불교대학(17일), 울산 월봉사(28일 오전10시) 부산 홍법사(28일 오후7시) 인천 부루나포교원(8월 12일) 춘천 봉덕사(13일) 서울 불광사(26일) 아산 룸비니 유치원(9월5일) 천안 부루나 유치원(12일) 등 전국에서 자비 명상 강의를 갖는다.(02)420-3200

임연태 기자 mian1@hanmail.net

'간화선' 수행에 대한 고찰

변희욱 박사 논문 등 6편 책으로 엮어



간화선 수행의 성찰과 과제
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 편저
조계종 출판사 펴냄 | 1만원

조계종 불학연구소는 2006년 9월 20일 <간화선의 제창자 대혜종고, 그는 누구인가>를 시작으로 '간화선'을 주제로 한 세 차례의 세미나를 열었다. 여기서 6개의 논문이 발표됐는데 이를 수정 보완해 묶은 책이 바로 <간화선 수행의 성찰과 과제>이다.

이 책은 간화선의 제창자인 대혜종고 선사의 생애와 사상을 재조명 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간화선 정립의 불교사상적 배경도 고찰했다. 또한 현재 조계종 간화선 수행의 문제점과 대중화를 위한 과제를 상세하게 진단했다.

변희욱 박사(서울대)는 대혜 스님이 활동했던 송대(宋代)에 수많은 사대부들이 간화선 수행을 했다는 것을 밝혀냈다. 이덕진 교수(창원전문대)는 '간화선 정립의 불교사상적 배경-대혜선사의 <서장>'을 주제로 한 논문을 통해 간화선이 승속에 구별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서재영 박사(동국대)는 "현 의식은 간화선 대중화에 걸림돌이 된다"면서 "종단 차원에서 재가자 전용 수행관 건립과 운영,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산 스님(중앙승가대 교수)은 "지금과 같은 안이한 태도로는 간화선을 국제화 할 수 없다"며 "실천적 과제의 해결과 간화선 국제화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이 뒷받침 될 필요성이 있다"고 조언했다.

김주일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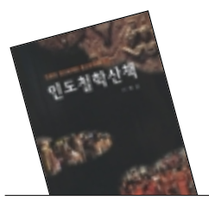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정진	지광	랜덤하우스
2	무문관에서 꽃이 되다	최만희 편저	운주사
3	하루 108배 내몸을 살리는 10분의 기적	김재성	아롬미디어
4	언젠가 이 세상에 없을 당신을 사랑합니다	월호	마음의 숲
5	안거	봉문	법보신문사
6	도를 찾아 떠난 고양이	앙리 브뤼넬	솔바람
7	답답하면 물어라	법륜	정토
8	은둔	조연현	오래된 미래
9	바랑 속 이야기	동학사편집실	운주사
10	인연법과 마음공부	혜국	효림

※불서총판 운주사 제공 (02)3672-7181



술술 읽히는 인도철학 이야기



인도철학산책
이태승 지음
정우서적 펴냄
8000원

철학 개론서 하면 수백페이지 분량의 두꺼운 책을 연상하기 쉽다. 하지만 이 책은 독자가 부담 없이 가볍게 접근할 수 있도록 부피를 줄이고 인도 철학 역사를 읽기 쉽도록 총 30장으로 나눠 정리했다.

저자는 인도철학을 대할 때 "다양하게 전개되는 인간의 정신체계를 살펴보면 인간의 사고방식중 인도철학에서 논의되는 정신체계와 다른 것이 과연 존재할까하는 의문이 들 정도"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인도 철학은 어떤 배경에서 탄생했을까?

일찍부터 제사의례를 바탕으로 종교문화를 발전시켜 온 인도를 저자는 종교와 철학이 어우러진 '정교일치 사회'로 보고 있다. 이런 인도는 "다양하게 나타난 인간의 정신세계가 종교문화의 규범으로 실제 생활속에서 살아 있으며, 사회윤리 자체가 종교와 밀접하게 관련된 곳"이라고 저자는 설명한다.

인도 철학은 이러한 사회적 환경에서 발생한 철학을 가리키며, 베다와 우파니샤드에 근거한 힌두 철학과 그 철학적 근거를 달리하거나 또는 힌두철학을 비판하며 등장한 불교와 자이나교, 유물론 등 인도에서 발생하고 세계로 전파된 종교와 철학 사상까지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고 저자는 말한다.

이 책은 이처럼 다양한 철학사상의 생성과 소멸, 서로간의 논쟁과 융합, 영향을 주고 받는 역사를 인도철학이라는 거대한 흐름속에서 파악할 수 있도록 간단하고 쉽게 설명하고 있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마음이 고요해지는 편지글

산빛 이야기
정목 스님 지음
바움 펴냄
9500원



서울의 평범한 개신교 가정에서 태어나 평범한 어린 시절을 보내던 소녀는 마음속 멈추지 않는 질문이 있었다. '왜 쟤는 나무고 나는 사람이지?' '왜 꽃잎이 지는데 내 가슴이 울렁댈까'. 친구들과 어울려도 크게 즐겁거나 재미있지 않았다. 열여섯 살, 무작정 찾아간 인천 용화사에서 한 스님을 만났다. 송담 스님이었다. 스님은 소녀에게 무슨 일로 찾아왔느냐고 물었다. 소녀는 "공부도 재미없고 왜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고 답답해서 왔다"고 했다. 그 만남을 계기로 소녀는 절 사람이 되기로 결심했다. 마음속에 오래 품어온 의문을 이곳에서라면 해결할 수 있겠다 싶었다. 그 소녀가 바로 불교방송 프로그램 진행자로 활동하는 정목 스님이다.

이 책은 스님이 출가시절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동안 맺었던 인연들을 돌아보며 쓴 편지글 형식의 산문집이다. 수녀(천주교 · 성공회), 비구니(불교), 정녀(원불교 여자 교무) 등 여성 종교인들의 모임인 삼소회(三笑會) 회원들과 함께 떠났던 해외 수행길, 우리 사회의 소외된 이웃에 대한 봉사활동 등에 얽힌 이야기 등이 담겼다. 무엇보다도 정목 스님이 이 책을 통해 지속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한마디로 '분별심과 집착을 버리라'는 것이다. 삶과 죽음의 분별, 선연과 악연의 분별, 남의 종교를 차별하고 적대시하는 분별, 돈과 명예에 대한 집착, 과거와 미래에 대한 집착 등 수없이 많은 분별심과 집착은 우리 자신을 괴롭힐 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을 다가갈 수 없는 낯선 사람으로 만든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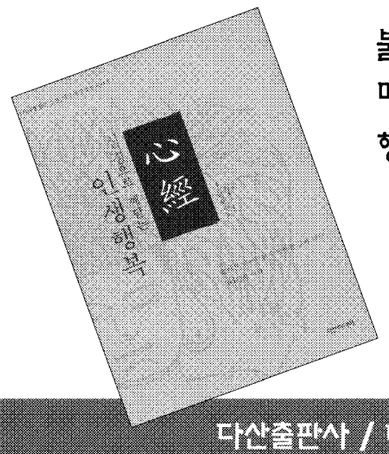
김주일 기자

지혜를 담은 그릇 다산 동양고전 시리즈 차별화된 기획

청소년들과 동양고전의 독자들이 현대적 해설로 다시 읽어야 할 필독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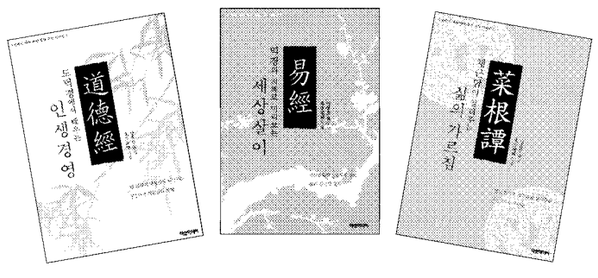
완벽한 전문(全文)해설과 독음(讀音)을 달았고, 재미있는 일화까지 곁들여 쉽고 재미있게 동양고전을 공략할 수 있다!!

[반야]심경으로 깨닫는 인생행복
행복한 일생과 아름다운 마음가짐을 위한 48가지 비법
동방원루이 지음 / 남종진 옮김 / 12,000원



불교의 교리를 담은 핵심적 경전!
마음의 번뇌를 달래주는 양약이자
행복한 삶으로 이끌어주는 등불

『심경』(반야심경)은 석가모니께서 큰 깨달음을 얻은 뒤에 처음 쓴 글로 당나라의 현장법사에 의해 옮겨지면서 널리 알려졌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녀야 할 올바른 마음가짐과 삶에 대해 다양한 예화를 빌려 재미있게 설명한다.



도덕경에서 배우는 인생경영
내 인생의 나침반이 되어 주는 81가지 도덕경의 지혜
동방로또우 지음 / 남종진 옮김 / 12,000원

역경(주역)의 지혜로 미리 보는 세상살이
세상만물 64괘에 담긴 삶의 깊이와 철학
동방원루이 지음 / 이성호 옮김 / 12,000원

채근담이 일러주는 삶의 가르침
일과 휴식의 즐거움을 알려주는 360가지 처세술
동방원루이 지음 / 남종진 옮김 / 12,000원

알짬 고전 시리즈 : 중국 고전의 명언과 지혜
알짬 고전 1 「논어(論語)의 명언, 그 위대한 지혜」
알짬 고전 2 「맹자(孟子)의 명언, 그 위대한 지혜」
알짬 고전 3 「노자(老子)의 명언, 그 위대한 지혜」
알짬 고전 4 「주역(周易)의 명언, 그 위대한 지혜」
알짬 고전 5 「시경(詩經)의 명언, 그 위대한 지혜」
} 근간

시리즈의 특징과 장점
- 본 시리즈는 중국의 대표 고전을 엄선한 해설서이다.
- 대표적 고전의 주요한 명구를 원문으로 감상할 수 있다.
- 중국 역사 속에서 상관성을 지니는 흥미로운 사례를 찾아 발굴해 보여줌으로써 원문에 대한 이해도를 높인다.
- 중국 고전에 대한 안목을 배양하는 동시에 중국의 역사에 대한 소양을 높인다.
- 교양성(敎養性)과 흥미성을 겸비한 대중적 독서물이다.
- 현대적 감각으로 쉽고 재미있게 해설되었다.

다산출판사 / 다산미디어 서울시 마포구 용강동 494-85 다산빌딩 402호 TEL:717-3661~2(代) FAX:716-9945 www.dasanbooks.co.kr e-mail : dasanpub@hanmail.net

“도필과 악필은 백지 한 장 차이”

道筆 惡筆



<묘법연화경> 사경 병풍.

서예인생 52년 정리하는 ‘남석 이성조 선생’



눈을 감고 붓에 취해 글을 써내려가는 남석 선생.

9만9천여 자 ‘묘법연화경’ 서예 인생 대변
쌍관 500여점 · 상형문자 현대화 작품 눈길
“서(書)는 마음의 그림”…10월에 대형 전시회

‘서예인생 52년 제33회 남석 이성조 고희전’이 10월 22일부터 28일까지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다. 특히 이번 전시회는 90년대 초 서예계 심사가 작품성 보다는 각종 입김에 좌지우지되는 것에 충격받은 남석 선생이 20여 년간의 은둔생활을 접고 벌이는 개인전이어서 주목된다. 게다가 그의 서예인생을 총정리 회향하는 만큼 규모 또한 대단하다. 그의 말을 빌자면 ‘데모하는 거’라고 할 정도다.

특별전시실에 선보일 <묘법연화경(법화경)> 전 7권 28품 전문을 쓴 168폭 병풍(길이 120미터, 글자 수 총 9만9천384자)은 그의 서예인생을 대표할 대작으로 꼽힌다. 2002년부터 2년간 전지 168장에 50자루의 붓을 버려가며 제작했다. 그 외 <반야심경> 1080점, <반야심경> 병풍 108점과 월전 강암 금봉 벽경 등 국내 유명 작가들과의 합작병풍도 전시된다. 또 불망지제현(不忘之諸賢, 불가의 스승인 성철 스님과 서예계의 스승 청남 오재봉 선생 등을 비롯한 모든 스승)과 제자들에게 헌정하는 쌍관 작품 500여점도 눈길을 끈다. 주는 이와 받는 이의 이름이 동시에 새겨지는 쌍관 작품은 그 의미만으로도 각별한 가치를 지니는데, 남석은 남녀노소, 귀천과 빈부격차를 막론하고 대상자를 선정해 그에 맞는 작품을 만들어 주었다. 500여점의 쌍관 작품에서는 대상에 따라 한글, 한문, 추상서예, 상형문자, 사군자, 선서화 등으로 펼쳐지는 다양한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또, 30대부터 60대까지로 나눠 전시되는 과거 작품을 통해 남석의 걸어온 발자취를 살펴볼 수 있다. 특히 눈을 감은 채 붓과 하나 되어 암중취호(暗中醉毫, 눈을 감고 붓에 취해 글을 쓰는 것)로 운필한 작품도 선보인다. 남석은 이번 전시에서 상형문자를 이용한 현대서예 몇 자를 보여주겠다고 야심을 보인다.

“어떤 이들은 간혹 ‘눈을 감고 휘갈 린다는 표현을 하는데 틀린 말입니다. 눈을 감았을 때는 온 몸과 마음이 하나로 붓 끝에 몰입돼 한 획마다 땀이 맺히고 육체적 정신적으로 매우 힘들어져요. 내 모든 것이 부드러운 붓털 끝에 집중돼 종이에 옮기는 것인데 사람들은 이것을 몰라요. 모든 흐름이 가서 글자가 이뤄지는 것이지요.” 남석의 표현에 짜릿한 전율이 흐른다. 한 자리에 앉았으나 감히 넘볼 수 없는 전혀 다른 세계에 몰입한 모습이다.

말로서 설명이 부족했던지 급기야는 직접 시범을 보인다. 남석이 그린 서도는 어느덧 둥근 원상을 만들며 원점에 와 있다.

“도필은 악필과 백지 한 장 차이입니다. 도필은 글을 잘 써서 되는 것이 아니지요. 달을 속에서 바로 도필이 된 거지요. 해인사 입구에 가보면 성철 스님이 내 붓 빌려다가 신문 놓고 쓴 걸 오려 돌에 새긴 글씨가 있어요. 글씨체는 안 이쁜데 그게 바로 도필이에요. 글씨 안 배우고 도인이 되면 그게 바로 도필인데 난 도인이 될 수도 수련도 부족해 도필을 쓸 수 없는게 안타까울 뿐입니다. 죽을때까지 수행을 계속 해야지요.” 한평생 글을 써 온 노 서예가가 던지는 푸념섞인 한마디 한마디가 예사롭지 않다. 섣불리 들어 넘길 넋두리가 아닌데 이를 어찌 주워 담을까? 망설일 틈 없이 점을 찍고 이어가는 그의 화법이 거침없다.

“서예는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생활과 수행을 통해 느끼는 것이지요. 그래서 ‘서(書)는 마음의 그림이며 인격의 표현’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인상이 있듯이 서예도 서상이 있어 글씨만으로 글을 쓴 이의 성품과 외향 등을 알 수 있다”는 남석 선생은 “많이 추구해 알면 알수록 부족한 부분이 많다는 것을 알게 돼 결국에는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고 말했다.

멋은 앎(지혜, 覺慧)에서 온다는 남석 선생은 이번 고희전을 끝으로 이젠 더이상 전시회를 갖지 않을 작정이다. 몇해 전 <묘법연화경> 전품을 쓰는 것으로 이생에서의 할 일을 다했다고 여긴다. 마지막 한가지 더 발원이 있다면 제자들에게 사서공양을 하는 것이다.

대구=배지선 객원기자

남석 이성조 선생은?

1939년 경남 밀양에서 태어난 그는 철없던 고교시절 교내외를 주름잡던 문제아였다. 그러나 1952년 4월 교내 특별활동시간 서예부 교실을 기웃거리다가 후배의 붓을 가로채 글자(永)를 갈겨 쓴 것이 그의 인생에 큰 점이 됐다. 이후 스승 청남 오제봉이 그를 서예의 길로 인도했다. 제 7회 진주 개천예술제에서 대상을 받으며 서예계에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그는 부산사범대 미술과를 졸업했다. 1959년 제 8회 국전에서 최연소로 입선된 후 국립현대미술관 초대작가로 선정됐으며, 대구시문화상을 수상하고, 대구시서예가협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1981년에는 미국에서 개최된 한미수교 100주년 기념 초대전시회에 초청되기도 했다.

남석 선생은 젊은 시절 한때 성철스님 문하에 들어가 8개월간 출가수행자의 꿈도 키워본 특이한 이력의 소유자이기도 하다.

우리나라 불교음악 이야기 ⑭

하나된 음성으로 울려 퍼지길

현대 불교음악 결산

불교 소양 갖춘 지도자 양성 통한 저변 확대
불교음악 교육기관 설립 및 연구 후원 등 절실

앞으로 불교음악이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이 남아 있다. 이 문제들을 불교음악인들 스스로 해결해 나가기 위해 몇 가지 제안을 한다.

첫째 활동무대 마련을 통하여 지도자 양성과 저변 확대이다. 일반 음악을 전공한 사람이 아닌 불교와 불교음악을 이해하고 가르칠 수 있는 지도자를 말하는 것이다.

불교문화를 이해하지 못하고 교육에 임하기 때문에 지식 교육은 문제가 없지만 불교음악의 사상을 가르치는 데는 문제가 많다. 사찰에서 지도자를 영입하는 것은 음악을 전공한 신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다 보니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지 않고 불교적 소양도 알 수가 없게 됐다. 불교음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도자의 자질을 검증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해 합당한 대우를 하는 토대가 필요하다.

합당한 대우를 하지 않다보니 한 지도자가 여러 합창단을 지도함으로써 지도자가 연구하고 자기 계발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게 된다. 또한 각 사찰에서 같은 날 행사가 있을 때에는 행사에 차질이 생기기도 한다.

이제는 사찰에서도 지도자를 직업인으로써 인정해 적정한 대우를 해주고, 지도자는 불음포교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높이고 불음포교사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둘째로 불교음악의 교재 보급을 통한 창작자들의 보호다. 작품 보호와 연구비 지원을 통한 새로운 창작활동을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고, 단일 교재로 교육해 전국 어디서나 하나의 음성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재 이익금은 한국불교음악역사관 건립과 운영은 물론이고 역사관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및 연구 활동 지원금으로 사용돼야 한다.

셋째는 불교음악 교육기관 설립이다. 현재 건립 중에 있는 (사)삼보불교음악역사회관 건립으로 불교음악 지도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 까지 교육 할 수 있는 전국적인 기관을 하루 빨리 건립하는데 있다.

한국불교음악역사관에서는 지도자의 평생교육은 물론이고 합창단 임원들과 합창단원들에게 불교문화의 이해를 돕는 연구 활동과 창작 활동의 중심 역할을 해야 한다.

넷째는 활동 무대 설립과 기획 활동 섭외능력의 향상에 있다. 불교 음악계에는 제대로 갖추어진 연습장소, 공연할 수 있는 무대, 세미나 및 회의장소가 거의 없다. 대부분이 사찰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대관을 하려해도 기획, 정보, 유관기관 협력 부족 등으로 사용하기가 어렵다.

위와 같은 문제점들을 하나씩 고쳐나간다면 밝은 불교음악의 길이 열리리라 생각된다.(끝)

안병길(삼보불교음악협회 사무총장)

詩畵로 떠나는 암자기행 ⑰

무이산 문수암

장인성 시인

초승달 실눈 트는 초사흘 밤에
앳된 비구니 갯짐을 풀고
알싸한 바닷물에 몸을 적실 때
파도가 철썩철썩 뱃속에 들어
바다알 하나씩을 품게 해서요
비구니가 풀어놓은 동그란 알이
여기저기 섬으로 떠다니지요.



문수암(文殊庵))-경남 고성의 다도해를 품에 안고 있는 비구니 암자
그림 : 이상배 화백



케이블 TV
“산성 할아버지의 신사고 한문이야기”로 방영된
강의를 엮어낸 화제의 책!!

천자문을 기존의 해설이나 풀이 방법이 아닌, 본연의 나를 찾는 깨달음의 경문으로 풀어 낸다.
한자의 구성과 그 본연의 의미는 무엇인가를 이야기와 예문, 그리고 부처님의 말씀 등을 인용해 알기쉽게 풀어낸 이야기 천자문!!

천명일 지음 | 536쪽 | 값18,000원 | 고급양장 값25,000원



산성 할아버지의 이야기천자문



붓다의 마음 다스리기
현명한 사람은 마음을 다스린다
두려움과 근심없는 생활을 위한 마음 다스리기!
당신은 두려움과 근심걱정이 없으십니까?
현자들의 철학과 일화를 통한 붓다의 다음다스리기!!
담마난다 지음 · 홍종욱 옮김 | 값8,900원



깊은 뜻이 담겨있는 부처님 말씀
천수경
원문 천수경을 해설한 책!
왕 삼매, 원바삼점, 사십이수진언, 유통분 등
원문을 부처님의 지견에 맞추어 깊이있게 설명한다.
천명일 편저 | 값10,000원

전화 (02)730-2211 팩스 (02)730-2210 지혜의나무

송준영 시인과 禪詩 깊이 읽기



12. 무착의 전삼삼 후삼삼

천봉오리는 굽이굽이 짙푸른데
千峰盤屈色如藍
어느 누구가 문수와 말을 했다는가
誰謂文殊是對談
우습다, 청량산에 수도승이
堪笑淸凉多少衆
저기 셋 여기 셋이라니
前三三與後三三 —원오 극근

위의 선시는 <벽암록> 35칙에 '문수전삼삼(文殊前三三)' 공안에 대해 원오 극근의 게송이다. 이 선화의 주인공인 무착 문희(無着文喜, 820~899)는 앙산의 제자며 성은 주씨라고 <전등록>에 기록되어 있다.

이야기는 이렇다. 어느 날 무착이 오대산에 간 꿈을 꾸었다. 그 꿈속에서 문수보살을 만나 하룻밤 그 절에서 신세를 지게 된다. 그 때의 문답이 <벽암록>35칙 본칙(本則)이다. 무착은 이 선화를 학인 지도하는 수시(垂示)로 썼다고 한다.

문수보살이 무착에게 물었다. "여기 오기 전에 어디 있었나?" "예 남쪽에 있었습니다." "요즘, 남쪽의 불법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 "말법의 비구는 계율을 받드는 자가 조금 있습니다만." "그래 그 계율을 받드는 자가 얼마나 되나?" "아마 300에서 500명 정도 될런지요."

> '전삼삼 후삼삼'은 흑백의 판가름을 벗어난 답
> 자성본원으로 계합시키려는 문수의 의도 내포

이번에는 무착이 문수에게 물었다.

"이곳에서는 불법이 어떻습니까?" "깨달은 자도 평범한 자도, 용도 뱀도 다 함께 뒤범벅이지.(凡聖同居 龍蛇混雜)" "수행자는 얼마나 됩니까?"

그러자 문수가 대답했다. "저기 셋, 여기 셋 정도지.(前三三後三三)"

(<벽암록> 35칙 '文殊前三三')

우리는 이 선화에서 "수행자가 얼마나 됩니까?"하는 무착의 질문에 "전삼삼 후삼삼"이란 문수보살의 대답을 듣게 된다. "여기도 셋, 저기도 셋"은 과연 어느 정도, 얼마나 많은 수란 말인가? 우리는 언제나 '얼마'란 말, 곧 다소(多少)에 대해 길들여져 있다. 10명이냐? 100명이냐? 우리는 항상 '흑/백'의 판가름의 세계에 살아왔고, 이항대립적인 가름에 답을 선택하게 하였고 또 선택해왔다. 그러나 이런 사유에 던져지는 벽력같은 말 "저기 셋, 여기 셋 정도" 무언가 정답이 없는, 정답을 내기위한 정신작용에 문제가 생기므로 오는 멍청함. 여기에 우리는 사량(思量)하는 잣대를 잃는다. '전삼삼 후삼삼'은 일반적으로 '범인과 성인이 동거하고, 용과 뱀이 뒤엉켜서(凡聖同居 龍蛇混雜)' 여기 한 무리, 저기 한 무리 무리지어 있다 쯤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여기서는 문수가 일깨우고자 하는 것, 곧 우리를 자성본원으로 계합시키려는 음흉한 의도가 숨어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벽암록> 본칙은 여기서 끝나지만, 평창에 의하면 문수보살이 무착에게 차를 대접했다. 이때 그 다기를 가리키면서 문수가 무착에게 물었다.

"그래, 남방에도 이런 게 있는가?" "아니, 없습니다." "그럼 뭣으로 차를 마시나?"

이 질문에 무착은 말문이 막히고 말았다. 얼마 후 무착은 문수에게 하직을 고하고 떠나게 되었는데, 문수가 동자를 시켜 산문까지 전송해 주었다. 도중 무착이 동자에게 물었다.

"아까 문수께서 전삼삼 후삼삼이라 하셨는데, 그건 대체 몇 사람을 말하는 걸까요?"

그러자 동자는 대답대신 갑자기 무착을 불렀다. "스님!" "네!" "그건 몇이나 됩니까?" 이쯤 되면 앞의 게송의 뜻이 다가올 것이다.

3행과 4행에서 "청량산 수도승이/저기 셋, 여기 셋이라니"이라 대답한 의도, 역시 잠자코 있는 것보다 더 나을 것이 없지 않은가. 1행과 2행은 '평지에 풍파가 일어난 격'이다. 1행은 오대산의 전경을 그렸고 2행의 "어느 누가 문수와 대담을 했다고 하느냐?(誰謂文殊是對談)"는 오대산 전체가 하나의 살아있는 문수인데, 무얼 가지고 문수와 대담을 했다 하는가. 그와 마찬가지로 동자는 무착을 부른다. '네' 하는 대답은 자성본원에서 자발광하는 음성적 파동태이니, 이것을 몇 명이라 따져 '흑/백'을 구분해서 대답할 수 없음이 분명하다. 이러한데, 그 따위 터무니없는 수작을 하는 게 누구냐? 오대산 도처에 문수가 있지 않은가. 정말 문수를 만났다면 '전삼삼 후삼삼' 같은 수작을 할 턱이 없다.

아는가? 알았다 해도 우리는 나무아래에서 잘 생각해 볼일이다.

공광규 시인과 시집 즐겨 읽기 ⑫

취하면 다 광대가 되는 법이지
이승하 | 시학 2007 | 8천원





불교 인물·사건 등 '인유'로 시적 형상화

이승하는 1960년 경북 의성에서 태어나 김천에서 성장하였다. 1984년 중앙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한 그는 시집 <사랑의 탐구>, <폭력과 광기의 나날>, <박수를 찾아서> 등 일곱 권의 시집을 내었다. 그리고 박사학위 논문인 <한국 현대시와 풍자미학>등 7권의 연구서와 시론집을 내기도 했다.

그의 최근 시집 <취하면 다 광대가 되는 법이지>에 담긴 58편의 시들은 창작방법상 인유의 방법을 일관되게 활용하고 있다. 이승하는 '시인의 머리말'에서 "이 시집의 시들을 써 나가는 동안 모진 방법으로 시를 가르쳐 주신 미당 서정주 선생님을 계속 생각했다"고 한다.

그리고 시집 뒤에 '미당 서정주 선생님께'를 제목으로 쓴 '시인의 편지'를 게재하고 있어, 시인이 미당으로부터 시를 배우고 등단하게 된 사연을 적고 있다. 이 시집에서 이승하가 인물과 사건을 인유하는 능청스런 산문적 어법을 미당의 방법에서 계승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시집은 광대, 구도자, 노래, 예인을 제재로 한 시를 4부로 나누어 묶었다. 이 가운데 원효, 운암과 지장, 엄장과 광덕, 한산과 습득, 초의선사가 추사에게, 혜초, 성철, 청화, 수경, 지율, 융천사, 풍요, 도솔가, 제망매가, 안민가, 우적가 등 불교 인물이나 사건을 인유한 시가 20여 편에 가깝다.

빠르다
초음속비행기의 속도보다
정통파 투수의 공 빠르기보다 빠르다
기다릴 수 없는 분과 초
눈 깜짝할 사이에 내 뜻 전해지는 전송 속도여!
운암이 마조의 제자 지상을 찾아갔다.
지상은 운암을 보더니 갑자기 활시위를 당기는 시늉을 했다. 이에 질세라
운암은 활을 빼 화살을 쳐내는 시늉을 했다.
그러자 지상이 소리쳤다.
"너무 늦었어!"
하지만 운암도 물러서지 않았다
"늦으면 깊은 법이지요."
이 소리에 지상이 껄껄 웃었다.

– '구도자를 찾아서1–운암과 지상' 부분

이 시는 속도만 있지 깊이가 없는 현대의 일상을 운암과 지상이라는 인물의 사례를 통해 비판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과거에는 남에게 자신의 뜻을 전달하기까지 오랫동안의 번민과 망설임이 필요했다.

그러나 현재는 이런 기다림이 없이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해 즉시 전달한다. 이러한 의사전달의 속도에 대한 문제를 지상과 운암의 선적 사건을 통해서 '늦으면 깊다'는 잠언적 경구를 독자에게 던져준다. 다시 말해 현대의 속도 중심 문명은 깊이가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시인은 갈수록 가속도를 추구하려는 경박한 현대의 사람들이 땀을 흘리는 것을 보면서 과거 운암과 지산 선사가 서로 느림과 깊이에 공감하고 웃었던 소리를 듣고 있는 것이다.

이승하는 원효를 암자에서 내려와 아무 거리낌 없이 노래하고 춤추며 사람으로 살려고 했던 파계승으로 형상화한다.

승복을 벗고 목탁도 버리고
저 자라고 싶은 대로 놔둔
머리카락과 수염 어느새 백발
쪽박 찬 저 거지들보다 내가
나은 것이 도대체 무엇이겠소
공양을 받으며 만인을 내려다보며
내 두드린 목탁은 순 거짓이었소

– '광대를 찾아서 5–원효(617~686)' 부분



사찰음식의 모든 것

정산 스님 산촌 대표 · 동산불교대 사찰음식학과장

⑫연잎과 연뿌리 생무침

연꽃은 흙탕물 속에서 맑은 꽃을 피운다. 그러므로 불교(佛敎)에서는 깨달음을 얻은 부처를 상징하고 나아가 연꽃은 빛과 극락정토(極樂淨土)를 상징하기도 해 생명의 근원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인도와 이집트가 원산지인 백련(白蓮)은 7월과 9월 사이에 하얀 꽃을 피우는데 일시에 피지 않고 석 달 동안 계속해서 피고진다. 연꽃은 붉은 꽃을 피우는 홍련(紅蓮)이 대부분이고 흰 꽃을 피우는 백련(白蓮)은 매우 귀하다.

연근은 각혈·코피 등 지혈효과 우수
연잎으로 담근 연엽주·연향차 인기

연꽃은 꽃잎이 떨어지면 벌집 모양의 열매가 10월중 갈색으로 익으며 그 속에는 타원형의 씨앗이 들어 있다. 연꽃이 지고 나면 생기는 열매를 연실(蓮實)이라 부르며, 집안을 치장하는데 사용하거나 약재로 사용한다. 또한 여러 개의 구멍이 나 있는 뿌리는 연근(蓮根)이라 하여 식용으로 즐겨 먹으며, 연잎으로 담근 연엽주(蓮葉酒)와 연향차(蓮香茶)는 고유의 술과 차로 각광을 받고 있다.

연근의 식물성 섬유는 장벽을 적당히 자극하여 장내의 활동을 활발히 해주며 체내의 콜레스테롤 수치를 떨어뜨리는 작용을 한다. 또한 철분과 탄닌성분은 소염작용이 뛰어나 점막 조직의 염증을 가라앉혀 주므로 코피가 잘 나는 사람이 먹으면 효과를 발휘한다. 하지만 열이 있거나 만성 설사증이 있는 사람은 많이 먹지 않는 것이 좋다.

연은 버릴 것이 없기로도 유명한데, 연의 열매와 종자인 연자육(蓮子肉)은 콩팥의 기능을 보강하고 잘 놀라거나 불면증이 있는 사람에게 좋다. 연잎은 설사와 두통, 어지럼증, 산후 어혈료, 해독장용에 쓰인다. 뿌리는 각혈, 토혈, 코피, 치질, 대변출혈 등 지혈효과가 있으며, 연밥에는 치질과 탈항, 악창 및 각종 지혈 효과가 있다.

이 중 연근은 맛이 달고 떫으면서 성질이 차지도 덥지도 않아 상처부위를 수렴시켜 지혈하는데 좋다. 위궤양이나 십이지장궤양을 앓고 있으면 연근을 졸여서 반찬으로 먹는다.



연잎과 연뿌리 생무침

재료 : 연잎, 연뿌리, 식초, 고추장, 설탕, 깨소금, 잣, 고춧가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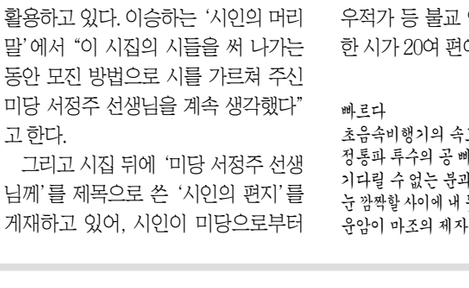
만드는 법

① 연잎은 깨끗이 씻어 한 입에 들어갈 정도로 손으로 찢어 둔다.
② 연뿌리는 깨끗하게 씻어 껍질을 벗긴 후 아주 얇게 썰어 소금물에 담가둔다. 소금물에 담가두면 색이 변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③ 식초, 소금, 설탕, 깨소금을 넣고 새콤달콤한 양념을 만들어 놓는다.
④ 식초, 설탕, 고추장, 고춧가루, 깨소금을 넣어 매콤한 양념을 만들어둔다.
⑤ 손질한 연뿌리를 두 가지 다른 양념으로 각각 무친 후 잣을 올려 보기 좋게 담아낸다.

자연, 그 순수한 아름다움을 담은 가구
웰빙가구의 대명사 – 다심
마지막 남은 소나무(육송)
茶心마루 공장직판
도매가세일 한정판매
자연의 향기를 담은 한 잔의 茶 처럼...
현대인의 심신에 휴식을 전하는 원목가구 – 다심마루

구 분	크 기(mm)	판매가(원)	할인가(원)
육송좌탁	1200×600×300 (小)	300,000	160,000
	1300×770×300 (中)	400,000	200,000
	1500×770×300 (大)	500,000	260,000
	1800×770×300 (특大)	600,000	300,000
침대	2100×1700×320	2,000,000	1,400,000

(배송비는 별도입니다.)


• 곡선침대

• 직선좌탁

시중에 일부 유통되고 있는 무늬목 좌탁과는 비교하지 마십시오!
▶육송좌탁은 완전 수공 짜맞춤 방식으로 만들어진 명작입니다.
▶대량 생산이 불가능하고 100% 수작업으로 제작.
▶소재 : 우리나라 토종 소나무 육송(춘향목) 사용
▶사용 : 차탁, 거실의 좌탁, 소파대용 의자, 개인침대, 학생공부상, 제사상 등
▶사용법 : 물걸레질이 가능하며 주기적으로 기름칠(들기름)을 해주면 나무가 기름을 빨아들여 윤기가 돌고 손때가 묻으면 반질반질해져 쓸수록 그 가치가 더해짐.

주문처 080-999-1080
입금계좌:농협 177483-51-071977(예금주:천소현)

[생활명상서]
명상, 그 푸른 눈의 지혜
– 다양한 명상법과 수련방법 안내 –
고목 지음
신국판 276쪽
₩10,000
(주)미래아

〈머리글 중에서〉
'형상'과 '이름'에 집착함이여
그 거짓됨을 알지 못한채
오로지 밖으로만 구하여
탐진치는 더욱 강렬해지고
신구의(身口意) 3업은 더욱 거친 모습으로
감각과 말초(末梢)의 색성향미촉법(色聲香味觸法)을 좇아
사람은 하루가 다르게 더욱 흉악해진다
참되지 못한 망령됨과
순수하지 못한 혼탁함으로
중생은 부끄러운 줄도 모르게 되어
아! 의타기성(依他起性)은 실종되고
원성실성(圓成實性)은 매몰되도다.

인류는 2분법적 지식과 局所科學에 의지하여 일로 번영을 추구해 왔으나 끝내 '안'과 '밖', '정신'과 '물질' 양면에 걸쳐 共滅的재앙을 목전에 초래하고 말았다.

〈과연 未法現代는 그 무엇으로 살길을 찾을 것인가?〉

구입문의
– 유명서점 · 불교서점
– 총판 : (02) 3672-7181
– 유식사상연구회 : (055) 353-6142, 010-2356-6142

삼원국제선원 여름수련회



깨달아 인가받은 78대 선사님께서 상주하시는 정법도량,
삼원국제선원이 대웅전 건립 후 첫 수련회를 개최합니다.
국내 초유로 이루어지는 법융선사 심명 법문을
전강대선사님의 인가를 받은 명안종사,
대원 문재현 선사님의 생생한 육성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정법의 향취에 취해 생사해탈하여 영원한 복락을 누릴
인연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삼원국제선원의 수련회는 종파와 종교를 초월합니다.
어떤 종교, 종파에 속해 있더라도 상관없이 다만 깨달음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누구라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수련회 당일은 광릉내 707번 종점에 오셔서 031-531-8805로 전화주세요
일 시 : 2007년 8월 2일(목) ~ 8월 5일(일)
회 비 : 60,000원(농협 100083-56-142307 예금주 : 위일석)
입금하시고 011-9024-1445로 성명/입금자명/연락처 알려주세요.
문의처 : 011-9024-1445 / 02-3494-0122 / 011-785-0122
홈페이지 : www.zenparadise.com

더 빠른! 더 좋은! 더 저렴한!

불자생활정보

▷ 문의 : TEL 02)2004-8214~6, 02) 732-1522 , FAX 02)737-0696
▷ 가격 : 1Box(4.4×4.4) 4만원, 1Box(9×4.4) 8만원
▷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88 (주)에이치비엠씨
▷ 원고마감 : 매주 월~수요일
(입금을 하셔야 광고 게재가 가능합니다)

유명 표구사

불자가 운영하는 유명표구사에서는 불자님은 물론 스님의 작품을 상보전에 공양 올리듯 정성껏 표구해 드립니다.
대표장인 이종부 합장
▷전국 택배가능◁
서울 은평구 응암3동 응암5거리 (지하철6호선 새절역 1번출구)
02)374-9886
BBS 퀴즈대장정 신행상담 코너 - 달마도 표구 협찬(6년)

수(數)수리 수인작법

◆동서양을 통해 변하지 않는 근본 (기본적)숫자를 통한 특유의 점술로그
◆숫자가 사람 또는 장소 사물에 대해 제공해 줄 수 있는 숨겨진 의미를 찾아서~ 운명해독의 비법전수
◆교재 : 수(數)수리 수인작법서 무료 증(시중에 절판된 책)
◆소량의 분량재고 선착순 판매
031)633-1517
010-9593-5537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 점안식 · 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소서
011-850-0176

육임직지 한글판 출시

■육임의 720과전 상세히 수록
■생년월일을 몰라도 궁금한 일이 발생한 시간이나 사람을 만난시간에 해당과전만 보면 모든 사안 정단가능
■각 과전마다 필법(백법)을 해설수록
육임직지주해/세종출판사/소담주해
1권 갑자순 2권 갑술순 3권 갑신순 4권 갑오순 5권 갑진순 6권 갑인순 7권 부록
총 7권 180,000원 농협(조일홍) 815132-52-354445
H.P 017-844-7100
TEL 055)362-2799

육임 수강생 모집

사주를 보지 않아도 찾아온 목적을 알 수 있는 육임에 비술인 초급반과 백법반을 수시모집합니다.
육임에는 백법이라는 100가지 비법이 있습니다.
동영상과 직강을 동시에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가능 ●사무실 : 서울 용산구 보광동 35-45호
문의: 02)793-7333 www.saju79.com

秘法전수

뭇 광고에 접해보면 생각과 다르지요 이 곳에 오시면 속지 않을 겁니다
1. 삼흔칠백의 작용법(천도)
2. 달마 사연 장중 도법(윤회)
3. 도인 침술법(귀신병)
4. 빙의 제령법(정신병, 체면학)
5. 기공법(레이키, 약손)
*초종파, 스님 누구나 배워 보세요(보시료 약간)
055)573-7832
010-3189-3525
경남 의령 해용사 -법 경-

역학개인지도

명리 철학 배워도 영가를 못 빼내고 조상을 못 찾는분 (스님 · 무속 · 일반)
물상으로 영가를 배워 제를 지낼 수 있도록
명리철학을 1~2개월 완성
(실제 감정 위주)
051)818-2358
010-5345-2358

전통불교 문화예술원 문화재 9호 영산작법무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태평소
사찰행사 문의
천도재 49재 점안식
011-9317-6686(온천지부)
금정사 대명 합장

연화석예석재 (구. 도림석재)

http://www.yhstone.net
한글도메인, 연화석예
불상, 석탑, 석등, 영탑, 석건축
공장: 경기도 남양주시 도농동 267-3
전화 031)563-3535.567-1260
전송 031)551-1500.564-2464
e-mail:yhstone3535@hanmail.net

명리학 책임지도

과목 : 명리학 + 성명학
28년 실전경력 책임지도함
월4회(토,일) PM 7시~9시(4개월 완성)
(초 · 중급반 2개월+고급반 2개월)
법성사 법성스님(서울 강서구 발산동)
02)2658-7003
011-695-1626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대불정능엄신주 독송 지도
토요일 철야기도
영가천도, 우리말 천수경
▷상 담 환 영◁
꿈바위 불교교육원
016-787-3977

천도재 · 49재 · 점안식

바라 · 작법무 · 태평소 · 살풀이 · 지전무 · 극락무 · 회심곡
성심을 다해 집전해 드립니다
010-4870-8359
범음범패 무형문화재 9호 전수자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범음범패 불공의식 해 드립니다

점안식 · 49재 · 천도재
불교의식 · 사물 · 바라나비춤
각 시식, 실전위주교육
학인 . 행자모집
대광명사(동양불교대학)
02)939-3327
011-9923-3329

참선 및 영어방 안내문

◆장소 : 길상사 ◆교육기간 : 4년
◆개강일시 : 2007년9월10일
◆정 원 : 5명 교육비, 침식 무료
◆교육대상 : 40~55세 미만의 비구니스님
◆회화중심 : 초보자 가능
◆수 행 : 참선, 일상언어:영어
충남 아산시 송악면 송학1리 441번지 길상사
문의 041)541-7240~1

대승심 대도선의 세계

평상인은 경계를 따라 쫓아나가고 소승인은 생각을 끊어 들어가지만, 대승도는 한 생각 일어나는 자리를 비추어 홀연히 근원에 도달하는 법으로서, 간화선 이전부터 면면히 이어져 내려오는 대도선 도량을 오프라인으로도 함께 열어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http://cafe.daum.net/ungeodaedosun

불교전통의식대학 개원

과목 : 천수바라 · 작법무 · 천도의식 염불
집전 교육강의 · 학인모집
(사찰행사 : 49제 · 점안 · 구병시식)
부산시 동래구 온천2동 금정마을
대한불교 원광사
주지 : 삼광스님 학장 : 무상스님
010-3928-0006
051)558-8830~1

새로운 포교 나눔의 봉사 신비의 효험봉침 수강회원

위빠사나 명상, 상담과 심리요법
기초교리 예불 예절 요가
봉침<벌침>요법 및 미용요법 강좌
명상봉침요법 지도포교사 수료증
*불교명상 봉침 대체의학연구협회
원효불교교양대학 유마사
마산 055)247-5652

후원보살 모십니다

▷경북 경주 암자
054)772-4133

행 자 모 집

•입산 수행하여 스님이 될 남,여,행자를 모집합니다.
•몸이 불편한 분 연락 바랍니다.
•고시생 환영합니다.
•기도 정진하실 비구 및 비구니스님을 모십니다.
•조용한 산사에서 요양 하실 분 5명.
•산세 수려한 사찰입니다. 함께 기도 하시며 지내실 처사님,보살님들 연락 바랍니다.
031)511-7183

속리산에 별장같은 조용한 암자 수양하면서 도량관리 해주실 은퇴하신 노부부를 모십니다

054)535-0378

재자와 영가를 동시에 천도시킬 수 있는 정말 신심나는 실전 한글 천도재 의식비법 전수해드립니다

011-854-8107
무불합장

본인은 역학 및 49재, 천도재, 각종 불공의식, 서화 등등에 능통한 법납 30여년, 세수 50대 초반의 청정비구로서 무보시로 불사 도우며 안거할수 있는 여법한 도량을 찾고있습니다. 비구, 비구니, 보살, 처사님이 운영하는 사찰 모두 가능합니다

011-854-8107

산세좋은 사찰에서 부전으로 기도하고 싶습니다. 기도스님 필요하시면 전화주세요

054)433-6315
010-4520-6787

도반으로 함께할 보살님 모십니다

▷경남
60세 이상으로 학력이 조금 있으신분을 환영합니다
(전화벨을 일곱번이상 울려주십시오)
055)883-8846

공양주보살님 비구부전스님 모십니다

011-744-1650

부전(비구니) 스님 모십니다

▷강원도 양양
010-4573-8316

조용한 산사에서 기도하면서 지내실 분 공양주보살님 기도할 처사님,행자님 모십니다

011-561-6644

조용한 산사에서 기도하며 평생 함께할 30~40대 비구니(행자) 모십니다

017-569-3722

조용한 산사에서 평생을 가족같이 지낼 공양주보살님을 모십니다

▷충북 청원군 미원면
043)297-8728
016-428-8728

법회를 주관하실 비구 부전스님 모십니다

031)407-0298
011-9204-5010

부전스님 모십니다

011-591-8228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충남지역
041)567-0391

봉 은 불 교 미 술 원

탱화 가르칩니다
◆일시 : 2007. 8. 5 - 2007. 10. 28 매주 일요일 오전 9시 - 오후 5시
◆전화로 예약 받습니다.
TEL 041)541-3545/016-751-3545
홈페이지 참고 www.bongen.pe.kr
충남 아산시 신창면 신달리 493번지 불모 오재택

쌍용자동차 7월 무이자 실시


스님, 불자가족을 위한 특별판매
① 화물 5인승(자동차세 28500원)
② 차량계약금10만원으로 구입,인도까지
③ 최고 280만원D.C(렉스턴)
④ 매년 보험료 10% 지원
담당 유기천 대리 016-270-7197
담당 차승엽 대리 017-595-1211

선 · 기공 전수 받으실 분

사찰운영에서 방편이 없으신 분 100% 활용할 수 있음
◆기간 : 주 3회 3개월
(스님, 법사, 선 · 기공에 관심있으신 분, 일반인도 가능)
※ 금번 생활불교 선 · 기공 연합종회에서는 종도 및 간부스님을 모십니다.
※ 행자(예비스님) 모십니다.
사)생활불교 선 · 기공 연합종회 총무원
053)754-0082 / 011-549-8130

중국 소림 삼삼구 기공 지부장 전수자 모집

스님들이나 법사들의 포교방편 최고
▶最高의 神通氣功 名師◀
1. 기로써 퇴마를 치유한다
2. 즉석에서 우주와 결합시킨다
3. 손 끌의 기로 신문지에 불을 붙인다
※ 세상에 이런 신통기공사는 한명 뿐
※ 사찰 입종 환영, 행자승 모집!!
▶웰빙 건강 최고의 건강 수련법◀
각종 질병이 수련시 치유되며 즉석에서도 치유가 될 수 있습니다
•전수기간 : 3개월 완성 •속성반 : 2개월 완성
•연락주시면 동영상 CD를 보내 드립니다.
•스님들 법사님들 우선순위 환영 하며
•타종교와 일반인도 환영 합니다.
대한선랭불교조계종총무원
•법인 : 삼삼구 불기공 전국 총 연합 본부 (5호선 명일역 3번 출구 부근)
TEL 02)426-4774 / FAX 02)426-5585

사주팔자, 빙의령, 질병에 얽힌 삼각 관계를 치유합니다

1. 병명이 나오지 않고 몸이 아프신분
2. 무당굿을 해도 효과를 못보신 분
3. 우울증, 가위눌림, 정신질환, 사업실패, 가정파탄, 음주, 도벽 등등
※빙의령을 직접 불러내어 왜 들어 왔는지, 원인이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님, 무속인, 전수함, 선착순 4명
031)241-3487 / 031)257-3487

고(古)건물 수리전문

드잡이 전문, 건물방향바꿈, 건물멀리옮김
건물 넘어간집 바로잡음, 석가래 기둥 등 썩은곳 교체
신축 및 기와등 한옥전문 (문화재 등록인 다수 보유)
(주)고도건축 대표 강충
연락처: 053)964-0858 / 휴대폰: 011-804-1748

28숙과 풍수지리 특별지도

● 대상 : 승려에 한하며 1:1로 개인지도
● 지도스님 : 대주 합장
● 위치 : 전철 1호선 신설동역 3번출구
☎ 02)926-1259 / 011-741-0867


사회복지사, 한자지도사

진각스님 명리 철학교실

학 인 모 집
명리학을 처음 공부하고자 하는분들의 마음은 누구에게 배워야 할것인가를 결정하기가 정말 힘든일이지요
아기 이름을 예쁘게 작명해서 보내드립니다.
문의 051) 867-8438
부산 송광정사 附設 FAX 051)867-7438
부산시청(경찰청) 뒷편 삼화탕 앞

49재 · 천도재 · 불상점안 집전

(바라 · 작법무 · 회심곡 · 합창단 · 살풀이)
아! 알았도다. 내가 곧 탐 · 진 · 치
이 몸이 삼독인 것을...
영산회상 의식 포교단(홈페이지:www.천도재.kr)
행사문의 051)557-1130 / 011-482-2091

행자(예비스님) 모집

•성별 : 남자, 학력 : 고졸이상, 연령 : 50세이하 •산중 감포군원 및 대구큰절 중 택일
•수행, 공부의 모든 지원, 최적의 교육분위기, 자율적시스템
•행자문의 : 010-2488-8228
대구 도심 사찰 최초 납골당 운영
•최첨단 시설, 편리한 교통, 한발 앞선 장례문화시설!!
•언제나 염불, 기도소리 들리는 법당안에 모셔지므로 천도에 아주 좋습니다.
•설 · 추석 · 제사천도 · 기일에 천도축원 해 드립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053)474-8228 TVbuddha.co.kr

전자식 2중문 3중경보 특허 불 전 함



움직이거나 덮문만 열어도 경내 전지역 경보상태
◈ 도난의 염려가 없는 사고 미연방지100%
◈ 돌발적인 경보로 침입자 100% 도주

원목 법상
서원불교 문의 043-647-2378, 011-467-1472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55,000 원
한박스 14KG 이상 100,000 원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먹기 좋은 상태로 해동이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향다원
판매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031-797-1357
Fax 031-881-1350 긴급전화 : 011-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조명숙)

김문기 박사의
통증킬러 수정기공요법

의학의 본고장 독일인들을 경악시킨 차세대 치료법. 진통제, 물리치료, 주사, 침, 한약, 비방, 교정법이 모두 필요가 없는 환상적인 기공요법 (S.T.T)
수정기공요법을 알면 귀하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특징
1. 기공수련도 없고, 배움이 어렵지 않습니다.
2. 힘이 들지 않습니다.
3.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4. 경비가 하나도 들지 않습니다.
5. 즉석에서 효과가 나타납니다.
6. 기구나 재료가 하나도 필요가 없습니다.
7. 사술이 아닌 서양의학과 동양기공의 만남으로 환상적인 자연 그대로를 연출하는 요법.

시술 대상
두통, 경항통, 구안와사, 안검하수, 목 디스크, 오십견(부위별), 테니스엘보, 늑간신경통, 복통, 요통(부위별), 꼬리뼈교정, 요두증, 사경증, 치아교정, 유방교정, 허리디스크, 좌골신경통, 생리통, 퇴행성관절염, 족관절염, 족저통, 발가락변형, 중풍, 뇌성마비후유증, 전신장애 등등 수술을 제외한 전신의 모든 통증과 신경장애에 탁월한 효과 입증.

비엔나 종합병원에서 임상결과 확실한 효과를 입증하는 인증서 획득

● 교재주문 : 수정기공크리닉 (일금 30,000원)
● 온라인 번호 : 농협 162-02-025918 (예금주 : 김문기)
● 속성강의 접수 : 1개월 과정
(매월 첫째 주 시작 단 4일에 모든 과정을 필함, 선착순 8명)
● 참 고 : 홈페이지 SOOJUNG99.PE.KR 또는 수정기공크리닉.COM
● 장 소 : 수원 성대전철역 앞 전화 031)293-0806 296-7806

사주운세 10초내 맞추면 통장입금

명리학[사주첩경통달](이석영)
명리학 질문 10초 내 답변
격국 · 조후 · 통관 · 용신 · 신약 · 신강 신경쓰지 마세요.
핵심은 년 · 월 · 일 · 시 지장간의 대흐름 판독입니다.
조상의 흐름이 잘 못 되면 이름모를 질병,
재난, 가출, 부부간의 갈등, 혼사지연,
부모와 자식간의 불화, 학업성적 부진 등
명리학으로 원인을 찾아드리고 퇴마와
천도방법을 상담으로 알려드립니다.
궁합보실분 10곳을 다녀보세요.
8곳은 ○표 2곳은 X 라면 ○표를 믿겠죠.
X 표는 내시경으로 본듯이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찍어냅니다. 또 백호대살, 형살, 원진살 등
흉살이 있다고 해서 고민하지 마세요.
사주첩경 6권을 보면 오히려 음덕이 있음을 많이 봅니다.
굿이나 부적 등 일체 부담되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02)826-5067
(전화해도 받지 않을 경우는 상담 중입니다)
하나은행 361-810554-63707 김진동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TEL 02) 2004-8214~6 / 02)732-1522 (直) · FAX 02) 737-0696
● 사찰안내 : 규격 5×5cm=50.000원 ● 계좌번호 : 농협 053-01-269088 (주)에이치비엠씨
· 원고접수기간 : 매주 월~수요일 · e-mail : onlymaum@paran.com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 위치 : 경남 ● 위치 : 경남
● 법당 : 69㎡(20평) ● 법당 : 67㎡(20평) ● 법당 : 82㎡(24평)
● 요사 : 105㎡(32평) ● 요사 : 96㎡(29평) ● 요사 : 132㎡(40평)
● 부지 : 1359㎡(411평) 외국 1698㎡(514평) ● 부지 : 2,327㎡ (705평) ● 부지 : 1,155㎡ (350평)
● 가액 : 2억5천만원 ● 가액 : 2억5천만원 ● 가액 : 7억3천만원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청송기획 02)998-1994 011)713-5634

임 법 당 안 내
● 위치:강원도 동해시 중심가
● 법당,방2,거실,주방,화장실 창고2,텃밭,주차공간 많음
● 삼존불,지장보살 옥불, 천수관음보살
● 보증금 200만원 월 30만원 시설비 200만원
011-402-1669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주택가 포교당) ● 대지 : 62평
● 2층 법당, 1층 상가점포 3개, 방2(월세나옴)
● 6차선 도로에서 10m 떨어진 코너집
● 가액 : 5억원(융자5천5백만원포함)
※기존 사찰과 교환가능
011-753-5991
031)257-5991

사찰전세안내
● 위치: 전남 장흥
● 법당 : 20평
● 대지 : 350평(실 사용 약600평) 총 건물 5동(전체 기와단청)
● 거대 바위산 밑 위치 영가천도 영험도량
● 가액 : 전세 5천만원 (양도 가능)
016-9660-1348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경기도 의정부시청 잔디광장 공영 주차장앞(상가 지역)
● 5층건물 중 4층 42평 방1칸, 베란다에 주방
● 가액 : 보증금 2천만원, 월50 (보증금 절충가능)
시설비 : 답사 후 절충
011-258-6432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 ● 위치 : 서울 산속
● 부지 : 450평 ● 부지 : 500평 국유
● 법당 : 35평 목조 ● 법당 : 25평
● 요사 : 90평 ● 요사 : 60평
● 가액 : 9억 ● 가액 : 5억5천
전국 사찰 암자, 포교당, 부전스님, 공양주 소개 합니다
광진불사 02)723-4082

사 찰 안 내
● 사찰, 사찰부지(서울, 경기, 강원, 충청 전문)양도, 운영하실분
● 철저한 권리분석과 입지분석으로 재산권보호
● 법적책임보장(손해배상 공제가입함)
● 양심과 正道로 성실히 봉사하겠습니다
● 은행 · 일반융자 좋은 조건으로 알선해 드립니다
正道 공인중개사 사무소
010-6734-8255, 02)765-0303
사찰, 암자, 기도원, 연수원, 명당터 확보함

사 찰 안 내
● 위치: 경남 김해시 인제대 후문
● 4층건물 4층(엘리베이터) 70평 원목장식 최고시설
● 법당20평, 방4개,거실,
● 주방,화장실2개,샤워장,도시가스
● 직접보시고 가격절충
055)337-2345
011-884-0742

사 찰 안 내
● 위치: 경상남도 합천 진주에서 30분거리
● 대지: 250평, 법당 25평
● 산신각, 용왕당 있음
● 요사3채(총 70평)
● 가액: 2억 2천만원
011-9571-1710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하동
● 총 770평, 법당 25평
● 요사채 2채, 방4, 큰창고, 주차시설완비
● 관상용 양어장
● 비구니스님 기도처 명당
● 가액: 2억원
010-3138-4897

포 교 원 안 내
● 위치: 충북 대학 근처
● 사주보실스님 적합 몸만오시면 즉시법회가능
● 보증금 1,000만원 월 25만원
시설비 1500만원(절충가능)
010-2877-7746

사찰 및 토굴안내
● 위치: 부산 해운대 바닷가 근처
● 부지: 200평(산자락)
● 법당: 목조 25평
● 요사채(3동):25평+10평+10평
● 바다가 잘보이는 도량, 정남향,주변경관최고
● 가액:6억5천만원
※부산시내 및 암자 토굴 소액 7천~30억까지 다량확보
사찰전문 부동산 부산연산공인중개소 직011)560-8522 051)863-6622

사 찰 안 내
● 위치: 경기도 가평군 소재
● 부지: 300평(종교용지)
● 법당 : 40평(목조,단청)
● 요사 : 40평(목조)
● 기타 : 산신각, 석등
● 가액 : 5억 7천만원
● 특징 : 도심의 정통 사찰임
● 위치: 마산시
● 부지: 약 100평
● 법당: 40평(2층)
● 요사: 40평(1층)
● 가액: 2억 7천만원
● 특징: 신도가 많은 도심 사찰임
좋은인연 됩시다 ※전국 소재 사찰양도 양수 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동진불사 대구 018-689-0455/서울 010-6658-0875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김해시 부원동 새벽시장 입구, 3층 60평
● 스님방, 공양주방, 구원, 주방 시설완벽
● 삼존불,각단탱화
● 몸만오시면 즉시법회가능
● 전세 500만원 월 50만원 전세 1000만원 월 40만원 (조절가능) 시설비 2500만원
010-7406-3866
018-557-5247

암 자 안 내
● 위치:강원도 춘천시 삼천동 산 8-1 신해암
● 대지:100평,건평:30평 임법당
● 텃밭있음, 시설일체완비
● 몸만오시면 즉시 법회가능
● 보증금 1000만원 월 20만원 답사 후 시설비 결정
033)244-2534
011-333-3859

포교당(급)안내
● 위치 : 강원도 원주시 (도심 포교원)
● 평수:약 40평 법당, 요사채, 주지실, 방1
● 가액: 보증금 500만원에 월 35만원 시설비 1천만원 즉시 입주 법회가능
010-5877-8630

사 찰 안 내
대둔산 도술봉 약사 기도도량
● 위치: 금산군 진산면 두지리
● 대웅전, 칠성각, 산신당, 영험한 약사용궁, 천신당, 굿당
● 요사채(방4개, 화장실2, 다락1, 거실10평, 주방5평), 대지125평, 전445평 합570평
● 심야보일러, 주차장 2개,
● 포장도로 완료, 마당까지 집입가능
● 가액 : 2억 5천만원
011-9211-4219
041)753-8433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충남 아산(온양온천)
● 특징 : 상가 아파트 밀지지역, 2층 건물 2층
● 역학, 포교스님, 조건양호, 법당(시설완벽)
● 상담실, 스님방, 거실, 욕실, 주방
● 보증금 3백만원, 월 35만원 시설비(집기일체 포함) 1500만원
● 몸만 오시면 즉시법회 가능
041)534-1960
010-6374-0034

도심사찰임대
● 위치 : 전주시내 중심, 단독상가주택 밀집지역
● 2층 40평내 법당 1, 큰방2, 스님서재방1
● 부처님 삼세불 4자3치, 후불목탱 순금조성 14자6치 신중목탱 순금조성 8자 6치 칠성목탱 순금조성 8자 6치
● 완벽하고 깔끔한 사찰, 즉시입주
● 전세 6천만원, 월세가능, 주차확실
● 비구니스님도량으로 완벽함
● 주인 직거래, 답사하시어 의논바람
010-6411-2882

사찰 터 최적지
● 경북 봉화군 석포면 소반야 계곡 (1200평당 15만원)
● 제천시 수산면 남한강 옆 (1400평당 10만원)
● 단양군 · 읍 천동리 소백산 밑 (3000평당 5만원)
016-464-6386
제천시 보월조경 한산 합장

천하절경명당터청정계곡접
● 서울에서 1시간 30분 2시간 소요 ● 위치:강원도
● 1만여평부지내 건물 10여동
● 모든것 완전구비 30억 이상 투자, 사찰역사 300여년, 개인소유
● 가액: 17억
※중개인 전화 사절
017-373-5998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남 고성군 고성읍내
● 법당, 약사전, 산신각
● 평수 : 대지114평, 공양간, 요사채, 방 4칸
● 가액 : 1억 (융자 2천만원 포함) 내방 후 절충가능
● 즉시 법회 가능함
017-846-4667

사찰부지안내
● 위치: 경기도 양평군
● 부지 : 1870평(전)
● 우측에 맑은 계곡, 앞쪽은 큰 하천
● 가액 : 2척9천만원
011-531-5562

포 교 원 안 내
● 위치: 서울 종로구 종로5가
● 평수 33평, 법당15평, 요사, 방
● 가액 : 보증금 2,000만원 월 90만원
시설비 답사후 결정
031)966-1104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부산연산동(도로변)
● 평수 : 100평(4층, 5층 각 50평)
● 보증금 4천만원, 월 70만원 시설비 답사 후 결정 ● 몸만 오시면 됨
※ 1. 행자스님모집
2. 사물, 의식, 강의 무료로 가르쳐 드립니다.
051)867-4567
011-857-1906

포교당(급)안내
● 위치 : 경기도 부천역에서 10분거리
● 4층 건물에 2층, 법당, 방4개, 창고1
● 평수 40평 시설완벽
● 보증금 1000만원 월 45만원 시설비 답사후 결정
● 완벽하고 깔끔한 포교당임
016-373-1517

사찰(급)안내
● 위치 : 경북 경주시 율동
● 대지 약 120평
● 법당 20평(한옥 단청완료)
● 요사채 2채,30평
● 가액:1억3천만원 (전,월세로 절충가능)
016-533-5100
016-525-0324

사찰(급)안내
● 경남 의령군 자굴산(문수사)
● 총평수:약 1700평 취카면적:약 550평
● 건물:요사채,산신각포함 약100평
※현재 공사중 스님의 건강악화로 인하여 급히 양도 하오니 꼭 필요하신분만 연락바랍니다
● 총 공사비만 약 4억 소요(가격절충)
011-9850-8208
055)572-0405

포교당 안내
● 위치 : 울산 북구
● 평수 : 57평,법당 20평
● 방4개, 공양간, 창고
● 보증금 2천 5백만원 월60만원. 시설비 3천만원
● 특징 : 신흥 주거지역 대단위아파트인접 즉시법회가능
017-517-0097

암자(급)안내
● 위치 : 보배의 진도 진도읍 염장리 래접산 영구암
● 대지:2500평,법당:약45평
● 삼존불, 탱화시설, 산신각 완비
● 요사채 약50평, 방4, 부엌
● 가액 : 2억 5천만원
061)544-0484
011-9928-0005

포교당(급)안내
● 위치: 경기 고양시 덕양구
● 평수 : 56평 3층건물중 3층
● 공양간, 방, 욕실
● 전세 : 6천만원 시설비 : 2천만원
010-5778-6462

포 교 당 안 내
대구 경북 도청옆 포교의 중심지
● 대도로옆, 신축건물 90평 A/V有
● 아미타 삼존불, 신중, 삼성 탱화 사천왕, 500인등 있음
● 4층:법당 50평, 요사채 40평(방4)
● 최신식시설, 냉난방완비, 무선앰프
● 보증금 2000만원, 월 125만원 시설비 답사후 결정,모든 시설 완비 (전세로 전용가능)
연락처 010-9598-9117

사 찰 안 내
● 위치 : 광주광역시 동구 아파트개발지역근교
● 대지 247평, 건평 70평 (현대식 건물, 기역자형)
● 교통편리, 산좌수려
● 용도:암자, 명상센터, 수련원 또는 전원주택
● 가액:1억7천만원(절충가능)
011-9430-1144

포교원(급)안내
● 위치 : 부산 해운대구 반송동 (대중교통편리)
● 건물 1, 2층(총 120평, 각 60평) 1층 : 법당(약40평), 산신각, 용왕당 2층 : 종무실, 요사채 등
● 총인수금 : 1500만원 (보증금 500만원, 시설 · 법당 · 비품포함 1천만원)
월세 : 110만원(1, 2층 포함)
010-3534-3872

사 찰 안 내
● 위치 : 부산시 연제구 거제동
● 대지 : 101평, 건물 : 196평
● 교통 역세권, 주차장 완비
● 반지하 52평 : 방4, 복도, 주방, 화장실 1층 52평 : 상업지역, 방6, 주방3, 접포2 2층 요사채 50평 : 방5, 응접실, 주방 3층 법당 40평
● 가액 : 8억7천만원(답사 후 가격절충) 보증금 7천만원, 월 65만원
011-9513-1301

조용한 암자안내
● 위치 : 부산시 기장 해운대신도시에서 10분거리 조용한 암자
● 대지 : 56평
● 작은 임법당
● 가액 : 1억 5천만원
018-561-5364

사 찰 안 내
● 위치 : 서울 노원구 상계4동 산15번지 6통 7반 지장사
● 임법당 : 40평
● 법당, 방3, 부엌2, 화장실2, 욕실2
● 마당있음, 전망좋음 전세 : 5천만원
02)936-0069

지리산 근방 토굴 및 수행사찰터 안내
● 산세수려,송림속 약2,000평 한옥 고목재 5칸 접집, 대목수가 해체한 집
● 괴목 나무 뿌리 미가공 6자 있음 은행나무 18자 2개 있음
● 암자 토굴과 교환 원함
주인직 010-3633-38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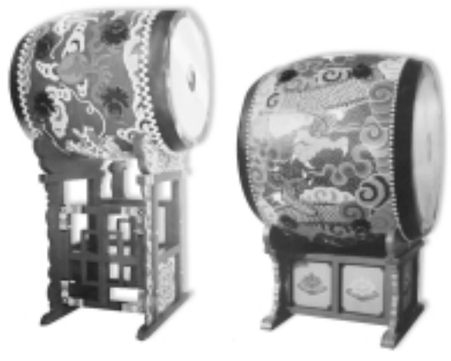
사찰(포교원)안내
● 위치 : 밀양시 무안면(표충비각근교) 국도변위치 밀양시내에서 10분 대구, 부산 30분거리
● 대지: 약200평. 요사채 60평(적벽슬라브)1동 법당 20평(아미타삼존불)1동
● 최고급 시설, 태양열, 단독지하수 설치 사찰비품 및 전자제품일절
● 가액:1억 9천 8백만원 (융자 7000만원 포함) 가격절충
010-8877-7913

별장 및 팬션 · 사찰터 안내
● 위치 : 속리산 인접 쌍용계곡 접함 의상대사가 불통참선 하시던곳
● 대지 254평, 전 1920평 주변 국유지
● 가액 : 6억5천만원
011-9588-3011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광주광역시 충장로 5가
● 건평 : 약40평, 2층, 3층, 살림 가능
● 가액 : 2,500만원 절충가능
010-3163-4747

불교전시관 안내
● 위치 : 울산 북구 호계동
● 실평수 약60평
● 방2, 거실, 주방, 화장실(남,여)
● 보증금 5천만원, 월90만원
● 시설비 상담 후 결정
011-875-6505
052)282-9331~2
혜련스님

절터(무료)안내
● 위치 : 경북 예천군 상리면(고항)
● 평수 : 3000평 (전 및 임야)
● 절터 아주적합 (경관수려, 계곡옆) 일단 연락주세요
011-501-2124

양지 국악사
무용 국악용품 전문 매장
양지국악기 제작소
태고(절북), 승무북, 모듬북
장고, 징, 꽹과리
◆ 국악기에 대한 자부심이 남다릅니다
◆ 전통의 아름다움 그대로 제작 합니다
◆ 더 저렴한 가격과 더 좋은 품질로 다가 갑니다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www.yangjikukak.com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

탈종공고
● 성명 : 김재근
● 법명 : 덕밀(德密)
● 주소 : 충남 공주시 반포면 학봉리 229
상기본인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07년 7월 13일
대한불교 일붕선교종 총무원장 법하

암 자 안 내
● 위치 : 밀양시 산내면
● 대지 : 500평 ● 건평 : 약100평
● 법당, 산신각, 요사채, 황토방
● 대구부산 신고속도로→ 밀양IC에서 6분거리
● 대지 전체 돌담 법당 뒤 대밭 옛날 장독 100점 포함
● 가액 : 3억 5천만원
010-5572-1501

사찰(급)안내
● 위치:부산
● 대지:60평, 법당 30평, 요사 30평
● 사정상 급매함
● 가액:1억 7천만원 (절충가능,은행융자 3천5백만원포함)
011-9543-0226

사찰전세 및 월세안내
● 위치: 정동진
● 보증금 2000만원, 월25만원 전세 3500만원
● 넓은 텃밭, 모든시설완비
011-9918-5251

포교원(급)안내
● 위치 : 대전 유성시장 앞
● 47평 2층건물 (옥상사용)
● 보증금 500만원 월 37만원
● 시설비 1,300만원
● 모든 시설 완비 몸만 오시면 됩니다
042)825-3020

사 찰 안 내
● 위치 : 대구 아파트 밀집지역 (시장 사거리)
● 평수 : 50평(3층 건물중 3층)
● 옥상 50평 사용가능 큰방1, 작은방1, 창고
● 삼존불, 후불, 신중, 칠성, 산신탱화, 법당 엠프시설, 법당과 큰방 에어컨설치
● 가액 : 보증금 1천만원, 월40만원 시설비 답사 후 결정(손볼곳 없음) 사정상 급 양도
011-9041-1349

포교당(급)안내
● 위치 : 대구광역시 두류1동 대구대학 건너 대도로변 주위 대명시장, 성당시장 및 서부 주차장 인접
● 2층 평수 약 40평정도
● 정법 포교 도량으로써 법당 내,외부 단청필 (불상후불탱화제외함)
● 주지실, 공양실, 화장실 양호함
● 대불사 관계로 실질금액의 절반
● 보증금 500만원 월 30만원 시설비 1000만원 합계 1500만원에 양도함
011-9237-3340
055)221-3358

포교원(급)안내
신축불사 이전관계로 급 안내
● 위치 : 대전시 동구 (고속터미널과 IC 5분거리)
● 3층 건물중(2층 약53평)
● 주위 : 대단위 아파트단지
● 아미타3존불(지장, 관음, 대세지), 신중단, 약사불, 영가단
● 시설 : 법당(30평 에어컨시설), 주차장, 공양실(에어컨시설), 스님실 2개 (에어컨시설), 남여 화장실, 별도베란다
● 최고시설 : 온난방, 불기 및 기타, 일체 양도, 즉시법회
● 보증금 1천만원, 월 60만원 시설비 : 1천9백만원
010-3151-5245

포교원(임법당)안내
● 위치:충남 온양터미널 부근
● 비구니 스님 적합
● 대지 60평, 건평 25평 법당(삼존불 봉안)
● 방2, 욕실, 주방(시설완비)
● 가액 : 9천5백만원(조정가능) 시설 및 집기일체 양도
041)533-0853
010-3011-0853

혹시! 우리 아이가 'ADHD'?

(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

초등학생 100명 중 5~6명 판정, 사회 문제로 부각

여섯 살 지은이(가명)의 엄마는 늘 마음을 놓을 수 없다. 지은이가 손발을 끊임없이 움직이고 책을 읽을 때도 1분 이상 집중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질문이 채 끝나기도 전에 대답을 하거나 쉽게 화를 내기 때문이다. 처음엔 단순히 '말 안 듣는 아이'라 여겨 야단도 치고 벌도 줬지만 그 때뿐이었다. 최근 어린이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지은이의 병명은 'ADHD(주의력결핍 과다행동장애)'라고 밝혀졌다. 우리나라 초등학생 480만 명 중 20만 명 정도가 앓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ADHD가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불교계에서도 조계종중앙신도회 부설 사단법인 날마다좋은날(이사장 김의정)이 ADHD의 심각성을 알리고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날마다좋은날'과 '꿈을 안고 내일로 우리들'이 공동주최한 캠프가 7월 7~8일 평택 무봉산 수련원에서 장애아동과 학부모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사진제공=날마다좋은날

'말 안 듣는 아이' 치부 일반적 …뇌 신경 이상 등 원인
약물 · 부모상담 · 자기 통제 훈련 등 통해 치료 가능
'날마다좋은날' 교육 실시, 11월 사회성 향상 캠프 예정

▷ADHD란?

정확한 집계는 어렵지만, 초등학생 100명 중 5~6명 정도가 ADHD 판정을 받을 정도로 취학 전후 아동에서 흔히 나타나는 소아정신과 질환이다. ADHD는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지나친 충동성이라는 세 가지 큰 특징을 나타낸다. ADHD 아동은 손발을 가만히 두지 못하거나 수업시간에 제자리에 앉아있지 못하는 행동특징을 보인다. 또한 주의가 산만해 한 가지 과제나 행동에 집중하지 못하며 물건이나 숙제를 자주 잊어버린다. 다른 사람의 질문이 끝나기도 전에 대답을 하거나 수다스러울 정도로 말을 많이 하는 것도 ADHD 아동의 행동특징으로 간주된다.

▷원인과 치료법은?

ADHD가 의학적인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인식된 지 60여 년이 넘었지만, 국내에서는 이를 '병'으로 보지 않고 단순히 '말 안 듣는 아이' '주의가 산만한 아이'로 치부하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다. 최근 2~3년 사이 ADHD 판정을 받은 아동이 급격히 증가하자 의학계와 사회단체 등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는데 앞장서고 있다.

ADHD의 발병 원인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려진 바가 없다. 현재 전문가들은 유전적 요인과 뇌의 신경 화학적 이상, 임산부의 영양부족과 흡연 · 스트레스, 부모와의 애착관계 부족에서 오는 심리적 요인 등을 원인으로 꼽는다.

이러한 ADHD의 치료시기를 놓칠 경우 청소년이 되었을 때 학습 능력이 떨어지거나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고립되는 등의 문제로 발전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소아정신과에서 ADHD로 진료를 받고, 제대로 치료를 받고 있는 아동은 전체의 10% 정도에 불과한 실정이다.

ADHD 아동은 약물치료와 부모교육, 자기통제 훈련 등을 통해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제때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불교계 움직임은?

7월 7~8일, 경기도 평택 무봉산 수련원에서는 특별한 캠프가 열렸다. 사단법인 날마다좋은날과 장애아동 부모들의 모임 '꿈을 안고 내일로 우리들(cafe.daum.net/ADHDParents)'이 공동주최한 ADHD 아동을 위한 캠프였다. 장애아동 60여 명과 학부모 등 150여 명이 참석한 이번 캠프는 전문가와의 질의응답을 통한 궁금증 해소, 부모들끼리의 정보공유와 상담교육, 공동체 놀이, 체험마당 등으로 진행됐다.

날마다좋은날은 7월 9일 ADHD 아동을 위한 안내서 <행복한 아이를 위하여>를 발간하고, 불교계 복지관과 어린이집 등에 무료로 배포하고 있다. 또한 7월 19일에는 보육교사와 초등교사 등 교사를 대상으로 한 상담교육을, 8~9월에는 학부모 교육사업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오는 11월에는 장애아동의 사회성 향상을 위한 캠프도 개최할 예정이다.

조계종중앙신도회 이상근 사무총장은 "중앙신도회는 종단의 어린이 · 청소년 포교의 일환으로 취약계층인 ADHD 아동 지원 사업을 펼치게 됐다"며 "불교의 우수한 정신문화를 바탕으로 장애아동의 심리치료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검사 어디서 받나?

아이가 조금만 산만하거나 분주하게 움직인다고 해서 무조건 ADHD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부모와 교사를 포함한 주변 사람들의 정보를 바탕으로 전문가의 소견에 근거해 판정이 가능하다. 미국정신의학회 진단기준에 따르면 △ADHD의 여러 증상 중 6가지 이상이 적어도 6개월 이상 지속되고 △증상의 일부가 만7세 이전에 나타났으며 △두 군데 이상의 상황(학교와 집 등)에서 증상이 발견되었으며 △이러한 증상으로 인해 사회적 기능의 장애나 학습기능장애를 일으킬 때 ADHD라고 진단한다. 때문에 부모는 아이가 이상증상을 나타낼 경우 행동특징을 꼼꼼히 살펴본 후 전문가의 진단을 받도록 한다.

불교계 복지관에서 ADHD 진단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곳은 다음과 같다.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ADHD 치료 받을 수 있는 불교계 복지관>

강북장애인종합복지관	02-989-4215
군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	031-396-3108
마포장애인종합복지관	02-306-6212
과천종합사회복지관	02-507-6319
구로종합사회복지관	02-852-0525
궁동종합사회복지관	02-2613-9367
길음종합사회복지관	02-985-0161
본동종합사회복지관	02-817-8052
부곡종합사회복지관	031-417-3677
부천시덕유사회복지관	032-325-2161
삼전종합사회복지관	02-421-6077
수유종합사회복지관	02-903-6940
사회복지법인 승가원	02-928-0750
옥수종합사회복지관	02-2282-1108
신길종합사회복지관	02-831-2755
자양사회복지관	02-458-1664
청담종합사회복지관	02-806-1377
한솔종합사회복지관	031-716-4215

조계종중앙신도회 부설 사단법인 날마다좋은날은 7월 19일 오후 5시부터 조계사 교육관 2층 3강의실에서 'ADHD 아동 이해를 위한 교사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은 ADHD의 정의와 치료법, ADHD 아동에 대한 학습 · 생활 지도법 등으로 진행되며, 아동교육관련 종사자나 아동교육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석 가능하다. 참가비 1만원. (02)733-7277



43. 한국의 다성(茶聖)

조선 후기 왕권이 약화되고 기강이 해이해지면서 전통적 성리학에 반기를 드는 주장이 대두된다. 사실에 기초하여 진리를 탐구하고자하는 학문적 경향을 가진 지식인들은 승려들과 교유를 통하여 불교를 이해하고자 한다. 승려들 역시 사원 경제가 더욱 어려워지자 새로운 사상과 사회에 관심을 갖게 된다. 이러한 상황은 사찰의 승려들과 문사들 사이에서의 교유로 이어져 차(茶)는 승려들의 수행이나 청빈한 문사들의 마음(心)을 전하는 하나의 매개물이 된다. 이처럼 한국의 차문화는 동면(冬眠)에서 깨어나 새로운 영초(靈草)를 피우듯 조선의 침체기를 거치면서 차(茶)와 선(禪)의 경지가 하나라는 다도(茶道)문화를 꽃 피우게 된다.

초의 선사 문사들에 우리 차 우수성 일깨워
<동다송> 차 문화 부흥시키는 지침서 역할

이처럼 열악한 우리의 차를 중흥시킨 인물은 한국의 다성(茶聖)이라 불리는 초의선사(1786~1866)이다. 그는 조선 후기 해남 대흥사 12대 종사로 15세에 출가하여 선(禪)과 교(敎), 시(詩), 차(茶)에 밝았다.



백화사 응송 스님 방에 있던 초의 선사 영정.

초의가 교유한 인물은 다산 정약용, 추사 김정희를 비롯하여 많은 지식인들로 그들의 사상은 초의 선사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다.

초의가 다산을 만나자 승려들은 그가 유림의 세계로 돌아갈 조짐이 있다고 보아 스승까지 의심을 하게 된다. 이에 다산의 훌륭한 덕에 누가 될까 염려하여 왕래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처럼 초의는 유학자들과 신분을 초월한 교유를 하고 우리의 산천을 두루 여행하면서 많은 문사들과 시회(詩會)에 참석하기도 한다.

한편 이 당시 문사들 사이에 중국차를 마시는 풍조가 유행하였는데 초의는 자신이 직접 만든 차를 지식인들에게 보내면서 중국차에 익숙해있던 문사들에게 우리 차의 우수성을 일깨워 준다. 초의가 보내준 차를 마시고 많은 문사들은 차에 대한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산천도인 김명희는 "중국의 차는 품질이 조악하고 수놓은 비단 주머니에 싸서 겉치레만 요란 할 뿐 썩은 가지와 단단한 잎이 들어있어 입에 넣을 수가 없으나 초의가 보낸 차는 한 잔을 마시기도 전에 답답함과 갈증을 해소시킨다. 지금까지 조선에 차가 있었던 것을 몰랐으니 찻잎을 따고 덖는 오묘한 삼매에 들어 이것을 터득한 공은 참으로 한량이 없다"는 글을 지어 초의의 차를 칭송하였다. 추사 김정희 역시 매번 초의에게 차를 구하는 편지를 보냈는데 어느 때는 차를 품평하여 불을 조심할 것을 당부하기도 하고, 밀린 차를 보내달라는 투정을 부리기도 하였다. 명선(茗禪)이라는 아름다운 호를 초의에게 지어주기도 한다.

초의 나이 52세에 저술한 <동다송>은 해거도인(海居道人) 홍현주가 북산도인(北山道人) 변지화에게 다도에 대하여 물어오자 초의에게 부탁하여 초의가 다도에 관하여 지어올린 글이다. <동다송>은 우리 차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침체되어 있는 우리의 차 문화를 부흥시키는 지침서가 된다. 이렇게 한국의 차 문화는 초의 선사에 의해 그와 교유했던 많은 문사들 사이에서 다시 태어나게 된다. 초의 선사는 찻잎을 가리고 차를 만드는 일을 자연의 순리로 파악하였다. 이에 김명희는 '노스님 차 고르기 마치 부처님 고르듯 한다'고 하여 초의 선사의 차 다루는 솜씨가 선(禪)과 일치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이처럼 한국의 다도는 자유로움과 평상심 속 있다.

■ 이창숙(동아시아 차문화연구소 연구원)

만 인류가 누려야 할 참사랑, 행복, 진리의 이상세계와 태상가정

당신은 당신의 본성이 꿈꾸는 이상세계를 아는가?

당신이 진실로 행복하길 원한다면 당신은 참된 진리를 추구함에 목숨을 다해 열정을 태울 준비가 되어있어야 한다. 그리고 당신이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 분명히 알아야할 것이다.

- ◆ 당신이 추구하는 진리란 무엇인지 아는가?
- ◆ 생사를 초탈한 절대 공의 세계(반야의 세계)란 어떤 것인가?
- ◆ 부처님의 대자대비하신 품성과 하나님의 심정과 사랑을 체휼하고자 하는가?
- ◆ 대자유함과 무애행의 진정한 의미를 아는가?
- ◆ 완성된 남녀가 나눌 수 있는 천주적인 사랑이 어떠한지 아는가?
- ◆ 깨달은 후에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는가?
- ◆ 당신은 이 모든 것을 얻은 후 이루어 낼 수 있는 이상세계의 모습을 아는가?

본성의 존재는 온 우주와 하나 되니, 가슴을 관통하여 불어오는 바람에서 부드러운 신성의 손길과 마주하고 맑은 물속에 손을 담그면 그대로 내 몸은 그 맑음과 하나가 된다. 청정한 하늘은 이미 나의 가슴이 되고, 사랑의 눈으로 산을 바라보면 산은 어느새 사랑의 파동을 알아채고 깊은 사모의 정으로 나에게 화답한다. 날아가는 새의 날개 짓에서 진정한 자유 함으로 하나가 되고 아름다운 나비의 자태 속에서 너울너울 함께 춤을 춘다. 바람에 살랑대는 나뭇잎의 연애에 온 몸이 싱그러워지고 죽어가는 개미를 구해주니 그 개미에게서 터져 나오는 감사의 정은 신의 사랑으로 온 몸을 휘감고 돈다. 신성의 강렬한 파동은 천지를 사랑의 환희로 넘실대게 한다. 또한 본성의 부부가 마주보고 있으면 몸에서 신비로운 기운이 일어나니 그 사랑의 기운은 서로 어울려 지극한 평화와 미묘한 향기로 피어나 신묘하기 그지없다. 사랑하는 이가 멀리 있다 하여도 사랑하는 마음은 에너지가 되어 상대에게 전해지니 그 사랑 속에 하나 되어 극락을 노닐도다. 서로를 사랑하는 몸짓은 천상의 환희 새, 봉황이 서로 어울려 춤추는 것 같으니 온천지를 환한 빛으로 물들이고 출렁이게 한다. 움직임 하나하나에 사랑의 꽃망울이 터지듯 폭발한다. 이러한 사랑의 황홀함은 오직 본성의 자리에 들 때만이 가능한 것이다. 본성의 존재들이 신의 사랑 속에 서로 어울려 살 때 이루어지는 세계가 바로 이상세계요, 이러한 세계를 알고 누리기 위해 당신은 강력한 의지로 수행 하는 것이다.

이 세상에 태어나 진실한 깨달음과 본성의 사랑, 행복을 꿈꾸는 만수행자는 귀 기울여 들을 지어다. 그대의 꿈은 존재의 완성이 아니겠는가? 그 목적을 위해 바로 갈수 있는 길을 두고 외면한다면 그대는 참 수행자가 될 수 없으니 가슴을 열어 태상가정에서 참된 스승의 인연과 참된 형제의 인연을 반드시 찾길 원하노라.

대한 불교 태상종에서 알려드립니다.

태상종의 모체인 태상가정에서는 수행을 함에 있어서 많은 통로를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태상가정 산하 대한불교 태상종 효충사(대구)를 통하여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들고 많은 이들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어떤 종교와 기타 다른 방편을 통한 수행자라도 성숙한 이라면 함께 할 수 있는 가정 수행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태상가정에서 말하는 이상세계는 부처님께서 설하신 화엄장엄의 세계인 불국토와 다르지 않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인간이 누려야 할 지상 천국의 세계와 다르지 않음을, 모두 하나의 세계를 말하는 바임을 명확히 밝히는 바입니다.
이상의 내용에 의문이 있으시거나 상담을 원하시면 본 태상가정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태상가정에서 준비한 책자를 드리고 있습니다"

참사랑과 진리에 대해 보다 깊은 이해를 원하시는 분께 태상가정에서는 준비한 책자를 무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책의 전반부는 인간의 존재목적을 이야기 하고 본성을 회복한 존재는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는지, 신성과 심정일체를 이룬 부부는 어떠한 사랑을 나누는지, 신의 사랑을 상속받았을 때 경험하는 무수한 아름다운 세계를 노래하고 또한 한 개인을 바라보시는 신의 눈물을 이야기 합니다. 후반부는 구체적인 우리의 삶을 통하여 깨달음의 진리인 공의 세계를 다섯 차례에 걸쳐 알기 쉽게 그리고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깨달음의 장에서는 성자가 세상을 구원할 수밖에 없는 이유, 진정한 대자유함과 무애행이란 무엇인지 말하고 수행자의 사랑은 어떠해야 하는지 등 수행자들이 많이 궁금해 하는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혼백 설명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야 하는지 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지 말합니다. 또한 의식의 성장단계를 10단계로 보고 많은 수행자들이 겪게 되는 성장의 단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지금 내가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볼 수 있게 하고 궁극적으로 인간 모두가 가야할 목적지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생사를 이야기 하고 불국토, 천국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본 책은 전체적으로 신의 사랑은 인간을 통하여 어떻게 드러나고 그 사랑 속에서 신께서 인간을 통하여 이상하셨던 세계가 어떠한 세계인지 그 세계에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게 합니다. 수행자들에게 훌륭한 지침서가 될 것입니다.

태 상 가 정 연 락 처 전 화 053-954-9117 핸드폰 010-6560-9117



현대불교신문 禪書 10권 40% 파격 할인 판매!

올 여름엔 禪書 삼매경에 풍덩 빠져보세요~!

선 백문백답 | 진제 스님 지음



정가 7000원 →할인가4200원

진제 스님의 법문과 문답을 엮은 법문집. 그동안 인터넷에 공개되었던 스님의 법문과, 스님이 대중들과 주고받은 문답이 생생하게 담겨 있다. 수행 중에 느꼈던 의문과 수행법에 대한 궁금증을 털어줘 대중들에게 올바른 깨달음의 길을 제시한다.

철벽을 부수고 벽안을 열다 | 대원 스님 지음

정가 1만3000원 →할인가 7800원

학림사 오등선원 한암 대원 스님의 법어집. 저자의 법어와 선객들과의 대담 등을 담아냈다. 또한 전법 현장에서 좌선의 기초와 화두 참구의 핵심을 일깨워준다.



선승의길 | 대현 스님 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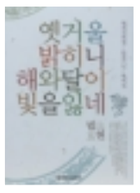
정가 1만2000원 →할인가 7200원

길 없는 길을 가리켜 보이는 대현 스님의 〈선승의 길〉. 보광사 보광선원장인 저자의 수행기와 참선법을 담고 있다. 아울러 인생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깨달아야 할 '네 가지 마음'을 가르쳐줌으로써, 우리가 온전하게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되도록 인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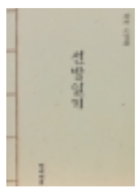
옛거울 밝히니 해와 달이 빛을 잃네 | 법현 스님 지음

정가 1만5000원 →할인가 9000원

서옹 대선사의 법을 이어받은 종성 스님의 제자인 법현 스님 법어집. 생사를 근본적으로 해탈하는 방법은 분별심을 끊어 버려야 가능하다는 가르침을 담고 있다. 또한 분별심을 끊어버릴 수 있도록 화두를 참구하도록 이끈다.



선방일기 | 지허 스님 지음



정가 5000원 →할인가 3000원

1973년 〈신동아〉 봄호 논픽션 공모에 당선된 작품으로 서울대 출신 스님의 선방에서 일과가 솔직담백하게 담겨 있다. '상원사행'를 비롯해 '김장 울력', '산사의 겨울 채비', '결제', '소임' 등 수행자로서의 고뇌와 의지를 담은 20여 편의 글을 실었다.

무문관 혹은 너는 누구냐 | 한형조지음

정가 6000원 →할인가 3600원

한글세대를 위한 선(禪)불교 강의서. 무문의 서문-화 두란 무엇인가, 조주의 개-시뻘겋게 단 쇳덩이를 삼키듯, 남전의 고양이- 짚신을 벗어 머리에 신고 등 46편의 글을 담았다. 선에서의 물음에 그 대답될 수 없는 물음을 통해 선의 역사와 이념, 방법과 한계를 설명.



선어삼백칙 | 차차석 지음



정가 1만원 →할인가 6000원

선수행에 얽힌 일화를 주제별로 소개한 책. 수행에 도움이 되는 핵심적인 일화들을 소개하고, 어렵게 생각되는 선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며 선이 지향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준다. 옛 중국 선사들의 이야기를 통해 수행의 방법과 기초적인 지식을 배울 수 있다.

문 없는 문을 열다 | 현대불교신문 편집부 엮음

정가 1만2000원 →할인가 7200원

〈간화선의 대중화를 위한 10대 선사 초청 범어사 설선대법회〉의 특별법문을 엮은 책. 선 수행이 왜 강조되는가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 세계의 지성들이 주목하기 시작한 한국불교의 전통선인 간화선을 국내 간화선 대선사 10명이 쏟아낸 설선을 통해 이야기한다.



허공의 딸꾹질 | 이종찬 지음



정가 5000원 →할인가 3000원

동국대 명예교수의 선시(禪詩) 해설서. 〈현대불교신문〉에 불심시심이라는 제하에 연재해온 글을 한데 묶었다. 함허당 득통 -바람은 허공의 딸꾹질, 허응당 보우 - 선의 마음 시의 마음,청허당 휴정 -꽃 동네 사람들, 중관 해안 -꽃가지에 오른 새 등을 해설했다.

선 너는 누구냐 | 현대불교신문 편집부 엮음

정가 9000원 →할인가 5400원

2004년 2월 15일부터 5월 9일까지 조계사 대웅전에서 열린 '간화선 중흥을 위한 선원장 초청 대법회'에서 발표된 선원장스님 11분과 조계종 총무원장 스님의 특별법문을 엮은 책이다. 선의 본질과 의미가 무엇이고, 그것을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선용해야 하는지 풀어 설명하고 있다.





문의:(02)737-0695 book.buddhapia.com

"이 름 대 사 전"

- 대법원 선정 인명용 한자 중에서 선별.
- 320여개의 성씨별로 수리오행, 삼원오행, 음령오행, 이름풀이까지 완성하여 한자를 몰라도 선택만 하면 됨.
- 작명,개명,상호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성씨별로 2천-3천개의 이름들을 수록하였음.
- 정가 5만원

" 신 수 비 결 "

2007 정해년의 운세

- 직업, 사업, 재물, 이성과의 인연, 학업 성적 등을 상세하게 정리하여 한자를 몰라도 생년월일만 알면 운세를 알 수 있음. ● 정가 3만원

"인생상담" (무보시)

- 직업, 사업, 투자, 합자, 이성 등의 문제를 불자에 한하여 무보시로 상담해 드립니다.(전화상담은 받지 않고, 예약자에 한함.)

효타암 주지 원공 합장

◆농협 121076-56-092613 (손선미)

부산시 금정구 금사동 34-4 문의 : 051)524-9406

위치 : 금사동 동일고무밸트 옆

"승가건강비법 신비의 나무" [마·가·목]



강원도에는 옛부터 전해오는 속설에 노인이 마가목 지팡이를 짚으면 굽은 허리가 펴지고 아이를 못낳는 여인네가 방안에 마가목 가지를 두기만 해도 수태를 한다는 신령한 나무로써 지금도 승가의 선원에서 참선수도하는 스님들은 기력을 돋우기 위해 마가목 차를 드시고 있으며 산승이 비법을 전수받아 갖가지 진귀한 열매와 약수로 맑고 향기롭게 정성껏 달여서 (1달분 60봉 두재 분량) 보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

▮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 KBS-2 TV "건강하게 삽시다" (강원도 오대산 승가비법 약초기행 마가목을 찾아서)방영

▮ 2000년 10월 25일 수요일 - KBS-1 TV 아침방송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나무차 소개)방영

본초강목, 동의보감 기록

첫째, 그 성질은 따뜻하여 몸이 쇠약하고 풍습비 해수 등을 다스리고
둘째, 흰머리를 검게 하며 두뇌세포를 촉진 통풍, 신경통, 관절염, 기관지염, 방광염, 위염, 폐결핵, 팔다리가 저리거나 허리가 아프고 몸이 차고 냉한 사람
셋째, 중풍, 동맥경화, 고혈압, 풍 예방 및 기력을 돋우어 주어 신장(콩팥)을 튼튼하게 하고 피로를 제거하며 간장을 보호하고 보혈, 신기허약, 조갈증, 당뇨와 고지혈증에 특효
넷째, 불안, 우울, 불면증을 해소하여 골병이 든 어혈도 풀어주며 비만 체질(지방을 분해하여 살이 빠지며)과 성인병 예방
다섯째, 심장을 안정시키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양기를 돋우며 숙취를 해소

※계절이 바뀌면서 체질변화로 인해 항상 피로하고 노곤하며 기운이 없는 사람에게 활력이 생깁니다.

⊙ 약품은 아니며 체질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

"실험사례" 폐 식용유에 마가목 액을 섞었더니 맑게 정제가 됩니다. 즉, 만병의 근원인 혈액속의 콜레스테롤을 제거하여 피를 맑게 합니다.

상담문의 경기도 양평군 용문산 도솔암
전화번호 : (031)775-1285 자수 대진 합장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최신한옥기와, 일반기와, 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창고, 공장, 가정집(전문시공)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서울 · 경기 : 011-327-7697
충청도 : 019-396-1110
경상도 : 010-8674-2357
강원도 : 010-7638-1117

현 대 칼 라 지 붕 공 사


대행스님

진짜로 믿고 행하신다면 진짜 그대로 될 것입니다!

부처님의 참다운 제자가 되려면

문 마음공부를 해 나간다고 하면서도 타력으로 빠지거나 사주와 팔자를 물으러 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저 자신도 그런 의식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부처님의 정법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스님, 부처님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살아가야 부처님의 참다운 제자가 될 수 있을는지요?

답 우리가 무조건 부처님 앞에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부처님의 진짜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를 깎고도 더부룩하게 기르고 다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머리를 안 깎고도 아주 단정히 깎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생각해 본다면, 생명이 있고 마음내고 몸이 움죽거리는 이 삼위일체가 회전되고 있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또 얘기하자면 대승 불교니 소승 불교니 선 불교니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나 동시에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마음공부를 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이름입니다만 주인공(主人空)이라고 하는 그 뜻을 항상 얘기해서 잘 납득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이름을 내세울 수 없는 게 주인공입니다. 한 물건도 없다고 육조 스님은 말씀하셨죠. 뒤집어서 놓고 보면 봄동산에 한 물건이 꽉 차 있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어떤 것이든 내세울 게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신발을 휙 벗어 놓고는 아무 걸림이 없이 여기 들어오듯, 집 안에서 걸레를 빨아서 휙 던져 놓듯 우리 인생은 그렇게 지금 찰나찰나 나투면서 진화되면서 발전하면서 돌아가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의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병고는 어떤 것인가. 여러분이 모두 절에 다녀도 똑같은 소견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넓은 사람도 있고 좁은 사람도 있고 그렇죠. 사람들이 절에 다니면서 기도를 한다든지 기도를 부친다든지, 또는 백 배를 하든지 천 배를 하든지 또 일 배를 하든지 그건 여러분의 정성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마음에 따라서 몸이 움죽거려지는 거니까요.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과거에 어떤 죄업이 있느니 업보가 많으니 이런 데에 걸리지 말란 말입니다. 천차만별로 다가오는 문제들이라든가 또는 그걸로 인해서 내가 무슨 죄를 많이 지어서 팔자가 이렇다느니 운명이 이렇다느니 이러시는데, 이런 데 걸리지 않아야 되겠다는 얘깁니다.

물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한테 그런 의식을 씌워 주기도 싫을 뿐만 아니라 씌워 주기 이전에 벗겨 줘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내가 벗어진다면 여러분도 벗어질 거고 내가 씌어졌다면 여러분도 씌어질 겁니다. 길잡이라는 것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게 아닙니다. 내가 배가 부르면 일체 만물만생 일체제불이 다 배가 부르듯이, 내 한 생각으로 비가 내리게 해서 일체 만물만생을 전부 촉촉하게 배를 불리듯이 말입니다. 이 마음이라는 게 참 묘한 겁니다. 그러니 새달에, 훗달에 어떠니저떠니, 내년에 좋으니 나쁘니, 이런 것에 속지 말라 이 소립니다. 말로 따져서 하자면 무여(無如)라는 것도 있고 일여(一如)라는 것도 있고 여여(如如)라는 것도 있고 즉여(卽如)라는 것도 있겠죠. 이것을 바로 사구공법(四句空法)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것을 타파하지 않으면 우린 자유권

> 우리는 모두가 공생이다!
> 공심이다!
> 또 공체다!
> 공용을 하고 산다!
> 공식이다!

을 얻지 못해요.

우리가 지금 제자리걸음을 하면서 움죽거리고 있는데, 끝간 데 없는 이 평등 진리 속에서 우리는 항상 그런 데 끄달려서 속고 삽니다. 속아서 그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끝간 데 없이 모습을 바꿔 가지고 또 나올 겁니다. 내가 항상 이런 말을 되풀이합니다만 팔만대장경이 글자로만 쓰여 있는 게 아닙니다. 병풍 둘러치듯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게 팔만대장경의 근본이자 바로 실행으로 들어가는 즉행이며 즉여란 말입니다. 우리가 말 한마디라도 즉설이 돼야 법으로 행해지게 되죠. 한데 떨어지면 안 되거든요. 말 한마디 해서 한데 떨어지면 위로는 부처님께 누가 되고 또 아래로는 따르는 사람에게 햇빛을 줄 수가 없어요. 햇빛! 묵은 빚을 갚지 못하고 햇빛을 줄 수 없으니 자라는 애들은 어떻게 자라겠느냐 이 소리지요.

여러분은 생각을 깊이 하셔야 합니다. 부처님은 자기 주인공 속에, 즉 말하자면 우주 섭류의 소용돌이, 법계의 소용돌이, 그 소용돌이 속에 나와 더불어 같이 돌아가고 있거든요. 한마음 속에 말입니다. 주인공이라는 것이 그것이거든요. 그러니 부처님을 믿고 다니더라도 둘 아니게 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법당에 오면 부처님 몸과 내 몸이 둘이 아니요, 부처님 마음과 내 마음이 둘이 아니요, 부처님 생명과 내 생명이 둘이 아니니 어찌 일체 만물의 생명과 나의 생명이 다르며, 법이 다르며, 움죽거리는 게 다르겠습니까? 그래서 불과 법이 둘이 아닐지언댄 승보도 그러하니라 했습니다. 이 몸은 그냥 따라다니는 껍데기입니다. 그런 껍데기 차와 같은 거죠. 운전수가 가자는 대로 가는 차.

그러나 그 껍데기도 소용없는 게 아니죠. 그건 화두예요! 내가 이 세상에 나왔으니 화두요! 내가 없었더라면 우주도 있는지를 몰랐고 이 세상도 있는지를 몰랐고 상대도 있는지를 몰랐다 이거죠. 그런데 내가 있었기 때문에, 이 지수화풍의 근원이 있었기 때문에 생명체들이 나왔죠. 그렇듯이 지수화풍이 있기 때문에 일체, 물질적인 이 모든 것이 지수화풍이 모여서 움죽거리고 있거든요. 우리는 이 지수화풍이, 껍데기가 움죽거리는 것보다도 유(有)의 법과 무(無)의 법이 같이 움죽거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이겁니다. 마음 따로 있고 육체 따로 움죽거리고 이러는 게 아니죠. 마음내는 것 따로 있고 움죽거리는 육체 따로 있고, 마음내는 놈 따로 있고 마음내기 이전 놈이 따로 있고 그런 것도 아니고요. 그놈이 다 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이 의식적으로 '내가 여기다가 갖다 놓지 않으면 죄를 사해 주지 않겠지. 여기 칠성님 전에 놓지 않으면 우리 남편이나 자식들의 명이 길지 않겠지. 약사보살한테 놓지 않으면 병이 안 낫겠지.' 이런 생각일랑 아예 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이라는 건 고정됨도 없을 뿐더러 고정관념도 없다 이거죠. 생각해 보세요. 만나는 것도 말하는 것도, 보는 것도 듣는 것도, 먹는 것도 가고 오는 것도 고정됨이 있는가. 모두가 공했어요. 공한 것은 없어서 공했다는 게 아니거든요. 한 찰나 찰나 나투며 돌아가기 때문이죠. 어린애 적의 나를 나라고 할까요, 늙었을 적의 나를 나라고 할까요? 나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한 물건도 없다고 말씀하신 게 꽉 찼기 때문에, 한 물건이 꽉 찼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원효 대사는 한 물건이 없다고 하기 이전에, 빗자루로 깨끗이 쓸어 놓으니까 낙엽을 일부러 갖다가 뿌려 놓으면서, 잘못 쓸었다 이거예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마음을 가난하게 가진다면 항상 바둥거리고 지혜로운 생각이 안 납니다. 왜 놓지를 못해요?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신발 벗어 놓고 들어오듯 그렇게 착을 두지 말고 놓아라 이겁니다. 본래 놓고 가는 거니까. 본래 제자리걸음으로 끝간 데 없이 놓고 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음으로 항상 이게 옳으니 그게 옳으니 하고 따지거든요. 그렇게 따지는 것은, 이건 배고 이건 돌대고 이건 사공이고 이건 물이고 이렇게 따지는 것은 교리에 관한 건이겠지요. 그런데 지금 저는 목마르면 직접 그냥 마시는 걸 말하는 겁니다.

> 부처님은 자기 주인공 속에
> 우주 섭류의 소용돌이
> 법계의 소용돌이 속에
> 나와 더불어 같이
> 돌아가고 있다!

아무리 여러분이 불제자로서 수십 년을 다녔다 하더라도 실천이 아니라면 소용없는 겁니다. 목마른데 물을 보고도 못 먹는다면 '아! 여기 이렇게 좋은 물이 있다더라.' 하고 보고 듣고 해도 자유스럽게 떠먹지 못하고 떠 주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묵은 빚을 갚으며 햇빛을 줄 수 있겠습니까?

함이 없이 시험을 보려면…

문 대입 시험을 앞둔 수험생입니다. 며칠 전에 고3 법회에 갔는데 스님께서 나를 버리고 주인공으로 살라는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지 법문을 들을 때는 '그래, 정말 나는 없는 거다.' 하고 진짜 느끼면서 자신감도 생기고 또 '정말 할 수 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다.'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스님 법회가 끝나고 얼마 안 있어서 갑자기 자신감도 없어지고 어떤 때는 정말 믿지 못하고 나를 못 버리는 거에 대해서 화가 나기까지 합니다. 어떻게 하면 스님 말씀처럼 함이 없이 주인공에 맡기면서 시험을 볼 수 있는가 해서 질문을 올립니다.

답 그런데요, 한 발짝 떼어 놓으면 한 발짝 없어지고 또 한 발짝 떼어 놓으면 한 발짝 없어진다고 그랬죠? 그것이 가만히 편안하게 다 버리고 있으란 말이 아니죠. 어떻게 들었어요? 연방 발이 고정되게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떼어 놓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할 때 '나를 버려야 된다.'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자불이 하는 거다' 한다면 나를 완전히 버리는 거예요. 안 그래요? 간략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버려라' 하는 것은 나를 버리고 중심 즉, 자불(自佛)만 믿어라 이 소리거든요. 학생이 영원한 생명의 근본이 없으면 몸은 송장이 되거든요. 내 몸이 없는데 어떻게 자불이 있겠나. 그러니 몸뚱이는 자동차와 같고 자불은 운전수와 같고 기름과 같거든. 그러니 차는 운전수를 믿어야지.

또 딴 걸로 비유한다면 저 나무들이 뿌리 없이 사는 거 봤나요? 본래 자불과 학생의 육신은 같이 집을 삼아서 있어. 저 봐. 나무도 뿌리와 싹과 같이 달려 있지? 본래 그렇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믿고 안 믿고가 없이 믿어야 돼. 학생을 리드해 나가고 학생의 보디가드가 돼 줄 수 있고 학생을 이끌어 줄 수 있고 해결해 줄 수 있고 가정을 화목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바로 자기의 참 기사니까. 그러니 시험을 보더라도 이거는 자불 주인공만이 이거, 이런 과목은 이렇게 할 수 있고 저런 과목을 볼 때 저렇게 할 수 있고 또 뭐, 동그라미를 그린다든가 거길 찍어서 놓는다든가 이런 데도 다 거기서 그렇게 하면서 찍고 돌아가야 돼. 모르는 거는 이 안에서 하게 만들어야 돼. 바깥에서 하면 도저히 올팡갈팡이 돼서 잘못돼.

이런 소리를 들었어. 누가 방콕으로 처음에 갔는데, 여기서 시험을 봐도 안 된다 그러기에 그리로 가라고 그랬어. 그랬더니 가서 아마 절정에 도달했던 모양이야. 자기가 말도 통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냥 아주 간절하게 했던 모양이야. 그러니까 말의 뜻을 바깥으로 자꾸 마음에서 내 주니까 그 뜻대로 했던 모양이야. 그러니까 방콕에서 말을 얼른 얼른 배웠다는 거지. 금방 배워서 거기 졸업을 하고 또 중국으로 갔어요. 중국에 가서도 그렇게 할 거야.

☞22면으로 계속






외교법인 한국 – 미얀마 친선교류협회가 적극추천하는

미안마 성지순례 종정스님 친견 대법회

9/14, 10/12 2회출발!
양곤-바간-헤호-짜익티오 7일

₩1,540,000원
(포함 : 탁발공양행사, 특급호텔,성지순례 입장료,인천공항세,출국세,유류할증료, 가이드+기사팁, 미얀마비자발급비, 미얀마 공항세, 미얀마샤브샤브)

◈ 미얀마의 종정 큰스님 친견 ◈

부처님의 위신영이가 가득한 기도처로 유명한 짜익티오에서의 대법회 봉행
예스굿투어가 최초로 개척한 성지!!!!!!!
– 짜이티사웅 파고다 방문 및 우 삔냐디바 큰스님 친견
(짜익티오 : 병마퇴치,병고액난소멸로 환희심이 가득한 기도처로 유명한 곳)

* 예스굿투어는 수익의 10%를 미얀마의 한국기술종합대학교 운영기금으로 기부합니다.

불교 성지순례 전문 여행사
주]예스 굿 투어
tel: 02-365-7747 fax: 02-365-2994

신발을 휙 벗어놓듯 착을 두지 말고 놓으세요!

☞21면에서 계속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지혜로운 요량에 많이 달려 있어요. 그런데 부모들은 지금 이렇게 시급한 학생들을 놔두고도 그거 한마디 얘기 안 해 주는 부모들이 많아요. 그거 뭐 돈이 들으니 못해요, 재산이 없어지니 못해요, 글쎄. 자손들이 아무리 해도 말을 안 들으면 '너의 주인공과 나와 둘이 아닌 까닭에 다 너에게도 불이 켜질 것이다. 이거를 그저 배우고 또 앞으로는 점점 잘 알게 될 것이다.' 하고 관해 줘야 정작 싫다고 하는 사람에게까지도 뜻이 가지요. 그리고 따르는 사람한텐 연방 해 주고요.

어떤 사람은 하도 자기 엄마 말을 안 들어서 밥 먹는 테이블에도 붙여 놓고 벽에도 붙여 놓고 변소 안에도 붙여 놓고 그랬더래요. 그랬더니 그저 그렇게 하는 거니까 한번 해 보자 했던 모양이지요. 그렇게 해 보고 가니까 살면서 아주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 후에 엄마더러 그러더래요. "나는 처음에는 '어디 정말 되나 안되나 보자.' 하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누가 해 주고 가져가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내가 시시때때로 그렇게 대치를 하고 보호를 하고 그렇게 나가는 겁디다." 하고 고맙다고 하더래요. 그랬듯이 우리가 아무리 싫다 그러더라도 마음으로 관해 주고 벽에 붙여 놓고 한번 해 본다면…. 그건 진저리나게 하는 거는 아니니까요. 그리고 제 나무는 제 뿌리를 믿어야 공덕이 있다고 하는 것도 그렇고요. 하여튼 모든 것이 우리가 생각하고 마음먹기에 달린 건데 마음을 제대로 먹지 않아서 분란이 일어나고 그러는 거지, 마음을 제대로만 먹는다면 분란이 날 것도 앞서 대처해서 없애 버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처음에는 항상 내가 하는 게 아니다, 자불 불성이 있는 줄 알아야 한다. 그래서 내가, 참나가 있는 줄 알아야 하고 그 다음에 참나가 있으니까 그걸 믿고 여여한 줄 알아야 합니다. 또 여여한 줄 알았다면 갖추어 가지고 있는 걸 알아야 하고, 갖추어 가지고 있는 걸 알았다면 일체 만법을 들이고 내고 아무리 끝없이 해도 함이 없이 하는 도리를 알아야 구경경지에 이른다 이런 소리입니다.

꼭 명심해야 될 것이 있다면…

문 얼마 전 캄보디아로 여행을 갔던 여행객들이 탄 비행기가 추락을 해서 전원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이제 좀 여유가 생겨서 평생 가 보지 못했던 곳들을 좀 다니면서 노년을 마무리하려고 계획 중인데 정말 어디에 있고 무엇을 하든 부처님을 의지처로 삼아서 부처님의 가피력을 잃지 않도록 항상 기도하고 살아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부쩍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짧은 거리를 움직일 때마다 부처님께 사고나지 않게 기도하면서 차를 타고 있습니다. 스님,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마음을 내야 좋은 모습으로 생을 마감할 수 있을까요? 살아생전에 꼭 명심하고 유념해서 마음을 내야 할 것들이 과연 어떤 것인지 가르침 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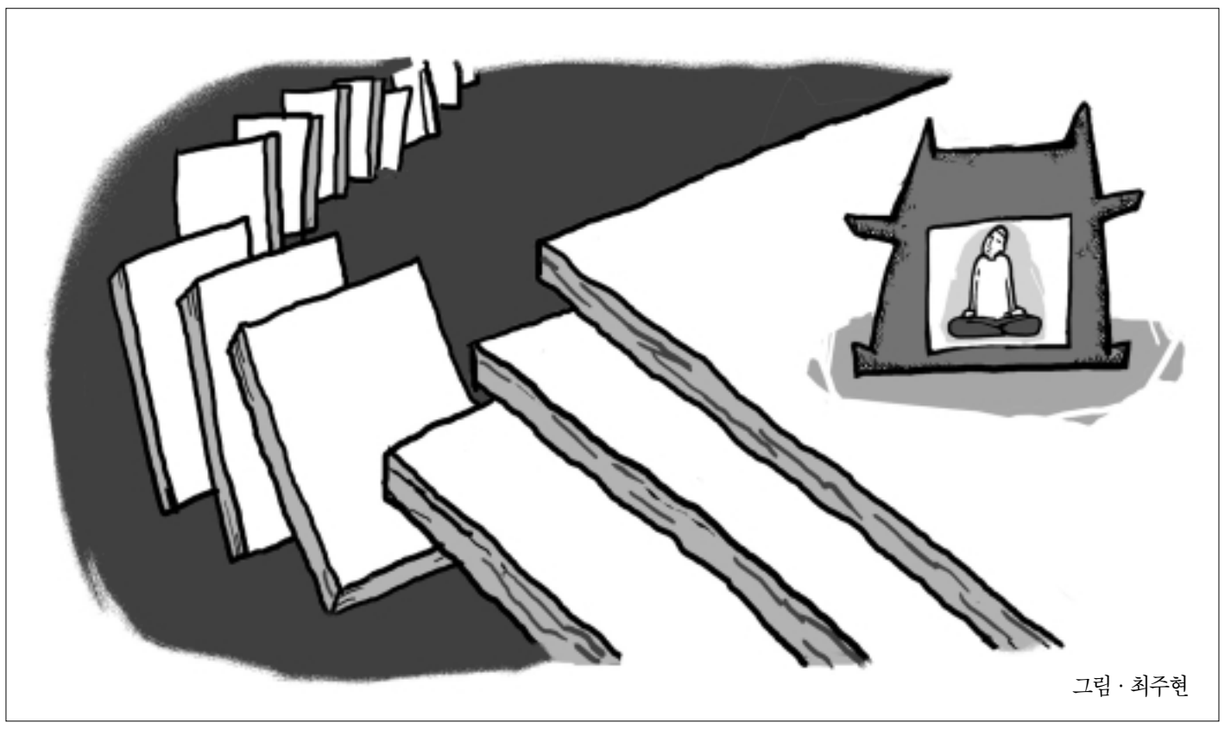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답 우리가 부처님 법을 배우기 이전에, 부처님께서도 진리를 탐구하셨고 그 진리를 깨치셔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부처님 법을 배우기 이전에 꼭 명심하고 알아 둬야 할 문제들이 있습니다.

대신 살아 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 밥 먹고 똥 싸고 잠자고 죽는 것을 대신 해 주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린 이 지구라는 한 주머니 속에서 미생물 하나도 버리지 않고 복닥복닥 살고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잘 아시죠? 그렇게 거기 한 주머니 속에서는 미생물 하나도 버려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속에서 개개인들이 모두 탄생됩니다. 우리가 생산처라고 하는 그 문제에 의해서 샛별을 받고 정자 난자를 받아서 삼합이 한데 합쳐져서 인생이 태어난단 말입니다. 태어나는 그 까닭은 생명의 근본이 바로 거기에 결부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몸을 가만히 보세요. 지구의 공기주머니나 내 모습의 공기주머니나 다르지 않다 이런 겁니다. 다를 리가 없다. 많은 생명체들 중에 하나가 바깥으로 뛰어나온다면 죽습니다. 그리고 이 지구에서도 바깥으로 나갈 수가 없죠. 죽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지구 주머니 한 주머니에 담겨 있기 때문에 공체로서 이렇게 살고 있다. 우리가 전부 공체다. 우주가 달리 있고 지구가 달리 있고 우리 사는 게 달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 더불어 같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들 생각하십니까? 그 마음 씀씀이는 자유스러운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저기다 써 달라고 돈을 가져 왔는데 내가 마음대로 딴 데다 썼다고 합시다. 이건 자유스럽게 쓸 수 있으면서도 근본을 지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거라고 등한시해서 중요시하지 않고 아무렇게나 생각한다면 그건 내 탓이죠.

하나에서부터 열까지 전부 하나로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아무 말도 없이 갖다 놨다 하더라도 그 갖다 놓은 사람이 알고 있어요. 얼마 넣었다는 것까지도 알고 있죠. 알고 있기 때문에 불성이 알고 우주간 법계에서 다 알고 있죠. 그래서 거짓이라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엉뚱하게도 남을 고달프게 하면서 돈을 긁어모아 불사한다면 이것도 위법이죠. 단돈 얼마라도 진짜 내가 생각이 있어서 할 때에 그것이 바로 공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몸이 공체로서 사는데 우리가 알고 보면 우주와 더불어 공생이면서 공심입니다. 그리고 공체입니다. 그리고 공용을 하고 삽니다. 그리고 공식하고 삽니다. 공식은 만법을 들이고 내는데 하나로 돌아가게 합니다. 그런데 '만법이 하나로 돌아가는데 그 하나는 어디 있는고?' 하고 옛날 선지식들이 물었습니다. 정말 만법을 들이고 내서, 들이고 내는 법을 굴려서 그 하나가 어디 있는가를 진정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굴리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 씀씀이에 달려 있겠죠. 잘못된 건 잘못된 것대로 회개를 하고 거기다 놔 버리고 잘되는 건 감사하게 놓고 굴려야 올바로 굴려진다 이겁니다. 그리고 끄트머리에 가서는 반드시 '네가 있다는 것은 네가 증명할 수 있어.'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둘이 아닌 까닭입니다. 전체가 모두 둘이 아닌 까닭에 그렇습니다. 이 둘이 아닌 도리를 여러분께서 잘 아신다면 정말 시쳇말로 '왔다'죠. 견성만이 아니라 성불까지도 거기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견성이다 성불이다 하는 것도 이름이지 그걸 누가 갖다 주는 게 아닙니다.

연등부처님께서 "너는 이다음에 석가가 되거라."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시는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 말을 하신 분도 그분이고 그 말을 듣는 분도 그분이에요. 화했으니까요. 그러니 여러분이 이렇게 간단하게 요체로써 실천해 간다면 250계고 300계고 간에 계율을 일부러 지키려 애쓰지 않아도 그냥 자연적으로 낱낱이 지켜지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윗분들도 돌아가시고 또 아랫사람들도 돌아가고 그래서 영가들이 많습니다. 산 분이 50%라면 영령들이 50%예요. 모르는 분들은 자기 고달픔에 힘들고 또 영령들은 몰라서 고달프니까 힘들고, 자기가 모르는 탓으로 영령들도 모르죠. 죽으면 부딪침이 없기 때문에 공부를 못하게 되니까요. 근데 산 사람이 공부를 하고 모든 거를 거기다가 일임하고 놓는다면 그대로 그냥 공용이 되죠.

그러니 그 모든 것이 영령들도 그렇고 조상들도, 조상이 영령이죠. 그 영령들께서도 그렇고 우리도…, 즉 말하자면 이 세상에 살려면 이름을 붙여야 하죠. 그런데 인과성 영계성 유전성 업보성의 문제 등등이 입력되었다면 여러분께서 그 과보를 꼭 받고야 마는 그런 이치가 있습니다. 오신통이 있는데 그것을 벗어나서 누진으로 가게 되면 누진이 바로 여러분의 자동적인 컴퓨터와 같다 이런 소립니다.

이걸 잘 숙고해서 들으세요. 그러면 지금 생활에도 좋을 뿐 아니라 죽어서도 훨훨 털고 갈 것이니까요. 살아서 훨훨 털지 못하면 죽어서도 훨훨 털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자동적인 컴퓨터에서는 과거로부터 내가 한 대로 수없이 입력된 것이 나온단 얘기죠. 그래서 요다음에 죽어서 또 다시 나와도 그걸 짊어지고 나온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움쭉 못하고 그걸 받아야만 하겠죠.

근데 그 고를 없애려고 한다면 나온 그 자리에다 다시 놔야 없어지지 그렇지 않으면 없어질 수가 없어요. 컴퓨터에 들어간 입력은 다른 걸 넣어야 없어지지 다른 걸 넣지 않으면 없어질 수가 없죠. 그래서 이 공부를 하라고 하라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세상에서 사시면서 얼마나 고달픕니까?

근데 사람이 모두, 자기가 살았다, 자기가 했다, 자기가 망했다, 자기가 흥했다 이렇게 하면서 가니까 문제가 커지죠. 제가 말하는 게 말 같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관하는 거 말입니다. 내가 예전에 이랬죠. 종문서를 없애려고 종 문서를 들고 맡기는데, 종 문서를 맡겨도 그냥 덜썩 믿고 맡기는 게 아니라 못 믿어서 줬다 뺐었다 줬다 뺐었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종 문서가 없어지려야 없어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가 공생이다. 모두가 공심이다. 또 공체다. 공용을 하고 산다. 공식이다.' 라고 한 겁니다. 이 공식은 먹는 것만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모두 해 나가는 거를 말하는 겁니다. 들이고 내는 거를 말입니다. 그러니 그 모두가 하나로 돌아간다 이겁니다. '만 불이 일 불이요 일 불이 만 불이라 만 불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일 불이 따로 있지 않다.' 즉 말하자면 일 불도 공해서 일 불이라고 할 수도 없다 이거지요. 하지만 일 불로 돌아간다는 것만 알아도 그거를 빨리 수습할 수가 있을 텐데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될 수 있으면 가정에 이익 되고 화목하시길 바랍니다. 이 공부를 하면 저절로 화목해지고 저절로 의합해집니다. 또 나가서 안 들어오는 자식들도 다 들어오고 나가지도 않게 되고 자꾸자꾸 바뀐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믿고 그렇게 하신다면 진짜 그렇게 될 것입니다.

불국정사 수행 건강음식

구인사에서 불교와 인연을 맺은지 18년이 된 불자입니다.
불교와 인연을 맺기 전에는 건강이 좋치 않아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할수가 없었으나, 불자가 되고 난 뒤, 기도 방식대로 관음 정진을 하였습니다.
정진 중, 천태종 창건주이신 상월 원각 대조사님께서 나타나시어, 음식 조리 방법에 대해 너무나도 선명하게 알려 주셨습니다.

그 방법대로 음식을 만들고, 식생활을 개선한 후 건강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음식업)에서도 큰 성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 후 15년이 지난 지금으로부터 3년전, 대조사님께서 다시한번 나타주시어 약초를 일러주시며 그 약초로 차를 달여 마시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차를 마시기 시작한 후 부터, 나의 몸은 20~30대 때의 기력을 회복하였습니다.

건강한 음식과, 좋은 차로 종교와 종파에 상관없이 대중들의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이 안좋은 분께 건강을 회복할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라는 천태종 창건주이신 상월 원각 대조사님의 뜻을 깨달아 불국정사를 이루어 부처님 법을 만인에게 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은 대중들께 알려드립니다.
불국정사에 오셔서 수행 정진과 좋은 음식,
좋은 차로 건강을 지키십시요.

– 금강좌 합장 –

서울 종로구 창성동 150-3 불국정사
전화 02)736-3091,735-3268
011-9762-7949
팩스 02)3448-0661

건봉사 템플스테이 및 수련회 실시

석가모니 부처님 진신치아사리를 친견할 수 있는 금강산 건봉사는 아미타 염불 만일 기도도량이자 임란당시 사명대사가 승군을 일으킨 호국도량입니다.

이 유서깊고 아름다운 풍광을 자랑하는 건봉사에서 바쁜 생활에 지친 분들의 삶의 재충전을 위해 템플스테이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동참 바랍니다.



일 시

▶1차 : 2007년 7월 27일 ~ 29일
(2박 3일, 일반인 선착순 30명)
▶2차 : 2007년 8월 10일 ~ 12일
(2박 3일, 일반인 선착순 30명)
▶참가비 : 70,000원
▶준비물 : 필기구, 운동화, 세면도구, 우산
▶입금계좌 : 농협 247-01-251767
예금주 : 건봉사 (입금 후 전화연락요)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봉사 종무소로 문의 바랍니다.
전화 033)682-8100~2,011-9800-5798
팩스 033)682-5994

우)219-900 강원 고성군 거진읍 냉천리 36번지
대한불교 조계종 금강산 건봉사 주지 합장

설법 연수생 모집

15년의 전통을 지닌 본원에서는 "실기위주의 맞춤식 개인지도"를 원칙으로 하는 연수생을 모집 합니다.

● 교육목적
◇불교계 지도자의 정체성 확립
◇설법을 잘 할 수 있는 스피치커뮤니케이션의 능력 배양을 목적으로 함.

● 교육내용
◇인간관계에 필요충분조건인 **화술**(스피치 기법)
◇상담과 설법에 필요한 **최면요법**
◇인사말, 축사, 격려사, 주례사, 토의, 토론, 회의진행법 등

● 모집 : 수시모집
맞춤식 개인지도 **8회과정**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가능합니다)

◆ 문의 및 신청 ◆
TEL 02)747-1567
H·P 011-248-1567

한국설법연수원
한국인성개발원
서울 종로구 종로 3가 20(영흥 B/D 4층)
<지하철 1, 3, 5호선 종로 3가역 2번출구>

각 사암 등록 및 종도 모집 합니다
행자, 동자(예비스님)모집 합니다

산세 수려하며 넓은 도량에서 수행하여 미래의 한국 불교를 이끌어갈 고원사에서는 건강하고 불심 가득한 행자 및 동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 합니다.

행자 및 동자
■ 행자 : 55세 이하
■ 동자 : 5세이상 ~ 12세 이하
■ 문의 : 교무스님 010-4860-1824

대한불교 전통 조계종 총무원 고원사
경북 군위군 소보면 신계리 318번지
전화:054)382-3397 / 054)464-4725



불자 세상보기

성 태 용
건국대 철학과 교수

KBS는 여론을 존중하라

우리는 좋은 결과 또는 올바른 목적이라는 명분 아래 그것을 성취하는 과정과 절차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올바른 과정과 절차가 결국은 올바른 목적의 성취와 좋은 결과를 담보한다는 것을 망각한다. 사람은 기계가 아니기에 어떤 행위를 하면 그것이 습성화되기 마련이다.

이것이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업이다. 업은 반드시 결과를 산출하기 마련인데, 어떤 결과를 겨냥한 행위가 꼭 그 결과를 산출하는 데서 그 영향력이 다한다는 법은 없다. 누적된 행위의 방식은 그 자체로 중요한 결과이며, 그것은 그러한 방식에 익숙한 중생들이 사는 세상을 구성하는 힘이 된다. 결국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은 그 속에 사는 많은 사람들의 습성, 즉 업이 가장 친숙하고도 편하게 여기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겠다. 그렇기에 우리는 누가 어떤 좋은 결과나 목적을 내세우며 어떤 주장을 하더라도 그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어떤 방법과 과정, 그리고 절차를 밟아나가는가에 주목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런데 주목하지 않아도 주목을 받을만한 곳에서 절차와 과정을 무시한 일이 일어났기에, 이러한 문제를 좀 깊이있게 논하게 된 좋은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 바로 KBS 수신료 인상 문제가 그것이다.

민주사회는 여론이 이끌어가는 사회라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고, KBS는 여론을 형성하고 수렴하는 대표적 기구이다. 바로 그런 곳에서 충분한 시간을 두고 계획을 수립하고 여론을 수렴하여 완성된 안을 마련하는 과정을 생략한 채, 미리 결정된 안을 합리화하는 도구로 공청회 등을 이용하여 졸속한 결정을 내리려 했다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이다. 여론을 조작하고 이용하는데도가 텃다는 자신감의 발로가 아니라면 이렇게 해서는 안될 것이다.

최종적으로 내놓은 안이 누가 뭐래도 가장 좋은 안이며, 또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식으로 변명하지 말 일이다. 지자천려(知者千慮)에도 필유일실(必有一失)! "지혜로운 사람이 아무리 깊이 생각한다 해도 반드시 하나 빠뜨리는 일이 있다"는 말도 있지 않은가? 그런 마음으로 여러 사람들의 생각을 모아나가는 방식이야말로 언론 기관에서 좌우명으로 삼아야 할 것인데 왜 이리 오만한 행태를 보이는가? 한국 언론의 현주소를 보는 것 같아 참으로 한심스럽다.

또 하나, 힘들고 어렵게 돌아가는 것 같은 절차가 실제로는 가장 안전하고 또 대중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KBS는 모르고 있는 것 같다. 겸손하게 뜻을 묻고, 다른 대안은 없는 것인가를 묻는 기관에 대하여는 자연 호감이 증폭될 수 있고, 그것이 힘이 되어 한 걸음 더 성장할 수 있는 것이다.

방송매체의 대표라 할 수 있는 KBS야 말로 이러한 국민적 호감을 바탕으로 해야 할 대표적인 기관이기에 이번의 졸속한 행태에 대한 실망은 더더욱 클 수밖에 없다. 시청율의 부침에 곤두세우는 신경의 몇 %만 쓴다 하더라도 이러한 방식을 취하지는 않았을 것 아닌가?

다시 한번 힘주어 말한다. 여론 조성에 가장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KBS와 같은 기관이 가장 앞장서서 여론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여러 사람을 뜻을 모으는 데 최선을 다하고, 그 뜻을 모아 앞날의 방향을 결정하는 엄정한 자세를 보여야 한다. 털끝만큼이라도 그렇지 않은 모습이 보인다면, 이는 바로 우리 사회의 민주적 운영에 경종을 울리는 불길한 조짐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이번 KBS의 수신료 인상을 둘러싼 납득할 수 없는 행태는 조그만 조짐에 그치는 것이 아닌, 상당히 심각한 경종이라 할 수 있다. 준비된 결론을 합리화시키기 위한 절차를 형식적으로 밟는 방식은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여론을 조작해 내는 행태로 이어질 수도 있지 않은가?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가장 큰 기둥인 공영방송이라는 위치, 살얼음 밟듯 조심해야 할 엄하고 두려운 자리라는 자각이 있어야 할 것이다.

불자의 눈

동국대의 시급한 '책임과 개선'

조계종립 동국대가 신정아 교수의 학력 조작 파문으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물론 망신스러운 일이다. 이번 동국대의 '망신'은 피할 수도 있었다는 게 학교 일각의 목소리다. 2005년 임용 당시부터 적지 않은 의구심을 불러 일으켰지만 아무도 학력과 관련한 '발언'을 강도 높게 하지 않았다.

때늦게 책임을 묻고 자탄을 하는 것 보다 때가 이르렀을 때 용기 있게 말하고 '적법한 조치'를 취하는 게 훨씬 낫다. 때를 놓치고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는 어리석음은 화살을 두 번 맞는 격이 아닌가. 신 교수가 광주비엔날레의 총감독직을 맡는 바람에 그의 가짜학위 문제가 온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았지만, 그 전에 동국대 차원에서 해결했으면 광주비엔날레 총감독을 맡지 못했을 것이다. 동국대가 때를 놓쳐 망신을 크게 산 것이다.

동국대는 지금이 또 다른 '때'에 이르렀음을 알아야 한다. 이사회의 갈등구조를 일소하고 학교측의 소극적인 대응을 적극적인 개선으로 전환해야 한다. 잘못은 참회하고 책임질 자리에 있는 사람은 용기 있게 책임져야 한다. 그리고 인사채용 시스템을 확고히 하고 어떤 경우에도 절차와 원칙을 무시하지 않도록 단단한 각오를 해야 한다.

오영교 총장의 의욕적인 쇄신 정책과 로스쿨 시행을 대비한 각종 준비활동 등으로 앞만 보고 달려야 할 동국대가 불명예스러운 일로 사회의 지탄을 받는 것은 유감스럽고 유감스러운 일이다. 작은 것에 이끌려 탈피해야 할 때를 놓치지 말고 큰 그림을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사태를 수습해야 할 것이다.

대선관련 단체들의 '앞과 뒤'

선거는 민주주의 실현의 꽃이다. 정치인들이 간혹 선거의 아름다움을 망각할지라도 국민들은 선거에 강한 애정을 가지게 된다. 불교계에도 12월 대선을 겨냥한 각종 단체들이 생겨나고 있다. 종교와 정치는 당연히 분리되어야 하지만 완전한 분리도 어불성설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요즘의 추세다.

대선을 앞두고 유력 주자 혹은 정당에 코드를 맞춘 단체들이 불교계에서 하나 둘 발족되는 것을 보며 두 가지 생각을 하게 된다. 하나는 불교계가 사회 흐름에 발맞추어 불교계 스스로 권익을 보호하고 발전을 위한 각종 현안들을 선거에 반영시키려는 노력이 보인다는 것이다. 선거라는 주권행사를 통해 불교계의 목소리를 드러내겠다는 적극적인 의지의 발현인 것이다.

다른 하나는 선거와 종교(불교)가 잘못 만나면 둘 다 가치를 잃게 된다는 염려다. 불교계의 사회 참여는 갈수록 세련되고 공익적인 차원으로 진화해 가고 있다. 그러나 선거라는 국면은 그런 단계적 진화를 무시한다. 당장의 표에 모든 가치를 집중한다. 그래서 선거판은 종교적 가치와 충돌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지금 생겨나는 일련의 단체들이 얼마나 불교권익 옹호에 앞장서고 건전한 불교문화 발전에 주력할지는 아무도 모른다. 다만, 한 쪽으로 쏠려 불자들을 혼란스럽게 하거나 불자들의 신성한 이름을 내세워 특정인들의 이익을 탐닉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종교자유' 칼럼

20.숭실대 판결 박광서 (서강대 물리학과 교수)

법원, 학생의 '신앙을 갖지 않을 자유' 외면

기독교 대학의 채플 강요에 반발해 대학생들이 종종 문제제기를 해왔으나 법원은 아직 학생인권 차원에서 접근하지 않고 있어 안타깝다.

1995년 숭실대 법학과 고아무개 학생은 6학기 동안의 대학예배 참석을 졸업요건으로 정한 숭실대학의 학칙이 종교의 자유에 반하는 위헌적 학칙이라며, 채플 불참을 이유로 학사학위를 받지 못한 데 대해 학위수여 이행청구소송을 법원에 제기하였다.

당시 1심(재판장 김황식 현 대법관)은 "예배 참석 의무를 학칙으로 정한 것은 학생들의 신앙을 가지지 않을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며 학생의 자유를 외면하였고, 1998년 대법원도 "신앙을 가지지 않을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종교교육 이수를 졸업요건으로 하는 학칙을 제정할 수 있다"고 확정함으로써 인권판결을 기대했던 국민을 실망시켰다.

2005년 11월 참여연대는 국회 인사청문위원회에 제출한 '김황식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의견서'에서 "기본권의 효력이 국가뿐 아니라 학교나 기업 같은 사회적 권력체에도 미친다는 헌법학계의 일반적인 견해를 고려할 때, 법률적 금지사항이 아닌 한 사립학교측의 학칙 제정이 문제없다고 본 것은, 법률보다 상위 법규범인 헌법상 기본권을 외면한 과오를 범한 것이다. 졸업요건과 같이 학생의 학교생활에 있어서 본질적인 신분관계에 관해 법률적 근거가 없다면 오히려 '종교의 자유' 같이 강한 효력을 가지는 기본권을 제한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고민이 없었다"고 비판했다. 문제의 핵심은 '신앙을 갖지 않을 자유'가 침해되었는지 아닌지를 법관이 그렇게 쉽게 판단해도 되는 것인가이다.

법관은 종교학자도 심리학자도 아니다. 그래서 '침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라고 얼버무림으로써 빠져나갈 구멍을 미리 언급해 놓으면서도, 결론 부분에서는 '채플이 학생들의 신앙을 가지지 아니할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과감하게 못질을 하는 바람에 종교사학 손을 들어준 것으로 해석되었다. 지금까지도 이 판결은 무거운 바위 같이 학생들의 종교자유를 위한 그 어떤 시도도 무력하게 만드는 장치로 기능하고 있음은 안타까운 일이다.

대학생들의 70% 이상이 '채플은 원하는 학생들만 하도록 하거나 아예 없앴으면 좋겠다'며 상당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대학생활이 종교의식 강요로 얼룩지고 있는 셈이다. 정신적 폭력의 경우는 성희롱의 경우에서처럼 피해 당사자가 심적으로 피해를 느끼느냐 아니냐가 죄의 유무를 가리는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 추세인데, 법원이 '피해라고 느끼는 것이 이상하다'고 예단해 버리는 순간 피해자가 구제될 길은 막혀버리는 것이다.



'채플 강제 이수'를 반대하며 1인 시위를 벌이는 대학생. <사진제공=연세춘추>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가 없는 희한한 상황, 고통을 받고 있다는 사람은 있는데 그게 고통일리 없다는 황당한 판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난감하다. 흥미롭게도 판결에 참여한 대법관 4인(박준서, 이돈희, 이임수, 서성) 중 불교인은 한 사람도 없다. 가톨릭 신자 1인, 개신교인 2인, 무종교인 1인이었다니 그들이 타종교인들의 심리적 고통을 이해할 수 있었을지 의심스럽다. 종교인권 관련한 판결에는 종교 안배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주문이 설득력을 갖는 이유다.

바로 이 한 건의 판결로 인해 지난 10년 동안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고통을 받아 왔는지, 그 개선을 위해 얼마나 많은 사회적 비용이 소모되었는지 생각하게 된다. 아니 아직도 얼마나 많은 세월 고난의 길을 가야 할지 생각하면, 소수의 권력이 다수의 인권을 이렇게도 쉽게 짓밟을 수 있나 하는 암울한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다. 법원이 국민적 신뢰를 잃는 것은 "가진 자에 관대하고 못 가진 자에 냉혹한 법조계 풍토" 때문이라던 어느 전직 대법관의 고백이 오히려 참신하게 들린다.

인권, 즉 인간답게 살 기본권은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가치이다. 어쩌면 인류 역사는 인권 확보를 위한 투쟁과 진화의 과정일지도 모른다. 육법전서를 달달 외운다고 해서 인권에 대한 안목이 저절로 생기지는 않는다. 인권은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고 몸으로 체화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인간의 본질에 대한 깊은 고민이 없는 이들에게 국민의 권리 보장을 맡겨 놓는다면 위험천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정작 믿었던 사법권력이 약자를 배려하지 않고 국가권력이나 언론 · 학교 · 기업 등 사회권력의 편에 서게 된다면, 그리하여 돈과 권력이 법 위에 지배하고 있어 '법치주의'가 허물어진다면, 아무런 힘도 없는 학부모나 학생들 같은 민초들이 무슨 희망을 갖겠는가.

특정종교 의식을 직접 강요한 대학 당국자는 물론, 피해자의 입장을 깊이 헤아리지 않고 안이한 판결로 간접 폭력을 가하는 일부 법관들의 인권감수성 제고를 위한 평생교육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법원의 판례도 바뀔 수 있다. 채플 강요가 기본권 침해라는 새 판결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 '주권재민(主權在民)'의 원칙을 다시 한 번

바로 그달마도
신비한 영험이 깃든 지명스님 달마도
"영험한 기운이 충만한 지명스님 달마도와 함께 삶의 희망을 키워보십시오"

지명스님
지장보살 가피입은 신비의 달마도와의 특별한 인연으로 지명스님은 오늘도 수도 정진하는 가운데 청정하고 정갈한 공간에서 달마도를 원력삼아 고단한 우리네 삶에 광명의 빛으로 다가오고 계시다.
인연있는 자만이 함께 할 수 있다는 신비한 지명스님 달마도를 당신 곁에 두시어 소망하시는 바를 꼭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지명스님과 함께 상담을...
불교를 알고자 하시는 분이나 이유없이 고통스러운 분, 사업, 취업, 진학, 질병, 매매, 애정, 주변갈등등 남모르게 고민하는 인간사의 모든 장애를 친절하게 상담해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액자달마, 병풍달마)
각자의 근기따라 108가지의 다양한 달마도가 있으니 각기 자기와 맞는 달마도를 스님과 상담 후 인연 맺으시기 바랍니다.

상담 전화 02)2663-6655 010-4616-3335
서울시 강서구 방화 2동 달마사 지명 합장

매일경제신문 인체경영학 연재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수 있다"
일상 생활하며, 공복감 없이 2주에 5~8kg 뺄 수 있다.
95%의 다이어트가 실패로 끝나는 현실에서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은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감량이 된다는 20년간의 임상 경험!
"여성이 살빼기가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가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의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꾸는 발효원액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산업사회의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속에는 현대의학으로도 규명 못하는 노폐물이 장 속에는 이끼처럼 숙변이 쌓이고 관절 사이사이에 박히고 간에는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굳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 빼는 약을 먹거나 물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지지만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해지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 02)523-0708
www.chorokwon.com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명)
글쓴이 : 혜천법사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뛰어 넘을 수 있는 비책(秘策)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 자 안 내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아영가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재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재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재를 지낸 후 신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 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혜천법사
책 자 안 내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 혜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운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1-84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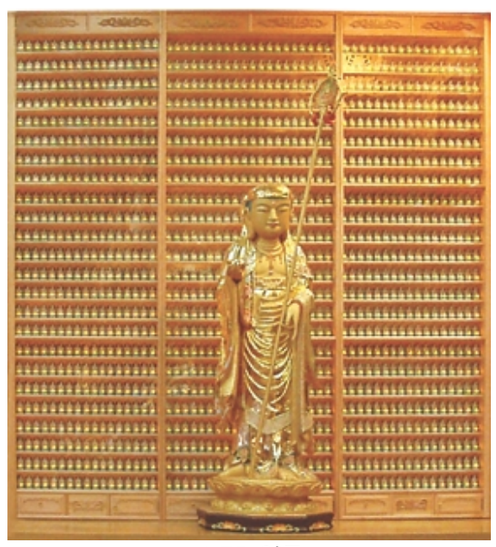
아름다운 등

미래의 소중한 꿈을 담아 삼보공양을 찬덕연등이 함께 합니다

찬덕연등이 개발한 새로운 개념의 신상품

영구위패 · LED 인등 · LED 전구


영구위패


LED 인등

전선(케이블) – 찬덕연등에서 시공한 사찰 (대한불교천태종 광수사 법당)


자동 승강 장치(등표 조정 작업)


연등 자동 승강장치 작동

※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


외부에 시공된 전선케이블

찬덕연등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공고 : 찬덕연등에 사용된 캐릭터는 상표특허등록된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도용시에는 법적제재조치가 있음을 공고 합니다.



영가주름등 영가접등 영가공단등

※사찰명 인쇄시 30일 전에 미리 전화신청 바랍니다.



팔각봉축접등


칼라(보카시)연등 공단등


종 등



주름등(만월봉축등) 청사초롱

찬덕연등 경기도 하남시 교산동 132-1/ 전화 : 031) 792-6288, 794-4055 / 팩스 : 031)794-6288
www.chanduk.com / 취급품목 :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

※ LED 전구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림

"한지원사로 만들어진 천연한지 제품들이 불자님의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향균력 99.9% 암모니아 소취율 98.7% 땀냄새 제거 탁월



한지섬유는 한국의 전통한지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킨 소재로 한지만의 고유한 특성을 잘 살린 웰빙섬유이다. 이러한 섬유를 만들기 위한 원사가 필요한데 이것이 바로 한지사다. 한지사란 닥나무 인피섬유인 닥 섬유를 이용하여 제조된 한지는 인체에 무해한 대표적 친환경적 천연섬유소로 황토수준의 원적외선 방출, 항균성, 소취성능, 흡한속건성, 용이한 염색성 등 다양한 기능성를 보유하고 있다.


한지이불세트 (구성:이불,패드,베개커버) ₩860,000원

한지를 이용해 제조된 한지사는 의류용뿐만 아니라 인테리어용, 생활용품, 산업용 등 다양한 용도로 실용화가 가능한 고부가가치의 웰빙섬유이다.

이러한 다양한 한지섬유의 특징을 자세히 살펴보면 항균성과 소취성능에 있어 국내 시험기관에서 시험분석결과 항균력이 99.9%유지되며 암모니아 소취율이 98.7%로 땀 냄세 제거에도 탁월하며 항상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시켜준다. 원적외선 방사율이 황토와 참 숯 보다 높아 혈액순환에 도움을 준다.
특히 인체에 무해한 친환경 경량소재로 타 섬유에 비해 월등히 가벼우며, 흙속이나 물속에서 있는 미생물에 의해 최종적으로 물과 이산화탄소로 분해되는 생분해성이 좋은 친환경 천연섬유이다. 이외에도 면섬유보다 흡습성이 3-5배 우수하며 건조성 또한 2배 이상 뛰어나 강력한 흡한 속건성을 보유하며, 한지만의 우수한 보온성과 통기성을 유지한다.


한지이불세트 (구성:이불,패드,베개커버) ₩860,000원

문헌에 의하면, "한지인 신라의 백주치를 본 중국인들은 이렇게 희고 매끄럽고 영롱한 빛의 종이는 누에고치로 뜬것이 틀림없다고 여겨 견지, 잠견지, 금견지 등으로 부르면 예찬하였다고 한다.
실제로 한지는 통기성, 부드러운 감촉 유연한 접힘, 강인성, 색상발현이 뛰어나고, 우수한 흡습성, 방음성, 보온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한지양말 ₩10,000원 (1켤레)

interview

김동조 지누리 대표



닥(한지)섬유란 무엇인가요?

웰빙 천염섬유소재로 황토보다 높은 원적외선 방사율과 암모니아, 포름알데이 등과 같은 환경유해물질을 제거하는 소취 및 항균기능이 뛰어난 21세기 유망 섬유신소재입니다.

닥(한지)섬유와 전통 한지는 차이가 있나요?

기존의 전통한지는 주로 수록지나 공예용으로 제작되기 때문에 한지의 심미적 효과가 중요하지만, 섬유용 한지의 경우 섬유용으로의 제작이 용이한 작업성과 제직 및 편직에 견딜수 있는 강도와 신도 등의 물리적 성질이 중요합니다.
최근 기계를 이용하여 한지를 대량 생산하는 기계한지가 한지산업의 주를 이루고 있는데, 섬유용으로 이용하기 위한 기계한지는 그 제작 조건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한지사는(Korean paper yarn)는 무엇인가요?

면사 굵기 40수 이내로 내의를 짤 수 있을 정도의 가는 실입니다. 면과 마의 중간적인 특성을 유지하고 있으며 재직관 편직이 모두 가능합니다. 경량소재로서 성분성이 좋아 청량감과 제습기능, 소취기능이 뛰어납니다. 내구성 및 염색성, 내 세탁성 또한 우수합니다. 단 섬유이지만 모우가 없는 필라멘트사의 장점을 유지하여 독특한 질감과 감성을 가진 친환경 소재입니다.

그렇다면 한지사에 기대하는 효과는 무엇입니까?

그동안 한지는 제작이 어려워 대량생산이 되지 못하고 쓰임새 또한 다양하지 않았습니다. 한지사의 개발로 다양한 종류를 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지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 새로운 섬유패션 소재를 비롯하여 홈텍스타일(침장류, 벽지, 커튼, 카펫 등) 웨딩드레스, 언더웨어 분야 등 다양한 분야로 활용 가능하며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성장 가능성이 풍부합니다.

제품문의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3가 38-1호 TEL 02)364-5047 / FAX 02)393-9696 / www.jisarang.co.kr